

PRSR STD
U.S. Postage
PAID
Elk Grove VLG. IL
Permit #1320



美 京 大 同 窓 會 報

서로 돕고 사랑하는 우리 서울대학교의 자랑스런 동문들

재미서울대학교총동창회
사무국 및 편집국
790 Busse Rd.,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Tel. (847)981-1464, Fax. (847)981-1465
e-mail : snuausa@snuua.org
website : http://www.snuua.org

발행인 : 李龍洛
편집위원회총무 : 구경희
편집인 : 김정수

월간 95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in the U.S. A.

2002년 1월 28일

관악후원회 종신이사 추가 특별 기여금

재미 총동창회는 7천여 동문들을 회원으로 가진 조직이며 광활한 미주전역에 산재한 동문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나, 이



방은호 동문



이병준 동문

에 소요되는 필요재원의 확보는 총동창회 출범 때부터 제기된 당면 숙제이다. 지금까지는 소수의 동문 독지가들의 특별한 정성으로 유지되어온 조직이지만 이제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가 창립 11년을 맞이하는 때에 동문들이 납부하는 재미 총동창회보의 구독료로서 재정적으로 자립함이 우리 동문들의 금지에도 합당한 일이나, 그때까지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며 금년에도 총동창회가 원만히 운영되도록 하고자 뜻있는 동문과 지역 동창회로부터 특별 지원 氣運이 일어나고 있다.

관악후원회 종신이사인 두 분의 동문이 특별기여금을 보내왔다. 워싱턴 D.C.의 方恩鎬 동문(약대 42년입)과 LA의 李丙俊 동문(상대 55년졸)이 그러하다. 본래 종신 이사회비 \$3,000을 일시에 납부하면 종신이사가 되고 추가 후원이사회비를 낼 필요가 없지만, 두 분 동문께서는 총동창회가 경제적으로 자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는 동문들의 각별한 후원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이와 같은 특별 지원금을 보내왔다. 이병준 동문은 재미 총동창회 제 3대 회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재미 총동창회 고문이시

며, 방은호 동문께서는 총동창회 평의원이며 모교와 후진을 위한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하고 있다. 두 분께서는 이번에 각각 \$3,000과 \$300(회보구독료로써 \$50)을 추가 납입함으로써 종신 관악후원 이사와 일반 후원이사를 겸하게 되었다.

작년에는 시카고 지역동창회는 이에 선도적으로 \$4,000을 기여하였으며, 또 하트랜드 지역동창회는 \$500을 관악후원회비로 기여하였으며, 이것은 지역동창회 이름으로 총동창회에 관악 후원금으로 기증한 첫 예들이다.

재미 총동창회는 두 분 동문들과 두 지역 동창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미 총동창회보 영구 보존을 위한 회보 결본(1-22호)을 찾습니다.

1990년대 재미 동문들의 삶의 역사이며 동문들의 소식과 지역동창회의 활동, 개별 동문들의 활동을 기록한 재미 총동창회보가 재미동포 연구자료로서 영구적인 보존의 필요성에 따라, 제 6대 집행부는 지금까지 회보의 영구 보존책을 모색해 왔다(본국과 미국 내에 한군데씩).

현재 미국내의 보존처로 The University of Chicago의 동아시아 도서관을 지정하기로 한국학圖書 硏究院과 원칙적인 합의를 하고 보존과 열람에 대한 실무적인 방안을 추진중이다.

그런데 재미 동창회보의 발행처가 LA에서 NY, Chicago로 옮겨오는 동안에 초기 재미동창회보, 1호에서 22호까지가 분실되었다. 회보편집실은 이 초기 희귀본을 보관중인 동문들의 연락을 바라고 있다. 특히 재미 동창회보 초기 발행자인 LA동문들의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동창회 기여금 면세 혜택

재미 총동창회(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USA) 아래와 같이 미국 연방 재무부 조세청(IRS)부터 허가된 면세번호(group exemption number) #3784를 지난 해 10월 16일자로 다시 확인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동문들과 각 지역 동창회는 장학사업 및 기타 지역 동창회 활동에 내신 기부금의 면세혜택을 Federal Income Tax Return 시에 Form 999 (Return of organization exemption from income tax)이나 Form 990-T(exemption organization business income tax return)의 작성시에 총동창회의 면세번호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동창회 사무국은 IRS에서 받은 이 면세허가와 관련된 서한의 원본을 보관 중이니 더 자세한 내용은 필요한 경우에 요청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 아래 -

1. 총동창회 Employer Identification #13-3859506
2. 총동창회 면세번호 - #3784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

新年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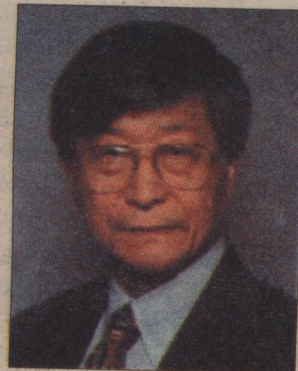
自助自立하는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존경하는 재미 서울대학교 동문여러분, 새로운 한해가 밝아 왔습니다. 2002년 새해는 駿馬의 해입니다. 躍進의 氣運이 우리동문들이 추진하시는 일마다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창립 이래 어언 10년이 경과한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도 금년에는 큰 성공의 한해가 될 것을 소망합니다. 본인은 새해 아침에 우리 총동창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금년도 사업들에 관하여 동문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볼 것으로서, 우리 재미총동창회의 성공적인 미래를 眺望해 보고자 합니다.

동문 여러분,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는 그간 長足の 발전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전 미주에 산재해있는 동문들의 자료은행이 구축되었고, 동문들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재미 서울대 동창회보를 통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母校를 高揚하고자 하는 공동목표를 추진해 가는 본국 총동창회와의 유대도 날로 돈독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母校와 後進을 위한 基金도 첫 목표인 100만불 모금에도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한편, 母校를 高揚하는 제반



사업과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견인차가 되는 재미 총동창회를 盤石 위에 올린다는 선결 과제를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재미 총동창회는 아직도 그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지금까지 그 활동기반의 많은 부분을 선대 회장님들을 포함한 몇몇 독지가와 관악후원금에 의존하고 있음을 동문 여러분과 함께 본인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하루 빨리 벗어나기 위하여 제6대 집행부는 가장 큰 목표를 총동창회의 재정적 자립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목표의 달성은 무엇보다도 동문 여러분의 참여도의 제고로써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면에 계속>



壬午年 駿馬의 해 / 도약하는 재미 총동창회.

목차

- 제 1부 : 총동창회 소식
- 제 2부 : 문필과 논고 - 4면
- 제 3부 : 동문 및 지역동창회 소식 - 15면

<1면에서 계속>

그 지름길은 우리 동문들간의 대화의 장이며 동문들간의 지성의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재미동창회보의 質의 수준향상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재미 서울대 동창회보는 한국의 최고 지성인인 서울대인의 肯志에 상응하여 우리 동문들간의 수준 높은 대화의 場으로 일반 소식지와는 다른 동창회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목표의 달성은 우리 동문들 모두가 『賢者는 寡黙하다』라는 전통적인 통념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寄稿者와 資料源이 될 때에만, 우리 동문들의 상호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의 교환의 장을 우리 동문들의 손으로 만듦으로써 다른 동창회들과는 다른 동창회의 참 모습을 세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풍요로운 재미동창회보의 구성은 다양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미주 전체에 산재해 있는 모든 동문들은 타향살이 속에서 옛정을 나누고 싶은 친구의 소재와 근황에 대하여 궁금해합니다. 동문여러분의 크고 작은 활동들은 우리들 동문들의 삶의 역사이며 우리의 친구들은 이를 궁금해합니다. 재미 동창회보는 항상 문을 열어 놓고 동문들이 보내주시는 크고 작은 소식과 자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면 이 자료들은 지역동창회에서 총동창회로 제공해 주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동문들은 조그마한 자료라도 유용하다고 생각하실 경우 총동창회 편집인에게 보내시어 풍요로운 재미동창회보를 우리 동문들의 손으로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이리하여, 제 6대 執行部는 재미동창회보의 질적 향상을 통해서 "단지 동문이

기 때문에" 라는 의무감에서 납부하는 구독료가 아니라, "기다려지는 회보로 발전시켜" 구독료를 기쁜 마음으로 납부하는 단계로 회보를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재미 동문 여러분! 현재의 추세로 보면 재미총동창회기의 제 6대 제 1차 년도의 회기가 끝나는 2002년 6월 30일까지 구독료 납부자 수는 전 회계 연도에 비하여 25%가 증가한, 1,500 여명의 동문들이 구독료를 납부하게 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구독료를 납부하신 여러

관약후원 이사의 임기는 1년이지만, 재미 동창회보의 자립이 이루어질 때까지 동문여러분들께서 후원이사로 유입하여 주시고, 또 많은 동문들께서 새 이사로 참여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비록 종신 관약 후원이사 시거나 또한 본 총동창회의 Anchor Donor이신 동문들께서도 계속하여 일반 관약후원회 이사로서 남아계실 뿐 아니라 회보구독료도 납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이러한 재미

동창회보의 자립기반의 확보를 위하여

동문들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대로이면 5년 후나 되어야만 회보 구독료만으로써 총동창회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되기에,

제6대 집행부는 이 기간을 더욱 단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직 회보의 자립시기가 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현재 관약후원회비 모금액 중에서 적립되는 종신이사회비를 제외하고는 전부 총동창회보 발간 및 기타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형편인 이 현실을 타개할 수 있기 위하여 동창회보 구독료로서 재정자립이 될 때까지 절실히 필요한 몇 가지 사항을 동문 여러분께 호소하고자합니다.

우선 많은 동문들이 관약후원회 이사로 참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목적으로 전국 평의원회의에서 채택된 각 지역 동창회의 관약후원회 이사 추대 목표의 달성을 위한 협조 서한을 각 지역 동창회에 이미 보낸 바 있습니다.

총동창회의 難關을 이해하시고 이번에 이미 관약후원회의 종신이사이신 총동창회의 李丙俊 고문 (제 3대 회장)께서 \$3,000을 快擲하여 주셔서 일반 후원이사를 겸하시고, 또한 종신 이사이자 100만불 기금 Anchor Donor 方憲鎬 선배님께서도, 여러 가지 어려우신 중에서도 구독료를 포함한 \$300을 납부하셔서 말씀드립니다. 方선배님의 垂範의 예를 따라서 여러 선배 동문들께서 워싱턴 D.C. 송년회에 참석하신 본인과 동문들간의 간담회장에서 일반 관약후원이사회비를 흔쾌히 납입하셔서 재미동창회의 살림을 짊어진 본인에게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은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많은 지역동창회를 방문하여, 많은 동문들과 직접 만나 『母校를 高揚하는 재미 동창회, 知性人의 友情을 글로써 나누는 동창회』의 自助自立이라는 우리의 목

표를 달성할 수 있는 훌륭한 방안들을 동문여러분과 함께 토론하며 노력을 모으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트랜드 지역동창회, 뉴욕지역동창회 그리고 워싱턴 D. C. 지역동창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본인은 이와 같이 재미 총동창회의 재정자립이 달성되면, 관약후원회는 본래의 설립 목적인 장학사업, 동문복지사업 등으로 발전하여 가는데 필요한 기금으로 사용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때가 되면 회보 구독료에서 오는 剩餘재원으로 관약 후원회의 본래의 목적사업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게되며, 궁극적으로는 『母校와 後進을 돕기 위한 基金』을 확대하는데도 크게 기여하는 때가 곧 온다는 것을 본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금년은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창립 1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본인은 경제적 자립을 위한 도약의 해로서 우리의 각오를 다짐하는 재미 총동창회 창립 11주년 기념식을 6월에 있을 평의원회의를 겸하여 갖하고자 합니다. 이에 총동창회의 계속적인 발전을 다짐하는 의미에서도 이번 평의원회에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모든 평의원께서 오는 6월에 시카고에서 개최되는 전국 평의원회의에 모두 참석하시기를 바라며 이에 초대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駿馬의 해 壬午年을 맞이하여 각 동문여러분의 가정에 健康과 幸福이 충만하시기를 바라며, 이에 새해 人事에 대하고자 합니다.

2002년 새해아침에,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장 李龍洛 拜上



조수미 초창음악회 실황 녹음 CD 판매 "Love from Washington"

소프라노 조수미(Sumi Jo) Washington, DC Concert (2001년 8월 25일)에서 실황 녹음하여 제작된 CD를 500개 한정판으로 우편 판매한다. 이 판매 대금은 관약후원회와 母校와 後進을 위한 基金으로 사용된다.

가 격 : CD 1개당 \$15(송료는 첫 한 개에 \$3 복수 구입 시 개당 \$1 추가)
구매수량(1인당): 제한 없으나 500개의 제한된 수량!므로 선착순 주문 판매함(30면 상단에 주문서를 기입하여 가격과 우송료를 포함한 수표를 아래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사무국
SNUAA USA
790 Busse Road, Suite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전화: 847-981-1464, Fax: 847-981-1465
e-mail : sunaaua@snuuaa.org
* 수표는 Payble to SNUAAUSA로 작성 바람.

재미동창회보 투고 요청

재미동창회보는 미주 전역에서 각자 전문분야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여러 동문들의 사색의 소산인 玉稿들을 모아, 우리 동문들의 상호 발전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의 매체로서의 역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보의 독자 여론 조사에서 동문들은 다음과 같은 주제의 글을 읽고 함께 토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 1) 남북한 관계의 진전 상황 2) 미국의 외교정책 3) 한국 경제 4) 세계 경제
- 5) 한국의 교육 개혁 6) Nano 기술 7) 생명공학 8) 보건 의료 분야 9) 조세, 은퇴, 투자 방안
- 10) 동문들의 자전적 수상, 시와 사진을 함께 보내주세요.
- 11) 기타 동문들의 창의적인 글을 기다립니다.



“고뇌를 뚫고 나가라 환희, 기쁨의 세계로”

서울대총동창회 金在淳회장 <상대 46년 입>

2002년 壬午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地球村 끝고루 海內外에 계시는 20萬 서울大人 여러분의 건승을 축원하면서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나라마다 새아침을 열면서 뉴 이어 콘서트(New Year Concert)의 막이 오르지요.

음악의 도시 비엔나(Vienna)에서는 비엔나 필이 연주하는 요한 스트라우스의 왈츠곡으로 새해가 밝아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제 9번으로 새아침을 여는 나라도 많습니다.

『기뻐하라, 하늘의 아름다운 불꽃, 우리를 맞이하라, 빛의 전당으로, 너의 거룩한 힘으로 굳게 맺은 착하고 자비로운 날개로, 온 인류는 모두가 형제이니...』

베토벤은 가난하고 몸이 약한 마치 苦惱 그 자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환희와 기쁨을 거절당한 바로 그가 스스로 기쁨을 창조했습니다. 기쁨을 온 세상 사람에게 선사하기 위해서..

베토벤이 남긴 말 한 토막을 서울大人 여



러분에게 선사하면서 새해 인사에 갈음합니다.

『고뇌를 뚫고 나가라. 환희, 기쁨의 세계로』

서울大人들의 가정마다 넘버 나인의 『환희의 노래』가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눈이 내리면
창밖에는 아이들이 눈덩이를 뭉치며
신나게 뛰어놀고
눈 덮인 겨울은 누구에게나 끝고루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 김단선 기증, 2002년 1월 28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울대총동창회
김재순 회장

재미동문들에게 보내온 김재순 총동창회장의 연하인사장.

신년인사

“민족의 번영 위한 서울大人의 역할 막중”

서울대학교 李基俊총장 <공대 61년 졸>

壬午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동문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본인이 22대 총장직을 맡은 지도 3년이 지나 임기의 마지막 해를 맞이했습니다. 지난간 한해에도 교수, 학생 및 교직원 모두는 여러분의 모교가 세계 수준의 종합연구 중심대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입생 선발제도의 개선, 학부교과과정 개편, 교수평가제도 도입과 연구지원 확대 방안 마련 및 대학 운영체계 개편 등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들을 발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그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세계적인 석학들을 Blue Ribbon Panel (최고 자문위원단)로 모셔 서울대의 현재와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해 진단과 자문을 구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그 동안 서울대가 우리나라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취약한 재정규모나 시설 면을 고려할 때 그동안의 연구성과나 업적은 경이적이지만,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비교해보면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이라는 격차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보고서는 서울대의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세계 우수 대학은 커녕 국내의 다른 대학이나 연구기관들에게도 뒤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지적대로 여러분의 모교는 중대한 변혁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무한경쟁의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지식 창출의 원동력으로 재도약하지 못하면 세계무대에서 2류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만 보아도 베이징대와 칭화대는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적어도 10년 이내에 세계 일류대학이 되고자 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모교는 세계무대에서의 경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장기발전 계획이 마련 될 것이며, 이 계획에는 서울대의 역사를 다시 열어 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될 것입니다.

이제 서울대 가족 모두의 대학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국민적 공감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지원과 동문 여러분의 격려와 관심은 더 없는 큰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새롭게 전개될 국제 경쟁 사회에서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와 동문여러분들의 역할은 실로 막중하다 할 것이며, 특별히 여러분의 모교가 합차게 도약하는 시점에서 동문여러분의 모교 발전을 위해 크게 공헌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과 동문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이용락 재미 총동창회장 워싱턴 D.C. 지역 동창회 순방 동문 유지들과 동창회보 자립기반 확보를 위한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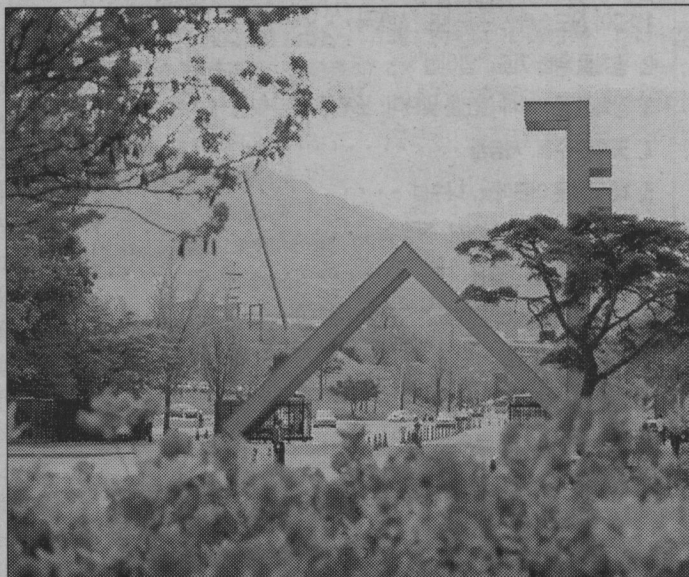
이용락 재미 총동창회장(공대 53년졸)은 지난해 12월 29일에 열린 재미총동창회와 각 지역 동창회의 활발한 활동을 격려하기 위하여, 지역동창회를 순방중인李 회장은 9월 29일과 30일의 하트랜드 총회(당시회장 김호원 치대 52 입, 현회장 이상문 상대 57입)와 12월 22일의 뉴욕지구(회장 한창섭, 문리대 57입) 동창회 송년 총회에 참석한李 회장은 워싱턴지역 동창회(회장 진금섭, 약대 63년졸)의 요청으로 송년총회에 참석

하여 워싱턴지역 동창회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는 임원들을 격려하고(송년회 인사말 전문 19면 참조) 이튿날에는 참석한 많은 동문들과 총동창회의 사업전반과 회보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동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간담회 내용 초록 20면 참조).

이회장은 송년회 인사말을 통하여 지난해 8월 25일 조수미 동문의 음악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그 결과를 CD로 제작하여 전미주의 동문들에게 조수미 동문의

공연실황을 직접 접할 수 있게 하고, 제한판 CD 500매를 총동창회에 기여하여 『母校와 後進을 위한 基金』 및 재미 총동창회의 간행과 일반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관악후원기금』에 기여토록 한, 워싱턴 D.C. 지역 동창회의 동문들과 기금관리위원회(방은호 위원장, 정우순, 문성길, 오인환, 진금섭 및 이영복위원)에게 총동창회를 대표하여 이에 대하여 감사사를 표하였다.

또 이회장은 1월 26일에 열린 뉴잉글랜드의 지역 동창회(회장 이재신, 공대 62졸)의 정기 총회 및 신년 하례회에 참석하였다. (관계기사 다음 호에 게재 예정)



母校 관악캠퍼스 정문.

送舊迎新

고이 잠드소서

신 동국 <수의대 76년 입>

애야, 밤새 괜찮았니?
 꿈자리가 뒤송송해서 —
 엄마, 괜찮아, 그런데 비행기가 와 —
 쿵!!!
 쿵! 쿵! 쿵!
 당신, 잘 가고 있어요?
 응! 하지만 지금 건물과 강이 보여 —
 쿵!!!
 쿵! 쿵! 쿵!
 여보, 나는 최선을 다해 싸워야 해
 I love you. Good bye ??????
 쿵! 쿵! 쿵!
 아 — 여보 — 안돼 —
 와르르 쿵! 쿵! 쿵!
 아비규환의 단발마
 자욱한 연기
 달리는 미이라들
 이것이 꿈인가 생인가
 여보. 당신. 엄마. 아빠. 아들이. 딸아. 친구여!
 지금 어디에 —
 하염없이 흐르는 피눈물
 목놓아 불러보는 이름들
 오! 주여,
 당신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9.11 테러에 사라진 영혼이여
 주님 품안에 고이 잠드소서



근하신년(謹賀新年)

태평양 건너
날아온 소식

정겨운 농촌의 모습
온대지를 뒤덮은 눈
휘어져 내린 소나무

다소곳이 자연의 치마폭에 쌓인
초가집, 기와집

굽이치는 파도피듯
눈덮힌 발두렁 논두렁

들녘에 쌓여있는 낫가리
모이를 찾는 잠새 여섯마리

이만리 타국에서
받아보는 그리운 고향의 소식

정겨움에 울컥 솟아오르는 기쁨
눈가위에 이는 이슬

(1/7/02, 한국에 계신 김봉수 선생님의 연하장을 받고 씀.)



林利涉 동문 미술전시회

"Prayer for Peace"

1월 14일부터 30일까지 데일리센터에서

林利涉 동문(미대 59년 졸)의 작품 전시회가 "평화를 위한 기도"란 주제로 1월 14일부터 30일까지 시카고 다운타운에 소재한 Daley Center (66 W. Washington St., Chicago)에서 개최되고 있다. 총12점의 실크스크린 작품을 통하여, 세계의 평화와 자유를 기원하는 마음을 표현하였다고 한다.

林 동문은母校 졸업 후, IIT의 디자인학과에서 디자인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일찍이 Jacques Baurch Gallery에서의 전시회를 출발점으로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일하였고, 몇 년후 IIT에서는 임 동문과 그 작품을 Bauhaus Show에 포함시키는 영예를 주었다. 임 동문은 지금도 계속적인 업무로 뒤돌아 볼 겨를이 없는 바쁜 시간 중에서도 작품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시카고에 25여 년간 거주한 임 동문은 시카고 시 문화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1995년도에 Daley 시카고市長은 "임이섭의

날"을 선포하기도 했다. 전시회 첫 날, 오전 11시 30분의 개막식에는 이용락 재미 총동창회장님과 다수의 동문들이 함께 참석하였으며, 시카고 지역 동창회는 새해 첫 열린 임원회의의 결의에 따라 한 재는 회장이 축하화환을 보내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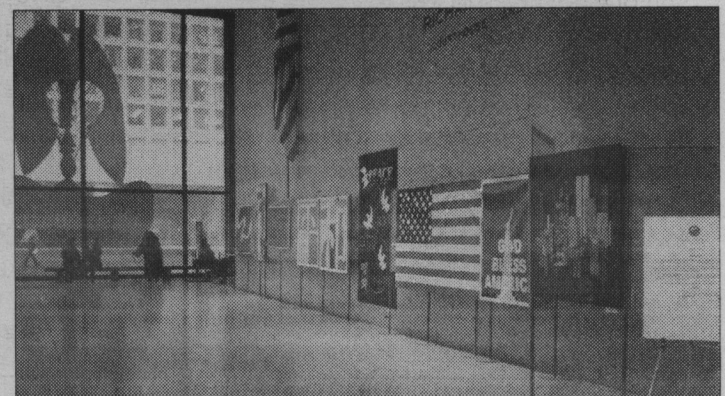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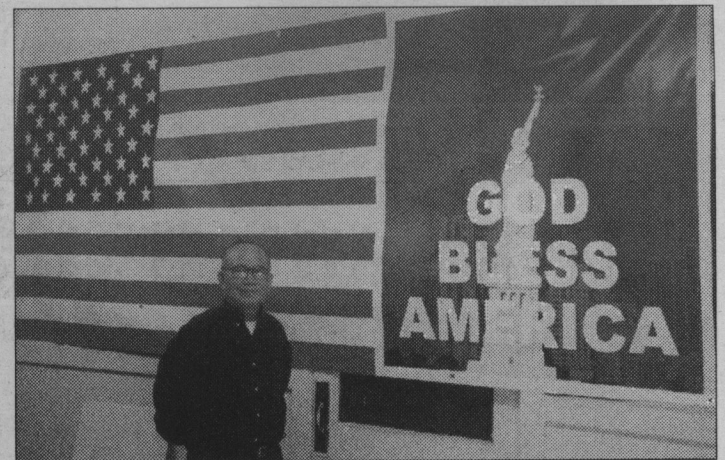
임 동문은 이번 전시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As a graphic artist, I express my prayers for the country and the world's peace and share my artistic insight with the people of Chicago land. My goal is to use my art to uncover positive connections among us and to express them in relevant way."

"In my works, I am striving to create a working model of peace—to create a small world in which each element is gracefully integrated with the others to form a subtly complex image of harmony."

Chicago Department of Cultural Affairs presents
"Prayer for Peace"
 Aesop Rhim's Art Exhibit
 Opening Program
 Monday, January 14, 11:30am, 2002
 Chicago's Richard J. Daley Center
 Artist's Greeting
 Special Prayer for Peace
 Presentation of The Mayor's Proclamation
 Special Music: "God Bless America"
"Since September 11, we have all been fighting for the restoration of peace and freedom. As a graphic artist, I express my prayers for the country and the world's peace and share my artistic insight with the people of Chicago." Aesop Rhim

<아래사진> 시카고 시내 데일리센터에서 작품전시회를 열고 있는 임이섭동문과 전시장 전경.



2부 文筆과 論考 목차

| | | |
|-----------------------------|----|---|
| 1. 고이 잠드소서 / 근하신년, 신동국 | 4 | 이번 호에는 壬午年 새해를 맞이하여 신동국, 노재욱 동문의 送舊迎新의 詩와 주역연구가 서승환 동문의 새해의 전망 김민자 동문의 신앙수필, 캐나다 거주 동문인 한경섭 동문의 함흥 향토사 연구 논문, 정정수 동문의 서울대인의 自我像의 검토론, 남북관계의 정체시기에 있어 한국 대외 정책의 방향에 대한 정태웅 동문의 논고, 한국인에게 이상처럼 되어있는 Harvard 대학에서 종신 교수직과 교수들의 연구실적을 둘러싼 짧은 총장의 정책에 대한 논쟁, 테러사태 이후의 미국사회에 대한 장동만 동문의 詩論, 55세의 나이로 미국 전문의 시험합격을 기록을 세운 이수섭 동문의 自傳隨想, 한국의 응급의료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한 곽홍 동문의 논고, 서울 동창회로부터 박용호 동문의 식품유산균연구에 대한 논고 등을 모았다. |
| 2. 평화를 위한 기도, 임이섭 | 4 | |
| 3. 장백산 정상에서 日出을 맞으며, 노재욱 | 5 | |
| 4. 天符經 주해, 서승환 | 5 | |
| 5. 네 고향은 어드메뇨, 이수섭 | 6 | |
| 6. 한 알의 밀 알이 썩어서, 정정수 | 7 | |
| 7. 한반도 평화, 정태웅 | 7 | |
| 8. 다민족 사회 하버드 대학의 고민 | 8 | |
| 9. 미국적 애국심의 두 얼굴, 장동만 | 9 | |
| 10.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김민자 | 9 | |
| 11. 동물장기이식과 문제점, 김일훈 | 10 | |
| 12. 아름다운 금강산, 백순 | 11 | |
| 13. 한국 응급의료제도 개편의 필요성, 곽홍 | 12 | |
| 14. 나의 고향 함흥, 한경섭 | 13 | |
| 15. 기능성 식품 유산균이 질병 예방해, 박용호 | 14 | |

長百山 정상에서 日出을 맞으면서

盧在煜 <의대 64년 졸>



먼동이 트기까지는 아직도 까마득히 멀어 캄캄한 밤 중
日出 맞이 준비하러 長百山 정상으로 가는 길은,
지프차로 달려가는 가파른 낭떠러지 길,
짧은 운전기사 두려움 없이 달려 단시간에
白頭山 정상에 당도하였네.

지프차 주차장에서 급경사 황토 계단길을
숨막혀 험뻛으며 올라가,
동쪽하늘 바라보니
부월계 먼동이 트기 시작하네,

장백산 정상에서 맞는 日出!
감동의 일출!
일출을 맞이 위해
이곳 연변, 중국과 조선을 나누는 국경선변,
장백산정에 올라왔다네.

天池를 배후로 장식하고,
장백산정을 조명하러,
드디어 먼동이 트기 시작하네
발그스레한 태양의 첨단이 먼저 선을 보이네.

조금씩 동녘 하늘이 밝아지고
태양은 떠 올라오네
화사한 둥근 얼굴로
해맞이 무리를 향해 웃음을 지으면서

오! 장엄하도다
오! 찬란하도다
저 태양은 朝鮮天地를 두루두루 차별 없이 비추고 있네

조선은 한나라!
저 태양이 동시에 비추며
감싸주는 한반도!
함께,
동시에,
일출을 맞을 수 있는 韓民族!

아! 이곳 조선반도에 저 태양은 고루고루 비추고 있네
우리모두, 저 태양이 우리를 함께 감싸주듯
우리 서로 감싸주고
손과 손을 맞잡고
함께 喜怒哀樂을 같이 하세

조선은 한나라
누구나
부산에서 신의주
신의주에서 부산

평양에서 서울
서울에서 평양으로
막힘 없이 갈 수 있는
한 민족의 朝鮮半島!
그날이 머지않아 오기를
나는 기원하고 있네
그리고 확신한다네
그날이 머지않아 올 것을...

장백산 정상에서
일출을 맞으며
우리 모두가
반세기가 넘도록 그 오랜 시간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감격의 그 날이 오기를 기원한다네



장백산 정상에서 필자.

필자주: 이 시에서 필자는 백두산을 長百山
이라 함은, 이번에 필자가 중국연변을 거
쳐 그곳에 올라간 바 중국에서는 白頭山을
장백산이라 하였다. 머지 않은 미래에 우
리 땅에서 직접 백두산에 올라가서 天池를
관광하고 日出을 구경할 때가 오기를 필자
는 기원하며 그 때는 “백두산 정상에서 일
출을 맞으면서”라는 시를 한 편 쓰리라.

天符經 解題

徐承煥 <치대 67년 졸, 周易연구가>

<편집자 註: 徐동문은 花潭의 後孫으로 일찍부터 易經 연구에 몰두하여 현재 새로운 번역본을 완성 중에 있는데, 여기에 편집자의 強請에 의하여 壬午年의 時運을 孤雲의 天符經을 해설함으로써 著하였다. 그러나 徐동문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天機의 해설은 Esotericism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留保하였으므로 관심 있는 동문독자들은 필자에게 직접 顧問하시기 바람.>

欲知未來 先察已然라 함은 미래를 알고 싶으면 먼저 지난 옛것을 살펴라 함이요

覆轍在前 後車宜戒라 함은 歷史를 배우는 理由는 未來를 살아가기 爲함이요

不踐迹 不入於其室이라 함은 道를 닦으려면 선진들의 行적을 밟지 않고는 得道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壬午年을 當해서 占을 칠 일이 아니요. 歷史의 돌아간 時點을 맞추어서 過去를 未來의 立場에서 생각함이 옳지 않을까?

부탁컨대 易經을 占書로 잘못 씀으로서 地球上에 특히 東洋에서 많은 誤謬乃至는 罪惡을 저지르지 말아야겠다. 日本에서는 白馬(백말띠)年生은 시집도 보내지를 않는다 하니 점쟁이들의 이 罪惡을 어찌려는가?

이제 우리는 文明을 생각하여 불 必要가 있다. 西洋에서는 文明을 垂直的으로 說明하고 있고, 東洋에서는 두 끝을 이어놓았을 뿐이니 結論에서는 그 差異를 發見할 수 있을 것이다

(Civilizations rise and fall).

一個 文明을 春夏秋冬 分類해 보면 지금 우리는 겨울로 進入하여가고 있다고 나는 본다. 그리고 本紙 지난 호에서 “支學하세 발을 갈아 雪霜時에 秋收하세”하고 있지 않았던가? 具體的 說明은 避하고 讀者에게 맡기겠다.

歷史的으로는 가까운 過去를 생각하여 볼까 한다. 원래 文明은 堯天革舜日과 같이 새벽 같은 밝은 世上이 되었다가 다시 어스름한 어두움으로 돌아간다. 지난 百餘年의 歷史는 일찍이 先知者를 통해서 갖다 준 하늘의 道를 外面함으로써,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外勢에 의해서 變化와 試鍊을 통

해서 善者生 惡者死의 不變의 道를 가르쳐 가는 歲月로서 舊染髣班



들의 몰락과 開化 文明을 쫓아 庶民의 숨통을 트는 새 時代로 향하는 激動期라 하겠다.

지난 시대의 壬午年의 사건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882년 5월 22일 韓美守護通商條約

1882년 6월 6일 韓英守護條約

1882년 6월 30일 韓獨守護條約

1882년 7월 19일 壬午軍亂

1882년 8월 30일 韓淸상민무역장정을 採決→日本人의 한국 진출을 막기 위하여

淸國 상무위원이 파한됨

1882년 9월 16일 高宗 척화비(斥和碑) 撤去

1942년 朝鮮語學會 事件

이런 사건들은, 天道를 외면해 가며 外勢를 끌어들이면 偶像崇拜를 懲戒하시는 하늘의 法則에 의하여 반드시 일어난다.

不知春日何望生 - 東邦에 봄은 어떻게 생긴 것인지 모르고 바라면서 살아가다

一釣三餌左右中 - 북방의 강국은 낚시처럼 생긴 초생달임 東西洋에 먹이를 놓고

天根月窟寒往來 - 北邦과 南方이 협력하면서

三十六宮都時春 - 中蘇韓 東邦이 모두 봄이다.

원래 봄은 玉燈秋夜三八日是 南北相和太平歌를 불러야하는 것이 데 反對이고

欲識蒼生生命處는 吉星照臨眞十勝이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끝으로 아래에 최치원 선생이 전래하신 天符經을 새로 풀이하여 적어 내려간다.

<天符經 解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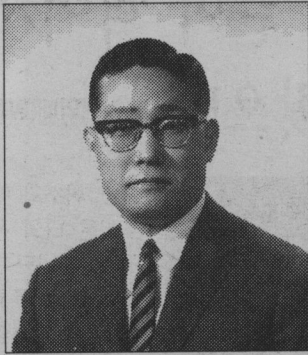
一盡一三三運衍本中
始來三天三大萬本天
無天一二三四往心地
始一積三合成萬本一
一一地六環來太一
折地鉅二生五用陽終
極二匱人八一不明終
無人化二九妙動人一
<辛未之夏 徐承煥>

<연락처: 847-673-4663>

<自傳隨想>

네 고향은 어디메뇨?

羅秀燮 <의대 50년 쯤>



세월의 흐름에 따라 나에게 은퇴의 날이 온 것은 1998년 5월 31일이었다. Doctor of Medicine으로 48년간 지나온 나의 인생에서 획기적인 이정표를 세운 것이다.

일본 식민지 시대에 태어난 나는, 대동아 전쟁이 아니었다면 일본의 제국대학에 가서 공부하기를 갈망하였으나 이것은 시도해 보지도 못하고, 의학의 길을 택하게 되었다. 전쟁이 끝난뒤에 일어난 한반도 정세의 격동에 휘말려 들어 나는 평양에서 김일성대학학부 2학년에 재학하고 있다가 피난민으로 결사적으로 월남하였는데 공교롭게도 그때부터는 서울대의대학부 편입이 없다하여 전문부에 편입 졸업하게 됨에 인생이 주는 Irony를 뼈저리게 느꼈었다.

피난와서 우리 열 사람가족이 셋방사리하면서 교과서는 물론 공책도 제대로 된것 써보지 못하였고 참으로 비참한 상태에서 나의 대학생활은 끝났던 것이다. 졸업하고 한달 만에 당한 6.25전쟁. 그로 인해 홀로 길을 터서 들어갔던 공군의무장교 생활 7년 5개월은 그야말로 황량한 모습안에서 지냈다. 원래는 대학을 졸업하면 3년간 착실히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마치고 미국에 유학하기를 꿈꾸며 어렵게 들어간 대학병원 제 4내과 교실이었던건만! 다행히도 공군에 있는 동안 선발되어 전무후무했던 미국민간대학 병원 수련요원으로 Los Angeles의 U.S.C. Medical Center에 오게 되어 그 후 3년간은 1955년 한국의 사정으로는 사막에서 만난 Oasis였다. 내 생애의 전성기는 공군의무 업무에 바쳐졌고 제대하면서 동창 심봉섭교수의 도움으로 카톨릭의대 내과교수직에 한몫하게 되었다. 그때는 그 대학의 운영상의 사정으로 교수들에게 연구생활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런 일을 만 10년하고 나서 우리는 미국에 이민왔다.

나는 평남 진남포에서 출생했지만 어려서 부터 평양에서 자랐다. 중학교까지는 일본 제국주의의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었고 해방후 대학의 예과과정을 시작하면서 물려온 악랄한 조선공산당의 압제를 견딜수가 없었으니 탈출하기까지의 그 곳 생활은 정말로 악몽의 연



나의 꿈속의 고향 평양 모란봉 <손염섭 유화>

속이었다. 연고자라고는 한 사람도 없었던 서울에서의 삶은 만년 피난민의 신세였다. 따라서 카톨릭의대교수로서의 생활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나의 관비 유학생으로서의 내과수련은 국방부 명령에 따라 중단되었으므로 뒤따른 육구불만의 해결책을 홀로 모색하던 중 Hematology Fellow 자리를 Tufts University 에서 얻었지만 갑자기 이를 취소하고 이민하기로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서 나의 M.D. 활동안에서 본격적인 미국생활이 시작되었다. 1960년대 한국의 사정은 돈 300만 원 싸들고 설령에 혈안이 된다면 교수자리를 미련없이 내 던지고 미국 내과 레지던트 제 1년생을 다시 시작했을 때에는 이미 늦은 나이였음으로 Subspecialty Oncology 까지도 하느냐의 문제를 앞에 놓고 몹시 고민하였으나 Moonlighting을 계속하면서 이것까지도 끝내고 1974년에 Canton, Ohio에 internist-Oncologist로 오게 되었는데 그때 내 나이는 46세였다.

진료에 온 정성을 다하였고 다행히도 시작하자마자 환자가 쇠도하는 형편이 되어 설 사이 없이 새벽부터 밤 늦게 까지 매일 바쁘게 지내게 되었다. 미국동료들의 말

에 개업의로서 진료를 하면서 내과전문의보드를 따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였고 주위에서도 모두 적당히 하라고 권하였지만 그래도 제대로 전문의로서 일을

하려면 내과 전문의시험을 획득하기로 비장한 결심을 하고 실천에 들어 갔다. 원래 내과전문의 시험은 어렵기로 이름 난것인데 이것을 몇살 아래가 아니고 한 세대가 젊은 그들 Elite와 1:1로 대결하게 되었으니 과연 나는 생전 처음으로 나제의 고배를 마시게 되었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 칠전팔기하여 나는 55세의 나이에 이것을 당당한 성적으로 따내고야 말았다. 그때 미국 내과학회 (ABIM)로부터 내가 기록을 세웠다고 서신을 보내 온바가 있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였는가? 나의 주위에서는 스스로를 확대하는 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들 하였다.

그러나 나로서는 나의 생애를 바쳐온 전문분야에서 무언가 하나 유감없이 후련히 성취해 놓고 싶은 심정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실제 진료에는 별로 도움도 되지 않는 그 칭호를 묘지의 비문을 장식하기 위해서가 아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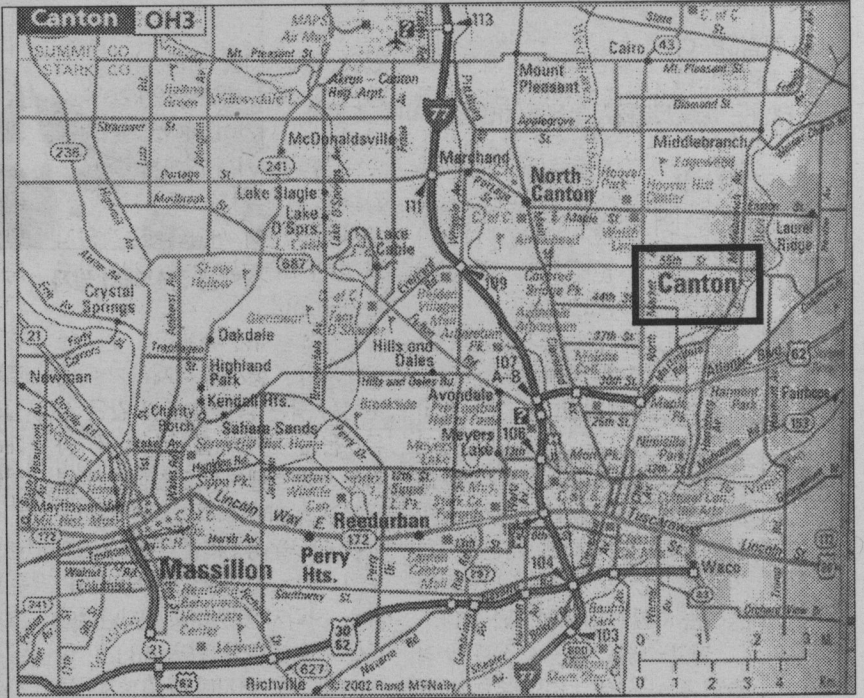
라 영원히 남을 이름을 위하여 앞날에 나의 후손들이 자랑스러운 안에서 나를 이야기 할 수 있게 해주기를 바라는 내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분명히 느끼는 바이다. 그러면서 이제 돌이켜 볼 때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였으니 100만불을 준다 해도 다시는 하지 않으리라! 우리 선조의 집안이 청빈하여 나의 선친은 독학으로 일제시대에 의사가 되었고 제국대학 출신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그때 조선에서 몇 사람 안되는 조선사람 고등관으로 평안남도에서 출세하셨던 나의 선친께서 심어주신 독학정신과 어린시절에 내가 받았던 알찬 정신교육이 있었고 또 단점이며 동시에 장점이기도 한 Hamlet을 닮은 집념이 나에게 있었기에 이것이 가능하였다고 감히 자부하는 바이다.

쉽지않은 진료를 계속하면서 나는 자주 Michaelangelo를 생각하며 스스로 체질적 하였다. 큰 대리석 덩어리를 앞에 놓고 하나 하나 쪼아내어 저 유명한 조각품 "Young David"를 완성한 Michaelangelo! 나의 하루를 그가 불꽃 튀기며 쪼아낸 돌 조각 하나에 비견해 가면서 나도 무엇인가 이루어 놓았다고 생각한다. 정성드리며 살아온 나의 삶에서 세월은 흐르고 또 흘러 어느덧 70의 나이를 맞이한 사실을 직시하면서 지난 날들을 총정리하기 위하여 은퇴하기로 결심하였다. 돌이켜 볼때 우리의 삶에서 한 고장에서 계속하여 가장 오래 살았던 곳은 한국의 어디가 아니고 미국 Canton, Ohio이며 이 고장에서 우리는 놀라움게도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다.

1998년 5월말에 은퇴하고 얼마 후에 동창 朱一 교수가 오래 살아온 Columbia, Maryland로 이사

하기로 결정하였다. 예정되었던 여러가지 일들을 마무리 짓고 Woodland(Canton 소재)의 정들었던 우리의 옛 집을 파고 정리하는데 몇달을 바쁘게 보내고 이사를 한겨울에 하게 되었다. 2월 중순에 마침 좋은 날씨를 만나게 되어 그동안 임시로 와있던 Columbia에서 1,500리 길인 Canton으로 돌아가는 길에 Ohio Stat Line(주 경계선)을 넘게 되었는데 그 순간 문득 누군가가 나에게 "네 고향은 어디메뇨?"하고 묻고 있었고 그때 나는 "여기 Canton, Ohio가 이제는 내 고향이요"하고 답하며 묘한 Sentiment에 심취되고 있는 듯 하였다. 심혈을 기울이며 참담히 성숙하던 우리의 25년이란 긴 세월을 말없이 고스란히 바쳤던 이 고장! 이제 어찌 여기가 앞으로의 내 고향이 아닐 수 있겠는가?

내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고향 평양에는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찾아가 보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렀고 낯설었음 나 그네 길에서 긴 세월을 지나온 나에게 이제는 그래도 앞으로의 삶에서 생각하면 찾아와 볼 수 있는 새 고향, Canton, Ohio Woodland의 그리운 옛집이 있음을 알고 위로 받고 있는 듯 하였다. 천진난만한 어린 시절을 지냈던 풍류의 名都평양, 모란봉 밑인 경상리의 우리 옛집! 키우던 Pointer 사냥개를 데리고 아침 저녁으로 산보하던 부벽류 윗쪽의 공원. 이제는 너무나도 많은 세월이 흐른 탓으로 꿈에서도 볼 수 없게 된 그 아름다운 경치를 잊지 못하면서 노년에 들어선 나는 이 사실을 통탄하여 마지 않지만 조국통일의 날을 바라는 나의 집념을 버리지 않고 다시 한번 끝까지 버티어 보련다.



나의 새 고향 <Canto, Ohio>

투고요청
同門들의 소중한 경험이 담긴 자전적 수상을 다른 동문들과 나눔시다.

몇 주일전 뉴욕근방 서울의대 '62년 동기회 정기 계모임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장병호군이 룡아일랜드에서 참석해주어 모두들 반가워했다. 마침 그때 한국의병리학 및 소아병리학의 권위자이자, 우리 동기중 유일하게 부부가 된 지제근과 이미나 동기가 참석해서, 우리 재미 동기들은 Dr.장이 우리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지제근교수 부부를 만나러 왔을 거라고 농담을 주고 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그간 Dr. 장은 열심히 연구하여 血管外科學에서 유명해져 세계 유수대학 또는 在職 중인 대학에서 강의하는 기회가 있을 때, 자기는 하버드를 졸업했다고 자기 현 위치에 걸맞게 소개한다고 했다.

우리 외과과장은 하버드 의과대학 외과 腫瘍學 교수로 있다가 온 분인데 HOOVER 대통령의 後孫인데,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하버드 의과대학을 내세우면서 어깨에 힘을 준다. 나도 관록이 좀 있고 또 서로 같은 클럽에서 골프도 치는 사이라 DR HOOVER에게, 세계에서 제일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은 북경대학, 동경대학, 서울대학이라고 설명하고, 동양인의 독특한 엘리트 간판문화 때문에 몇 년 재수를 해서라도 이 대학에 입학하려고 하며, 졸업후 이 간판이 일평생 출세에 관계되는데 일본수상의 대부분이 동경대학 출신인 것도 이때문이라고 설명하고 물론 나도 한국 하버드 출신임을 거듭 강조했다.

나는 시골출신으로 漢學者이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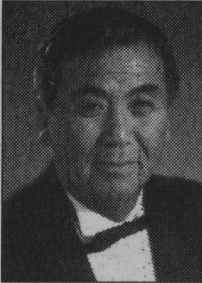
한 알의 밀 알이 썩어서...

정정수 <의대 62년 졸, 허쉬의대 임상교수>

조부님이 독립운동으로 옥살이를 하시고, 우리 독립운동사에 한 줄 반의 記錄을 남긴 채 家産蕩盡, 아버님은 國卒의 학력으로 만주 일본으로 전전하시다 시골 商人으로 우리를 교육시키셨다. 釜山高等學校 2학년 전제수석에 우뚝해서 서울법대, 고등고시, 판사검사의 꿈을 그리고 있다가, 갑자기 수술을 받고 만성병석에 누우니 하얀 까운을 입은 의사가 천사처럼 보여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서울의과대학으로 들어갔다. 심한 財政, 健康, 時間 결핍증에 시달리던 의과대학 생활은 친구 술 한 잔 대접은 엄두도 못 내고 가끔 얻어먹는 자리 분위기도 못 맞추는 "쪼다(NERD)" 생활이었다.

다행히도 상급반 때 형님이 농업부로 자리를 옮겨, 형님 형수님의 극진한 후원으로 건강과 시간을 되찾아 열심히 한 결과 뜻밖에도 당시 문교부에서 처음으로 施行한 全國 學士國家考試와 醫師國家考試에 모두 首席으로 합격한 우리 반의 秀才 呂天基군의 뒷줄에서서 醫師考試에 2등을 하고 대학병원 인턴 서열에도 뽑혔다.

그러나 도서관에서 박태진씨의



인턴 취소와 空軍 志願 소식은 나의 운명도 바꾸었다. 나도 인턴을 취소하고, 海軍 軍醫官 단기 지원의 용감한 결단을 내렸다. 그 당시 우리 선배님들 중에 AMA(ECFMG)시험에 오직 한 명이 임시로

합격했을 때의 일이라 대학병원 인턴 취소하는 것은 큰 모험이라고 생각했다.

같이 해군을 지원한 부산고등 동창인 구정을씨가 당시 고려의대 3년생인 현재 내 처를 소개시켜주었다. 아마 나에 대해 지나친 과찬을 미리 준 모양이었다.

내 처는 高級 公職者의 외딸이었다. 전혀 환경이 다른 처가택에서 나를 쉽게 받아들인 것도 내가 한국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다는 덕을 본 것 같다. 그리고 내 처는 내가 해군에 복무하는 동안 먼저 미국에 와서 인턴을 하였는데, 약삭빠르게 군대도 안 마치고 빠져 나온 세브란스 출신 총각의사들의 유혹을 물리치고 나를 기다려 준 주었다. 이것도 내가 한국 하버드 출신임이 크게 도움이 되었으리라 자위해본다. 지금 생각하면 쥐꼬리만한 월급이지만 둘이서 DOLLAR를 버니 부자가 된 것 같아,

그때부터 동기생 모임에는 기를 쓰고 찾아다니다 보니 개근상을 탄 유일한 동기가 되었고, 쪼다 인상을 벗으려고 肉談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갈 때마다 더 좋은 잠신한 거리를 제공해 주려니 하고 기대하니, 그 名譽를 유지하려고 더욱더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어느 결혼식 대절 버스 안에서 동창회에서 전혀 안면이 없는 선배님을 만났는데, 세 아드님 모두를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을 졸업시켰다고 자랑스러워 하셨다. 작년 라스베가스 재미 한인사회 모임에 '58년도 졸업 선배님들 테이블에 앉았는데 그 중 한 분은 동창회에서 전혀 범지 못한 분인데, 자제 분들을 모두 하버드 스탠포드를 졸업시키고 미국사회에 엘리트로서 활약하고 있다고 자랑스러워 하셨다. 나는 다른 학교 신문들도 많이 보는데, 우리 서울대 신문과 의대 시계탑 신문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다. 너무도 심도 있고 깊이 있는 내용의 글들과 너무나 多才 多能한 동문들의 경험으로 엮어진 글들은 나는 萬事를 제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 다만 나를 슬프게 하는 것은 그 많은 가까운 지면을 신문 값을 낸 동문명단 동창회비를 낸 동문의 명단들로 차지하는 것이다. 동창들의 기부금으로써 어느 가난한 국가에 신보다 많은 하버드 장학연구재단 기금(ENDOWMENT FUND)을 생각하면, \$50의 구독료 낸 사랑을 공개해야만 그나마 신문을 발행 유지할 수 있는 한국 하버드 졸업생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우리 민족의 독특한 학벌의식 때문에 우리는 모교의 後光을 미국 하버드보다 더 陰으로 陽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 모른다. 오늘의 우리와 우리자제들이 이렇게 훌륭히 된 데는 우리 모교의 밑거름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나는 분에 넘치게도 재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총동창회장직을 맡게 된다. 나는 많은 장학재단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모두 은퇴하고 사라져 가는 우리 재미 의과대학 동창회이지만 우리 서울대동창들의 우수한 후손들과 은퇴한 우리 동기들이 모교에 학식, 기술, 재정지원을 원활히 중개조정 알선해주는 어떤 기구를 동창회에서 Website를 통해 공고할 수 있는 모금운동을 제의해 보고 싶다.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한 관대와 사랑은 불완전한 것이요. 이것이 가까운 이웃사회로 나누어 줄 때 진정한 완전한 사랑으로 완성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했는가?!

그 동안 앞과 내 가정만 쳐다보고 열심히 살아서 자제들을 훌륭히 키우고 여생을 넉넉히 보장받으신 선배님들은 이제는 자기를 키워준 한국 하버드에도 눈을 돌려서 우리 자제들의 代까지도 자랑스럽게 자기 부모님을 키워주신 대학과 조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한알의 밀알이 썩어서....."처럼 우리 우수한 한국 하버드 대학 졸업생들이 썩어서 나오는 새싹들은 너무나 값진 열매임을 이미 속속 드러내고 있지 않나!

한반도 평화, 민족 화해엔 대북 포용정책 밖에 없다

鄭泰雄 <사회대 90년 졸, 한국경제신문 정치부기자>



지난 5월 스웨덴의 예란 페르손총리 및 유럽연합(EU) 대표단과 함께 평양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서방 국가 지도자로서는 첫 방문인 때문인지 북측은 손넉대접에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었고 대표단은 거리의 시민들과도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밤에는 북측의 안내를 받아 양각도 국제호텔 지하층에 마련된 카지노장을 둘러봤다. 객장은 비교적 한산했고 종업원이나 손님이 대부분 중국인이라는 점이 두드러져 보였지만 현실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북측의 도시에 자본주의의 가장 퇴폐적인 상징인 도박장이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만 했다.

카지노의 옆에는 이집트의 파라오 장식을 한 나이트클럽이 있

었고 무대에서는 서양 남녀가 겨안은 체 춤을 추고 있었다. 숙소로 돌아갈 시간이 되어, 전력사정으로 불빛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캄캄한 평양 밤거리로 나서기 전까지는 그곳이 서양의 한 휴양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마저 들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광복절 「민족통일대축전」 행사를 취재하기 위해 또다시 찾은 평양에선 그 같은 자유로움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양각도 국제호텔에서 만찬행사가 열리기는 했지만 북측 안내원들은 남측 인사들이 나이트클럽과 카지노가 있는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지난번엔 들어가게 해주지 않았느냐!」고 항의해 보기도 했지만 북측관계자들

의 태도는 완강했다. 학생소년공전이나 인민대학습당에서 「준비된」 평양시민들은 만날 수 있었지만 거리의 일반시민들과의 접촉을 북측은 상당히 꺼렸다. 지난 5월에는 말이 통하지 않는 서양 대표단들과 시민들의 접촉인자라 자유로이 나뉘었지만 이번엔 서로간에 실상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실제로 이번 8.15 행사에 참가한 남측 대표단 3백 37명이 일주일간 보여준 형태는 평양시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알록달록한 반바지와 샌들 차림으로 거리로 나선 일부

남성 참가자들의 「과격」적인 의사이나 공공연한 장소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우는 일부 여성 참가자들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매우 생경한 듯했다. 일부 남측 참가자들은 누구에게 알리지도 않고 새벽같이 숙소인 고려호텔 밖으로 조깅하러 나가거나 행사도중 건물 밖으로 빠져 나와 뒷골목을 둘러보다 북측 안내성원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자본가의 착취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남측 노동자 대표들이 몇 백만원 짜리 무비카메라를 들고 다니거나 공훈예술가들의 작품을 사기 위해 수백달러를 쓰는 모습은 남북간 경제력 격차를 드러내기에 충분해 보였다. 북측 노동자들의 한달 평균임금이 80-90 달러, 경수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110달러인 점을 감안하며 남측 노동자들의 두둑한(?) 지갑은 북의 일반시민들에게 자본주의의 다른 면모를 심감케 했으리라.

물론 8.15 방북단 가운데 일부는 「만경대 방명록 파문」을 일

으키거나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칭송하는 듯한 「돌출행동」을 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렇지만 반대의미의 돌출행동 또한 적지 않았다. 예컨대 남측의 국립묘지에 해당되는 애국열사릉에서 술에 취한 모 인사가 오줌을 누거나 해설강사에게 탑을 주려고 하는 등 북측 인사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한 경우가 많았다.

이런저런 돌출행동이 가져온 부작용도 적지 않지만 그보다는 남북교류에 의한 성과가 더 크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체제와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 동질감을 회복하고 상호 신뢰를 쌓아갈 수 있었고 동시에 북측에는 개혁과 개방이 시급하다는 점을 자각하게끔 지적해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통일이라는 민족의 지상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어려움을 겪더라도 남북간 교류를 꾸준히 확대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재확인 시켜준 것이다.

<9면에 계속>

多民族社會 속의 美國 하버드大學의 苦悶

White Guilt = Black Power ?

<편집자 註> 북한민족사회인 美合衆國에서 탁월한 고등교육기관을 운영하는 데는 많은 문제가 제기된다. 아래 글은 근작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도된 (1월 7일, 8일, 10일 및 11일) 신임 하버드대학의 젊은 총장 Lawrence Summers(47세, 클린턴 행정부의 연방 재무장관을 역임하였고, 親家와 外家쪽에 노벨상 수상자를 가진 집안에서 자라나 일찍이 유망한 하버드의 경제학자로 평가되었음)와, 최근에 Rap music CD를 낸 바 있는 하버드대학의 Afro-American Dept.의 원로 교수이자 The Afro-American 사회의 영향력 있는 名士인 Professor Cornell West 간에 일어난 논쟁 — 중신교수의 학문적 연구와 사회활동의 평가문제 — 를 保守的인 한 논객의 눈을 통하여 본다. 편집자는 한국의 최고고등교육기관인 母校 서울대학교에도 이와 같이 잠재한 쟁점인 終身 교수제와 학문연구의 자유와 그 업적평가 문제는 한국교육개혁에서도 다루어야 할 과제로 보고 이 글을 여기에 소개하며 이 보수적인 논객의 관점과, 모교의 개혁방안에 관한 여러 동문들의 날카로운是非의 論考를 기다린다. 참고로 WSJ 紙는 1/7/02 A Harvard Education이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 문제를 논하였고, 1/8/02 는 여기에 실린 SHELBY STEELE의 "White Guilt = Black Power"라는 글을 실었고, 이어 1/10/02는 Albert R. Hunt는 "The Phony Protest ... and Leaders"라는 글에서 Afro-American 민권운동가들의 이 논쟁에 대한 개입을 비판하였고, 동일 자에서 William Julius Wilson 하버드대 교수(사회학, 전 시카고 대학교수)의 이에 대한 논박을 보도한 바 있다. 이 글의 필자 Mr. Steele은 a research fellow at the Hoover Institution이며 "A Dream Deferred: The Second Betrayal of Black Freedom in America" (Harper-Collins, 1998)의 저자이다.

There should be many more imbroglios like the one currently playing out at Harvard University, enough for America to finally understand that white guilt is exactly the same thing as black power. But it is testament to the daunting power of white guilt that confrontations like this one happen so rarely.

Harvard's new president, Lawrence Summers, is reported to have rebuked arguably the most famous professor in the university's well known, if undistinguished, Afro-American Studies Department—Cornel West. Even on their face, the reported charges behind this rebuke seem screamingly true—that Mr. West is an academic lightweight, that his service to Al Sharpton's presidential campaign and his recording of a rap CD embarrass his professorship, and that his uncritical grading practices have contributed to Harvard's serious grade inflation problem.

Indignation
With this sensible rebuke, there has begun an elaborate, if predictable, choreography of black indignation and white guilt. Mr. West took great umbrage at Mr. Summers' charges, as did Henry Louis

Gates, the chairman of the Afro-Am triumvirate, Messrs. West, Gates and Appiah, are said to have huffed off to Princeton to scare up the offers that would show Mr. Summers just how black power works in a world of white guilt.

All reports are that Princeton is better versed in the interplay of guilt and power than Mr. Summers, and might happily offer Harvard's "stars" a New Jersey residence. Princeton's president has referred to the rapping professor as "eminent."

Meanwhile, back on Harvard Square, Mr. Summers has been made to feel the heat of black power.

Blacks across the campus have accused him of insufficient support for affirmative action. And then, moving all this to full-scale cultural warfare, came two men who practice a virtual statecraft of guilt manipulation that leaves whites no option beyond honorable capitulation—Jesse Jackson and Al Sharpton.

From his harvard bunker, Mr. Summers was no longer peering at just the gangly Prof. West in his trademark three piece suit and 1974 Afro. He was looking at men who threatened to mark out

Harvard in the culture as the racist Ivy—a deadly reputation in the academic world. In rebuking a well-known black professor, Mr. Summers had also rejected white guilt as a guide to administrative affairs. Good move. But it overlooked the ugly fact that institutions today lose their mainstream legitimacy unless white guilt defines their approach to racial matters. It also overlooked the fact that white guilt is black power and that the reprimand of a single black professor would call out the biggest guns in the black establishment.

White guilt is best understood as a vacuum of moral authority. Whites live with this vacuum despite the fact that they may not feel a trace of personal guilt over past oppression of blacks. Whites simply come to a place with blacks where they feel no authority to speak or judge and where they sense a great risk of being seen as racist. It is a simple thing, this lack of authority, but it has changed everything.

One terrible feature is that it means whites lack the authority to say what they see when looking at blacks and black problems. Political

correctness is what whites have the authority to say about blacks, no matter what they see. It is a language of severely limited authority, of euphemisms that steer whites around associations with racism. The black power brokers have told Mr. Summers that he does not have authority to say what he sees when he looks at Mr. West. He must put clothes on the naked emperor, or shame himself and his institution. After all, Princeton's president dressed the often incomprehensible Mr. West in a suit of eminence.

The muteness that white guilt imposes on whites undergirds black power. It lets blacks live inside the silence of whites, and have our weaknesses be unutterable by whites even as they are plainly visible. Messrs. Jackson and Sharpton are enforcers of white silence. And when whites are silent, black mediocrity is no deterrent to black advancement. So it is not suprising that the Jacksons, Sharptons, Wests, Gateses et al. demanded that Mr. Summers make a strong endorsement of affirmative action—which formalizes white silence on black mediocrity into policy. In this realm of guilt and power, a white man's endorsement of affirmative action is nothing less than a vow of silence.

What is admirable in all this is that Mr. Summers seems to have actually wanted excellence from Mr. West. His rebuke for failing to deliver excellence was an act of social responsibility. It was also an opportunity for Mr. West and the Afro-Am department to move from celebrity academia to serious achievement. How many of us ever get near our full potential with out at least the threat of rebuke?

But Mr. Summers does not have the authority over his Afro-Am department that he has over the rest of Harvard. And his story is important because it shows how severely white guilt limits the authority of institutions to enforce their own best stan-

ards uniformly. Everywhere that minorities press institutions today as groups, there is an erosion of excellence. The reason for this is that white guilt allows institutions to respond only with deference—deferring to the greater moral authority of minorities by lowering standards, and remaining mute to minority mediocrity, to save the institution from the racist label.

So whites have made it socially virtuous to defer and stand aside as institutions erode. The public schools are all but devastated, universities are stunted by ideology, corporations are more unctuous than churches, the media are more unctuous yet, and American politicians—of left and right—speak in barren clichés about all of this when they speak at all.

The value system that controls our institutions is an adaptation to white guilt. This system will make Mr. Summers the bad guy a thousand times before it ever holds Mr. West accountable. It isn't Mr. Jackson and Mr. Sharpton who are breaking Harvard's president; it is his own faculty and administrators who are standing aside. They think he made an "ego" mistake, a faux pas. It doesn't matter that he was right. University presidents who correctly read the tea leaves (the limits of white authority) know that deference is your only play with minorities.

And Mr. Summers, sad to say, has proven himself a quick study. He gave Mr. Jackson the endorsement of affirmative action that he demanded, and he "mended fences" in a meeting with Mr. West—two powerful endorsements of black mediocrity, two compromises of institutional integrity. And now that his capitulation has spilled blood into the water, Harvard's Latino faculty has rushed to demand their own "full-fledged Latino studies center."

Double Message
This is how the vacuum in white authority becomes cancerous.

<9면에 계속>

'미국적 愛國心'의 두 얼굴

張東萬 <문리대 61년 졸>

다인종 다민족 사회인 미국 사람들에게 우리와 같은 '나라를 위하여' 또는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라는 슬로건이 별 호소력을 갖지 못한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 또는 자기 조상들이 태어난 땅이 제 각기 다르고, 시간적 차이만 있을 뿐 나와 나 모두가 다른 나라에서 이 땅에 온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리해서 미국 일반 사람들 대부분에게 '우리 나라' 또는 '미국인'—엄격한 의미에서 영어엔 '국민'이라는 말이 없다—이라는 국가개념이나 애국정신이 거의 없어 보인다. 있다 해도 극소수이거나 아주 희박하다.

일상 생활에서 사람들이 흔히 'my country' 라고 말할 때, 그 'country' 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지칭한다기 보다 자기(또는 조상)가 태어난 출생국(고국)을 일컫기가 일쑤다.

그런 사람들이 9.11 사태를 계기로 더 할 수 없이 '애국적'인 모습을 보인다.

새삼 성조기에 대해 경건한 경례를 하고 'God Bless America'를 일제히 합창한다. 그 각양 각색의 인종 민족들을 이렇게 하나의 '미국 사람들'로 묶는 그 원동력이 무엇일 것인가?

물론 테러라는 외부 침략에 대한 분노와 보복 심리 그리고 이에



대한 자기 방어 심리의 발동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이것이 '미국적 애국심'의 본질의 전부일까?

인간의 최고 가치는 생명의 존엄과 인권, 그리고 평화와 정의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이 모두를 한껏 누리면서 살고 있다. 백인이건 흑인이건, 유럽계이건 아시아계이건, 인종 민족의 相異性을 불문하고 그 구성원(국민) 전체에게 이를 미국 만치 보장하는

나라가 또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리해서 미국 사람들은 너나 모두가 이를 어디엔가 항상 감사한다. 이래서 9.11 같은 때 수많은 동포들이 사회보장 수혜금까지도 아낌없이 성금으로 내놓지 않았던가?

오랜 동안 이 같은 환경에서 살아 온 미국 사람들은 이를 그들의 천부적인 권리로 생각한다. 그리고 인종과 민족의 개념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가치로 여긴다. 그리해서 자신들의 인권과 자유가 침해당할 때, 생명의 존엄과 평화 위협받을 때, 그 요인이 대내적이건 대외적이건 그들은 분연히 일어나 이에 맞선다.

9.11 사태를 계기로 그들의 이 같은 천부적인 권리와 절대적인 가치를 수호 유지하려는 의지와 신념이 한껏 표출되고 있는데, 이 '미국적 애국심'은 지금 미국이 수행하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을 압도적으로 지지 성원한다. 자기

들에게 천부적인 권리인 인권 자유 그리고 절대 가치인 평화와 생명의 존엄이 미국 땅 밖 다른 나라에선 어떻게 짓밟히건, 어떠한 희생을 치르건, 눈을 감거나 아예 눈을 돌린다.

애국심의 속성이 지니는 한계 즉 집단이기주의 한 모습인데, 이 '미국적 애국심'이 미국의 문화 그리고 미국민의 의식 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는 '총성된 반대(royal opposition)'로 한 단계 승화, 전 인류를 아우르는 범 인류애로 발전될 날이 올 것인가?

한편 우리 나라를 생각해 본다. 애국심 운운은 "집권자들이 씨알들을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는 각성이 되어 있는 이제, 빈부 계층 지방색 등을 뛰어넘어 전민중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어떤 절대적인 가치 이념이 우리에게도 있는가? 있다면 그 것이 무엇일까? 하고—

<8면에서 계속>

Deference makes so much administrative sense that it becomes procedural, an utterly neutral business practice. Institutions send a double message to blacks: develop excellence, but it's OK if you only live off the largesse of white guilt. The mediocrity of Mr. West is visible everywhere across the landscape of black academia, where so much deference corrupts black talent. Nearly every campus has at least one black professor whose special talent is the racial indignation that white guilt loves to reward. Yet in a field like jazz, where white guilt does not intercede, black excellence is the norm.

But deference will never redeem white authority. There is something that will. When practiced with disciplin

line, a commitment to fairness for the individual delivers a moral authority that neutralizes white guilt. Maybe this is what Mr. Summers was after when he reprimanded Mr. West, along with other white professors. But to get moral authority from this exercise in fairness, he had to stand his ground. Then all those around him, so practiced in deference, might have seen the road out of white guilt.

Everyone would win—Harvard, Mr. Summers, and especially Cornel West. Messrs. Jackson and Sharp-ton would have been exposed as the paper tigers they are. But as it now stands, Mr. Summers himself should be rebuked for skirting the moderate act of courage that would have given all this a chance.

<7면 한반도에서 계속>

북측이 체제불안을 염려해 단단히 채워둔 빗장을 열기 위해 남측이 일정한 경제적 부담을 지더라도 말이다. 인도적지원 외에 일정 정도의 유인을 제공하는 것은 어쩌면 통일이 늦어지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날 통일비용 부담을 미리 줄이는 방법이다.

유감스럽게도 얼마 전 남북장관급회담이 결렬되면서 교류협력

능성이 높아졌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북측에 적대적 감정을 갖고 있는 국내 보수파들의 반발과 북측 준비 강경파의 대화반대 목소리가 '정책연합'을 이룬 것도 그 중 한 이유가 되고 있다는 점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속도와 기술적인 방법에 있어서 시각차는 있겠지만 한반도 평화 정착과 민족화해협력 위해서는 북을 겨냥한 대북포용정책 밖에 없다는 점은 모두가 동의하는 만큼 지속적인 남북교류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김민자 <사대 62년 졸>

나는 살아가면서 사랑하던 사람들이 하나, 둘 이세상을 떠날때 마음의 공허와 정신적 불안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가끔 채워질 수 없는 공허감과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곤 했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볼때 참으로 나는 이기주의자였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남을 서미지도 못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살면서 넘어지고 시련속에 고민하며 절망하고 있을때 제가 위험에 처해 있을때 하나님께서 그 넓고 자



밀리의 영화 晩鐘

비로운 팔로 나를 안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고통과 절망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은총이 없었다는 나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은 나에게 새생명을 주셨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 모든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는 존재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는 언제나 괴로움만 마주치게 됩니다. 시편 103.3,4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

수 있는 기쁨을 주십니다. 흑암에 허덕이던 인류를 위해 빛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어둠과 죽음 몰아내시고 기쁨과 소망 새로운 감격속에서 살게 하시며 그 크신 사랑을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 삶의 기쁨과 은총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캄캄한 밤길에 나의 빛이 되어주셨고 심연에 떨어져 있던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시편 42.5 "내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지로다"

나는 인생의 밤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과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오랫동안 애기를 낳지 못했던 며느리도 오랜기도로 아이를 임신 결혼 5년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하시고 어둠을 빛으로 또 위험에서 건져 주시며 영원한 기쁨, 영생 영원한 축복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무한한 긍휼과 사랑을 감사하며 오늘도 나는 성경 말씀, 찬송,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수 있는 기쁨을 주십니다. 흑암에 허덕이던 인류를 위해 빛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어둠과 죽음 몰아내시고 기쁨과 소망 새로운 감격속에서 살게 하시며 그 크신 사랑을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 삶의 기쁨과 은총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캄캄한 밤길에 나의 빛이 되어주셨고 심연에 떨어져 있던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시편 42.5 "내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지로다"

나는 인생의 밤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과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오랫동안 애기를 낳지 못했던 며느리도 오랜기도로 아이를 임신 결혼 5년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하시고 어둠을 빛으로 또 위험에서 건져 주시며 영원한 기쁨, 영생 영원한 축복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무한한 긍휼과 사랑을 감사하며 오늘도 나는 성경 말씀, 찬송,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동물 臟器移植(Xenotransplant)과 문제점

김 일 훈 <의대 51년 입>

동물장기이식의 획기적인 연구 결과 앞으로 동물장기가 인체장기 이식을 대체할 날이 멀지 않으리 라는 희망적인 뉴스를 보도한 뉴욕타임지 기사(2002년 1월 4일)가 세인의 주목을 끌었다.

필자는 본지의 전번 12월호에 "장기이식 장려법과 윤리논쟁"을 실은바 있으며, 최근 장기이식문제에 관련된 글 4편을 한국의 의사 시보에 게재한바 있다.

이 글들 중에서 이번 신년 초의 특종기사라 할 동물장기이식과 그에 수반된 여러 문제를 다음과 같이 논해본다.

I) 동물장기이식과 면역거부

전번 언급한 장기이식증거불이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장기부족해결의 차선책으로 동물장기이식을 이용해야 한다는 전문가도 많다.

하버드대학의 Dr. D. Cooper 와, 근래 '인간배아복제'로 유명한 ACT회사의 의학분야 책임자 Dr. R. Lanza 가 집필한 동물이 식의 책 <Xeno: The Promise of Transplanting Animal Organs into Humans>이 있으며, 그들은 '사람에게 동물장기이식이야말로 21세기의 첨단의학이 될 것이다'고 내다보고 있다.

사실이지 현재 논의되고있는 장기이식플랜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한, 또는 조속한 시일내에 줄기세포 연구발전이 장기이식을 대체하지 않는 한, 미국에서는 장기이식에 동물장기를 이용하는 길만이 남아있다고 하겠다.

최신약품과 면역요법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동물장기이식의 가장 문제점인 면역거부반응(Rejection)을 극복해야하는 것이 큰 걸림돌이 되어왔다.

1963년 7명의 환자에게 동물(baboon)신장이식이 시행되었으며, 이들은 거부반응 나기까지 60일간만 면역요법으로 신장기능을 유지했었다.

1984년 Dr. Bailey는 유아에게 동물(baboon)신장이식을 성공했으나 20일 뒤에 거부반응으로 죽었다(Baby Fae).

그 후 10년간 동물이식이 중단된 상태였으며, 1992년부터 1년간에 인체에 동물의 간을 이식하는 실적이 3건 있었다.

이식학계의 세계적 권위자인 피츠버그대학 장기이식책임자인 중국계 의사 Dr. Fung은 인체장기 기증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현 상

황에서 장기부족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동물장기이식을 강조 해왔다.

그러나 여기서는 거부반응(Rejection)해결이 선결문제가 된다. 그 해결책으로 이식에 필요한 동물을 유전적으로 사람에게 가깝게 조작함으로써, 거부반응을 줄이게 하는 방법이 연구되어왔다.

미국과학잡지 Science의 금년(2002년) 1월호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사람과 침팬지의 DNA차이는 정확히 1.25%로 나타났으며, 인간에서의 DNA 개인차는 약 0.1%로 알려졌다.

따라서 침팬지(동물)와 인간의 DNA 차이를 1.25% 이하로 축소 시킴으로서, 다시 말하자면 '동물의 인간화'로 거부반응을 극소화 해보겠다는 연구가 진행 중이었다.

동물가운데에서 가장 사육하기 쉬운 돼지가 주로 장기이식연구에 사용되었다.

우리는 어떤 인간의 모습이나 욕심을 आयु할 때 '돼지 같은 사람'이라는 말을 흔히 쓰는데 사실 인족 동물가운데서도 돼지가 그 장기와 피부조직이 인간과 가장 닮은 동물이며, 그래서 생명공학 학자들은 돼지를 상대로 장기이식을 연구해왔던 것이다.

심장수술에서 심장판막과, 그리고 당뇨병치료로 췌장세포(islet-cell)이식은 돼지의 것을 장기간 사용하고 있다.

새해소식-면역거부 해결가능성

2002년 1월 4일 뉴욕타임지 보도에 의하면 미국의 미주리대학 연구진이 Immerge Bio Therapeutics 회사와 협동으로 인체면역거부 유전자를 제거한 돼지를 복제 생산하는데 성공했으며, 이 결과 앞으로 동물장기이식의 가능성이 크게 기대된다고 했다.

그리고 같은 날, 복제양 '돌리'를 만들었던 영국의 PPL Therapeutic 회사에서도 면역거부유전자를 제거한 5마리의 복제 돼지를 생산했다고 발표했다.

그들은 돼지태아에서 섬유아세포를 추출해 핵에서 이 유전자를 제거한 뒤, 이 세포를 핵을 제거한 난자와 결합시켜 배아를 만들어 이를 대리모돼지에 옮겨 복제돼지를 탄생시킨 것이다.

제거된 유전자는 장기 이식시 초급성 거부반응(Accelerated Rejection)과 관련된 GATA(a-1,3-galactosyl transferase)

유전자다. 일반 돼지의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하면 인간 면역체계의 항체가 돼지 장기 세포의 표면에 있는 당 성분(α -1,3-galactose)과 결합하면서 강력한 거부반응을 일으키는데, 이번에 태어난 복제 돼지들은 이 당 성분을 만드는 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장기를 떼어내 인체에 이식해도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원리다.

하지만 이번 연구성공으로 이종간 장기이식의 거부반응이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MGH 병원의 장기이식생체연구소장 Sachs 교수는 이 복제돼지를 평가하기를 "이번 연구는 인간이 동물 장기를 이식 받을 수 있는 첫 발걸음을 내디딘데 의미가 있으나, 성공단계는 아직 멀었다"고 말했다.

II) 전문가들은 우선 인체면역거부 유전자를 제거한 복제돼지장기의 완전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 유전자를 제거했을 경우 장기의 고유한 기능이 무력화되거나 손상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고 있다.

2. 장기이식 시 거부 반응이 초급성 반응 외에도 급성 및 만성 거부반응(acute and delayed rejection)과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거부반응 유전자가 있을 가능성이 많을 것이고, 이런 유전자를 연구하고 제거하는 기술이 앞으로 필요하다.

인간의 면역체계는 엄청나게 복잡한 것이어서 생체 거부반응은 GATA 유전자 이외에도 다른 많은 유전자들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3. 면역거부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동물장기의 감염이다(다음에 계속).

4. 앞으로 연구를 통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도 동물장기이식을 실천에 옮기는 단계에서 큰 문제가 남아있다.

인체장기이식과 동물장기이식의 결과를 서로비교해서 과연 개량된 동물장기이식 후의 경과가 인간장기이식의 경우와 대등한가를 관찰하는 기나긴 임상연구가 필수조건이다.

여기서 만일 임상경과가 돼지의 장기이식이 인체보다 훨씬 못하다면, 동물장기이식의 가치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III) 동물장기와 감염문제

동물장기이식에서 거부반응 다 음으로 동물장기에 의한 미생물(세균, 바이러스, 곰팡이)감염문제가 크게 논란되고 있다.

10년 전 당뇨병환자에게 돼지의 췌장세포(islet cell)이식을 했어도 염려했던 retrovirus감염이 없었던 사실로 보아 동물장기에서 기인한 미생물감염의 위험도는 적다고 보는 낙관론도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감염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PERVs(porcine endogenous retroviruses)는 모든 돼지가 지닌 고유의 바이러스로 돼지에게는 해가 없지만, 돼지 장기를 인간에게 이식할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복제돼지의 장기가 동물에게는 안전하지만 사람에게 치명적인 에이즈(AIDS)를 일으키는 바이러스(HIV)나 에볼라 바이러스 등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동물세포에 잠복해있는 바이러스가 인체의 바이러스와 결합해 변이를 일으킬 경우 이에 대항할 면역체계가 없어 인류의 커다란 재앙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돼지는 바이러스의 온상이며 어떤 바이러스는 몇 년간 잠복 후에 발병하므로, 이런 점으로 해서 동물장기는 '시한폭탄과 같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복제돼지를 만든 미주리대학의 Prather 교수는 말하기를 "장기감염은 인체에 면역거부가 전혀 없는 돼지장기를 완성하고 나서 따질 문제며, 그때까지는 다른 분야를 거론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 말은 동물장기이식문제가 해결된다해도 먼 훗날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98년 동물장기이식을 주관하는 정부기관(Xenotransplantation Advisory Committee)이 형성되어, 여기서 민간대표를 비롯한 각분야 전문가들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동물장기이식의 안전성을 심사하고 있다.

IV) 동물장기이식 반대와 제3의 윤리논쟁

1960-70년대 인체장기이식 초기에도 윤리논쟁이 있었으나, 하물며 동물장기이식은 윤리문제가 되고도 남을 것이다.

1984년 Baby Fae의 경우에도 동물장기이식에 대한 윤리성이 논란되었고, 이때 Baby Fae의 부모는 '이 이식연구는 당신의 유아에게 어느 기간동안 생존이 가능하리라는 희망을 주는 실험이다'

라는 내용에 서명했었다.

동물장기이식에 대한 고무적인 실험결과와 크나큰 기대에도 불구하고, 동물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일은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라 하며 이를 혐오하는 사람들도 있다.

장기이식을 성 매매에 비유할 수 있는 부도덕한 행위라면, 동물장기이식은 수간(동물과 성교)에 비유할만한 신이 격노할 행위라고 평하는 극단론자도 있다.

동물장기이식에 드는 천문학적 비용 때문에 반대하는 여론도 일고 있다.

모든 장기이식수요자를 수용한다고 가정하면, 동물장기이식에 소요되는 연구비, 시술비, 면역요법과 사후치료비 등에 엄청난 금액을 퍼부어도 부족하다는 것이 반대하는 주 이유다.

'몇 갑절 유익한 다른 보건사업에 쓸 수 있는 천문학적금액을 왜 10만 명도 안되는 만성환자치료에 사용해야하냐?'라는 반론이다.

가령 예방의료와 예방교육에 이 금액을 전환한다면 몇 십배 많은 인명을 살릴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이론은 이수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수긍이 가며, 더구나 다음의 숫자풀이를 보고 사람에게 따라서는 '백 번 옳은 말씀'이라고도 할 것이다.

인체장기이식 비용은 신장이식이 11만6천불이고, 간이식에 30만 불이 소요된다. 그리고 이식 후의 5년간 치료비는 간이식의 경우 40만 불, 심장 또는 폐장이식 후는 30만 불이 든다.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 장기이식비용은 연간 29억 불 소요되고 있다.

그런데 장차 인체에 동물장기이식이 활성화되어 모든 대기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되면, 총 비용은 연간 최소 203억불이 될 것이라 추정되니 지금보다 7배나 많은 액수이다.

이 금액은 주먹구구로 한국의 2001년도 총예산의 1/3에 가깝다. (1.3조원이 약10억불 임. 한국 2001년도 예산= 94조원 = 730억 불).

암과 심장혈관질환등 대부분의 질환은 생활습성으로 유발되며 예방이 가능하므로, 위의 방대한 예산을 전국민의 예방의학에 투입한다면 몇백만 명을 질병에서 구제할 수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의료비가 질병치료에만 집중된 나머지, 현재 예방에 사용되는 금액은 치료비의 0.7% 밖에 되지 않는다는 불평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생명을 다루는 의료분야에서도, 보다 생산적이고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해야한다는 제3의 윤리논쟁이라고도 하겠다.

<11면에 계속>

[기행문]

아름다운 금강산

백 순 <법대 1958년 입, 미 연방노동성선임연구원 >



공중곡예를 펼치는 모습은 너무나 정형적이고 기술적이어서, 또한 자유스러움과 여유가 없어 보여서, 이것이 사회주의사회의 문화적 특성이 아니겠는가 하는 느낌을 갖게 하였다.

세 번째로, 만났다고 하기 보다는 멀리서 바라 보았던 북한동포는 버스를 타고 가면서 철조망사이로 관망하게 되었던 온정리마을의 주민들이었다. 버스 십여대가 북한 안내차량의 인도로 해금강을 향하여 새로 건립된 관광전용(?) 철조망길을 먼지를 뽕기며 달리는 도로변에 북한주민들이 높게 쌓은 곡식단과 배추더미에 앉아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가지 지금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 관경은 북한 주민들이 버스창밖으로 손흔드는 우리들을 대하면서 곡식단과 배추더미뒤로 가끔 손을 흔드는 경우도 있지만 머리를 땅에 대고 숨는 것이었다. 50년만에 남한동포와 만나는 반가움이 너무나 커서 부끄러워 외면을 하는 것일까? 그들의 초라한 것같은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아니 해서인가? 아니면 같은 동포이어서 반갑기는 하지만 자본주의에 물든 남한동포가 보기가 싫은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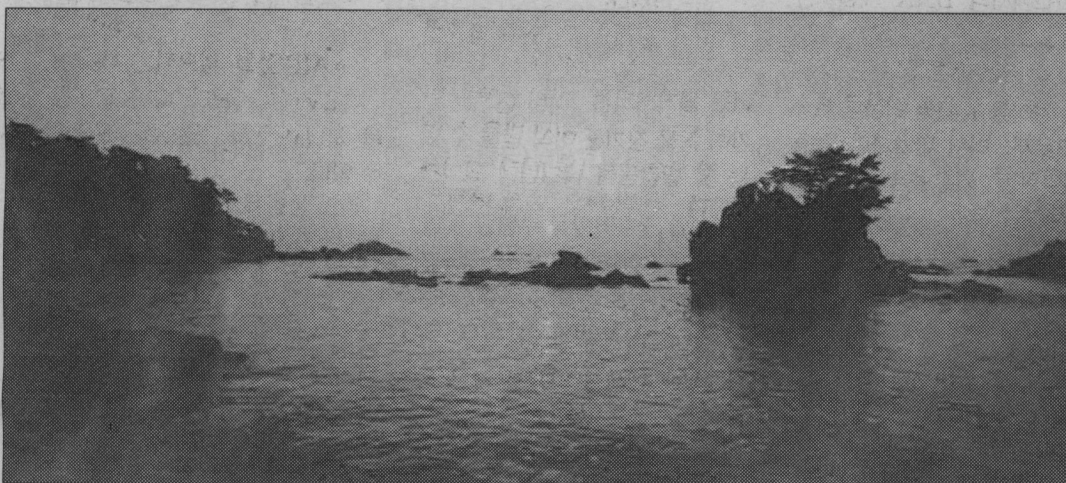
2박3일의 짧은 금강산관광을 마치고 타고 갔던 설봉호로 속초항에 도착한 것은 늦가을의 해가 설악산봉을 서서히 넘어가는 저녁무렵이었다. 민주평통 광주광역시 남구 김규룡회장이 마련해 준 푸진한 해산물 만찬을 말 그대로 숨이 차도록 만끽하고 철책이 들려져 있는 바다가에서 어둠이 깔린 북쪽 금강산 하늘을 바라 보며 기념촬영을 하였다. 높다랗게 떠있는 초생달과 별들이 싸늘한 바다바람에 떨고 있는 모습속에 곡식단과 배추더미뒤에 숨어 손 흔들었던 온정리 마을의 주민들이 자꾸만 자꾸만 떠 올라 혼자 가슴안에 눈물을 머금으며 서울행 버스에 올랐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민족의 명산 금강산을 방문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버스에서 내려 구룡폭포를 향해 오르는 길목에서 북한 여성순찰원(안내원)이 건내는 말이였다. 잔잔한 억양에 당돌한 듯한 북한 사투리가 섞여 이국적인 내음을 풍겨 오히려 매력적이었다. 단풍이 좀 진듯한 늦가을을 날이었지만 흰 구름이 걷는 푸른 하늘에 펼쳐져 진 기암절벽 풍악산의 자태는 내 가슴을 시원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지난 11월 초 2박3일의 일정으로 금강산을 관광하게 된 것은 민주평통 워싱턴협의회(회장 김영진외 26명)와 자매관계를 맺은 한국 광주광역시 남구 협의회(회장 김규룡외 21명)가 공동으로 오랫동안 기획한 여정이였다. 쌀쌀한 듯한 늦가을 아침 우리일행 49명을 포함하여 남한 각지에서 온 600여명의 금강산 관광객들이 설악산 울산봉을 뒤로 하며 설봉호에 산뜻하게 몸을 싣고 동해의 푸른 물을 해쳐 속초항을 떠나 북행길에 올랐다. 안내하는 조장으로부터 주의사항을 듣고 북한땅에 갖고 갈수 없는 휴대전화를 받긴 후 설봉호 맨 윗층 갑판에 올라 갔다. 많은 사람들이 싸늘한 바다바람을 맞으며 멀리 동해안 산악을 바라보는 가운데 군사분계선을 지나간다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우리는 어찌해서 육로로 쉽게 북한땅을 밟지 못하고 멀리 바다

내려와 목욕을 하였다 상팔담의 8개 호수가 내려다 보였다. 얼마를 올라 갔던 길을 내려와 커다란 정자에 앉아 거대한 바위위로 떨어지는 구룡폭포를 보니 세계 최장의 폭포는 아니지만 내 입에서 감탄사가 나오게 하기에 충분했다. 금강산은 내금강, 외금강, 해금강을 모두 합하여 하나의 거대한 돌(바위)산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뾰족뾰족한 기암절벽이며, 작고 큰 폭포며, 맑은 물의 개울이며, 바위틈에 겨우 뿌리내리고 자라는 소나무들이며, 모두가 전통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오랜 역사속에서 같이 익혀 온 문화/풍습을 간직하고 있는 같은 민족끼리 이념인지 무엇인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하여 오랜만에 만나 반가운 인사도 한 마디 서로 건네지 못한다고 하는 현실이 야속하기만 하였다. 이 지구상에서는 이념 때문에, 아니 어떠한 제도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형제자매, 그리고 이웃 친구를 만나 같이 생활을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야기라도 나눌수 없는 일이 반드시 있어서 는 아니되리라 여겨진다. 친척/

지 않은 순수함(?)이 있었지만 그들이 차근차근 벌리어 놓는 사회주의의 우수성과 최후승리에 대한 확신은 매우 논리적(?)이기 까지 하였다. 특히 북한 여성의 모습은 서울의 거리에서 흔히 맞부딪치는 여자들의 진한 현대식 화장기가 없어서 조선여성의 담백하면서 끈



海金剛 전경.

적인 동양화의 한 폭을 장식하고 있는 듯했다.

마지막날 참관한 해금강은 비록 해금강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총석정을 금지구역이라 보지는 못하였지만 바다수면에 돌출한 각양각형의 돌모양과 그 돌에 부딪치는 하얀 파도 물거품으로 인하여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더욱이 해금강 한쪽 바위끝에 올라 멀리 남쪽의 통일전망대를 바라 보면서 분단의 한을 달래 보기도 하였다. 북한이 허락한 3개 금강산 관광지역인 만물상, 구룡폭포, 해금강중 구룡폭포와 해금강을 관람하면서 한가지 아직도 마음 한 가운데 언짢게 남아 있는 절절한 심정은 구룡폭포나 해금강을 보기위해 등산이나 도보를 하기 시작할 지점까지 버스로 운행하게 되는데 버스길양쪽에 높다란 철조망이 쳐 있는 것이였다. 6.25동안중 부산으로 피난갔을 때 미군부대와 미군용차량들이 들라달라하는 길에 높게 설치되었던 철조망이 머리에 떠올라 그리 좋은 감회를 가질 수 없었다. 물론 금강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온정리등 마을의 북한 주민들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막기 위하여 철조망을 드리운 것이라 생각되지만

이웃/친구와 꺼리낌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하여 정치조직이 있고 경제발전이 필요한 것이고 문화의 창달이 요청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둘째, 금번 금강산을 관광하면서 북한동포와 만날 기회가 3번 있었다. 구룡폭포와 해금강을 구경하면서 군데 군데 안내하고 있는 북한 순찰원들과 몇마디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고 다른 관광객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엿들었다. 그들의 모습은 친절했고 세속에 물들

진긴 풍미를 느낄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접했던 북한동포는 교예단 공연에서 였다. 구룡폭포등산을 마치고 넓다란 금강산온천장에서 온천욕을 시원하게 한후 온정리 휴게소에 마련된 공연장에서 평양에서 온 교예단(써거스단)의 공연을 관람하였다. 그 교예단의 곡예가 소개한대로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듯했고 관람하는 모든 사람들이 감탄의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사회하는 북한여성동무의 역량과 높은 곳에 누어 공을 굴리며

<10면에서 계속>

결론

이상과 같이 동물장기이식반대론도 만만치가 않다. 그러나 인체장기이식 부족현상을 해결하는 현실적 방법으로 AMA서 추진하는 '장기이식증지불 플랜'과 유럽형의 반(半)강제적이라 할 장기이식제도(Presumed-consent system)외에도, 새로운 동물장기이식이 금년 들어 각광을 받게되었음도 특기할 일이다.

이 글을 집필하면서 필자는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에서 인체

장기이식이 법제화되기 이전의 여러 문헌을 읽을 기회를 가지게되었다. 현재 전적으로 수용되고있는 문제들도 당시의 열을린 윤리논쟁의 쟁점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금석지감(今昔之感)이 있었으며, 윤리도 시대의 변천에 따른다는 진리를 터득하게되었다.

20세기 전반에 항생물질출현으로 인류의 제1 살인자였던 전염병을 퇴치시켰듯이, 21세기에 접어든 현시점에서 줄기세포의 연구목표인 "인체에 거부반응 없는 장기조직"을 창조해서 암과 장기부전을 정복하는 날도 멀지 않을 것이

다.

최근(2001년 11월 29일) 유럽연합(EU)의 의회는 "인간복제금지 결의안"을 압도적 다수로 부결(반대 316, 찬성 37)시켰다. 그래서 치료목적인 "인간배아복제"를 원하는 과학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되었다.

미국서도 스펙터- 상원의원이 언명했듯이 의회에서 "줄기세포 연구추진을 위한 결의안"이 새해 초에 가결될 것을 기대해본다.

— 끝 —

한국 應急醫療制度 개편의 필요성

곽홍 - 2001.10.17

구명 응급 의료제도가 시급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자동차 사고 왕국"이라고 말합니다. 자동차로 인한 사망률이 문화국가 25개국에서 제일 높고, 미국과 일본의 3배내지 4배가 높다고 WHO의 통계로 또 한국정부의 발표를 통해 과거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사망요인은 제 1위가 신장 혈관질환에서오고, 둘째는 악성 암에서, 셋째는 사고로 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연령이 19세부터 40세까지는 제일의 사망률은 차 사고로 인한 것입니다.

1989년과 1990년도 제가 처음으로 한국의 응급의료에 관심을 갖고 한국에 나와보니 응급의료 제도는 아무 실체도 없었고, 각 대학병원의 응급실에서 아무런 기반도 없었습니다. 같은 해 미국, 일본, 프랑스등 선진 외국에서는 훌륭한 응급의료기구가 제도화되어 어떤 응급 환자들도 최소한의 시간 내에 빠른 응급 처치로 특별한 의료 서비스를 통해 생명을 살리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저의 흥부 심장외과장이었던 Dr. R. A. Cowley 께서 1962년에 벌써 중상을 받아 shock에 빠진 환자를 치료하여 구명하여야 한다는 개념을 갖게되었고 이것을 시작으로 매릴랜드 의대와 매릴랜드 주 정부의 협력으로서 차차 발전하여 간 것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되고 제일 유명한 shock trauma center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더 발전하여 매릴랜드주 정부의 관할로서 Maryland Institute for Medical Emergency Service System 시스템(MIEMSS)라는 기구가 되어 완전한 응급의료제도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 기관에 많이 관련하고 있어서 이 제도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 20년 전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제도 구성을 도와주는 것이 의학도로서 조국을 도와주는 의학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여 이제까지 한국을 일년에 2회씩 방문하여 저의 전체 휴가기간을 한국에서 지내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보건복지부 장관등 여러 간부들의 노력, 국회에서의 협조,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협력, 응급구조사의 교육진보 등으로 한국에서도 차차로 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훌륭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차흥봉장

관 시대에 국회서 통과되어 잠 추하할 일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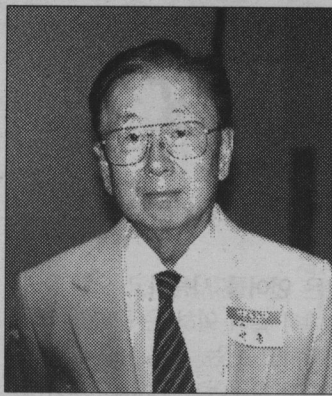
이 법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제 5항 개정중 제 19조, 응급 의료 기금 설치 및 관리, 운용, 제 20조 기금의 조성, 제 21조 기금의 사용, 제 22조 미수금의 대응, 또 제 6항의 응급의료기관등에 관한 부분 중 제 25조 중앙응급의료센터에 관한 것입니다. 앞으로 국회서 하실 것은 법의 제 5항의 기금문제를 잘 하여 국가자금으로 매년 곤란함 없이 이 중요한 구명응급의료기관이 잘 운영되게 하여 주셔야 합니다.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제 6항 내용인 응급의료센터 설치 운용을 잘하여 나가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가급적 속히 이 응급 의료제도의 구성에 필요한 자문위원회를 두시고 보건복지부 간부와 민간에서 이 각 대표단체, 권위자를 선정하여 위원으로 두시고, 특히 각 전문의학회 의사들을 자문하시도록 하시어, 민간사회의 의견을 참고하시기를 기대합니다.

Trauma Center의 자격기준을 정하시고 Trauma Center간의 규율작성, 응급 구조사의 통일된 교육, 자격결정, 소방대와의 관계, 중심화할 통신문제, 신속한 중상환자의 수송문제해결 즉 Helicopter 배치등 또 외과의의 증상을 치료하는 특별 수련기회를 주며, 해외 훈련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며 너무 지연되지 않게 특수기관제도 달성하시게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강조할 점은 각 대학병원 또 큰 종합병원의 응급실 개선과 중상환자를 신속히 수술하여 생명을 구하는 이 특수한 중앙센터, 작성과는 전연 다른 개념입니다. 물론 응급실 개선도 절대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중상자 생명을 구하는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차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젊은 사람들입니다. 이 젊은 사람을 살리며, 이 분들이 다시 사회에 돌아가 국가에 세금을 바치면 이것은 큰 국가의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센터가 있음으로서 이런 중상자에 치료비용은 전 비용의 7-8% 절감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은 환자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외과의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협력으로서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국회의원님 께서 많은 지원, 이해를 주시고 우



리나라에 속히 이런 구명응급 의료제도가 되게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급의료 현황

우리나라의 응급의료 체계가 구축된 지는 이제 10년을 갓 넘긴 걸음마 단계이며, 이제껏 양적 팽창에 집중되었음. 현단계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지역적으로 분산된 응급 의료체계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환자 전달체계를 위한 통신체계 개선, 다양한 사태에 대비한 지역별 응급의료 계획의 수립 및 준비등이 될 것이며,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의료원)의 기능이 활성화되면 응급의료체계의 중추역할을 수행할 것임. 이렇게 지역적 성장과 질관리가 달성된 후에는 보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trauma center 설립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 현황

▶도입단계를 지나 아직 체계 구축과정 중임 (10년을 약간 상회한 역사)

1991년 : 129 응급환자 정보 센터 설립 및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 응급의료기관지정

1994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공포 (미·영은 1900년대에 마련됨)

1996년 : 응급구조사에 이어 응급의학전문의 제도 도입등 인력양성체계 구축

2000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

▶응급의료체계 현황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 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정보센터 11810521213

· 응급의료 기관수 (응급 병상수 7,873개)

▶응급의료 체계현황

· 인력 및 구급차 자원 (2000년 말 기준)

- 응급구조사 : 6,724명(1급, 3,743명/2급, 2,981명)

- 응급의학 전문의 : 219명

- 구급차량 : 4,467대

· 질적 수준면에서 아직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많음.

(응급의료 체계 개선방안 관련 실천연구, 보건산업진흥원, 1999)

①지역응급의료센터 외상사망환자의 약 50.4%가 예방가능한 사

망

② 6개 표본 응급 의료 센터간 예방가능한 사망환자의 구성비가 21%에서 55%까지 변화가 심함

③ 지역 응급의료센터 중 법적 기준인 전담 전문의를 배치하지 않은 센터가 35.6%, 법정기준 상근의사수 5명에 미달하는 센터가 36.6%에 달함.

▶국가차원의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① 기본적으로 공공성이 높은 보건 의료 서비스로 국가 안전망의 역할

② 투자재원에 비해 이익발생이 불리한 구조의 의료서비스

③ 응급의료체계가 개발되기 시작한지 10여년에 불과 아직은 미진한 구조가 많음

④ 민간의 투자가 기피되고 있으나 사고 등의 증가로 체계강화의 필요성은 증대 : 현행 응급의료수가에 대한 원가 보존율이 50%에 미달된다는 연구가 있음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 연구소, 1999) : 교통사고 사망률은 자동차 1대당 8.3명으로 OECD 국가중 최고위

⑤ 지금까지 국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부족했음 : 2000년 응급의료관련 예산 33억원

◇현재 진행중에 있는 응급 의료 정책

① 응급의료 진료기관 확충 및 전문성 강화 : 중앙-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및 화상, 외상 등 전문 응급 의료기관 지정

② 응급의료 통신체계 재정비 : 1339 응급환자정보센터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전

③ 응급 환자 이송체계 개선 : 응급환자이송업 활성화, 구급차 활용강화

④ 인력체계 정비 : 응급의학 전문의 배치 강화, 응급 구조사 교육과정 강화

⑤ 지역별 응급의료 감시체계 구축 : 지역 응급의료 위원회 신설과 중앙·권역응급 센터의 응급 의료 계획 기능 도입

◇향후 응급 의료 체계 개선 작업의 과제

▶과제영역: 우선순위에 의한 순차적 달성이 필요

① 응급의료기관의 질관리 및 질적 향상 : 응급의료기관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구축, 차등수가제 및 우수 응급기관에 대한 공적 지원에 의한 질 향상 활동 유도

② 응급의료계획 수립 및 실행체계 구축 : 대량재해 등에 대한 지역별, 상황별 응급 의료 plan 수립 및 실행체계 준비

③ 응급환자 전달체계의 효율적인 개선 : 응급의료 통신체계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

④ 응급환자 처치의 이상적 진료

지침 개발 및 실행 : 응급실 진료 지침 및 환자 이송 등 각종 지침 개발

▶이를 위해 향후 수행하려는 과제는 다음과 같음.

1. 응급의료 기금 확충

2. 중앙응급 의료센터 설립 및 활동 안정화

3. 응급의료기관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질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개발

4.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기능 활성화

5. 지역응급 위원회 설립 및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와의 유기적 활동 달성

과제영역수행단위
응급의료기관 질관리 및 질적 향상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계획 수립 및 실행, 중앙응급의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응급의료전달체계 개선, 권역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정보센터 응급환자 처치 표준화중앙응급의료센터

◇향후 검토과제
▶Trauma Center

외상부분의 응급환자 진료기능이 집중화된 거대한 응급전용 병원을 구축

▶Trauma Center의 장점 : 고도화된 응급의료 기술이 집약되어 최고수준의 응급 진료를 제공할 수 있음.

① 응급의료 정책 연구·개발 및 시범 적용 공간

② 응급환자 진료에 있어 표준모델 및 지침 개발 가능

③ 선진화된 응급진료기술 도입 및 확산

④ 수도권 내 대량재해시 대비의 료기관으로서의 역할

▶Trauma Center 설립시 고려되어야 될 점

① 100여개의 지역응급 의료센터가 인력, 시설, 장비면에서 trauma center의 선진 응급진료를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강화되어야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② 응급의료정책 연구·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중앙 응급 의료센터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 수행단위로서의 trauma center의 기능이 활성화될 것임.

③ trauma center는 진료수용 능력이 거대함. 따라서, 응급 수준에 상관없이 지나치게 많은 응급환자가 집중화되는 폐해가 나타날 수 있음. 수도권 내 응급의료기관의 병상수를 고려할 때 중증도 이상 응급 환자만이 trauma center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환자 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투자자원의 낭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序言

< 郷土史 연구 >

나의 고향 咸興 <1>

‘1991년 고향 함흥에 다녀와서’

한 경 섭 <공대 52년 졸>



“고향”하면 문득 떠오르는 것은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하고 시작하는 동요 ‘고향의 봄’이 생각 나며, 나는 추억에 잠긴다. 고향을 떠난 지 어언 오십여 년 지난 오늘에도, 어린 시절에 놀던 산과 들, 그리고 강과 마을들의 풍경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의 고향이 이 지구촌의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어떤 민족이 살았던 땅이었는지, 어떤 문화와 사회를 이루고 살아왔는지, 등의 역사적 배경을 깊게 살펴본 적이 없었다. 지난 수 년간 Toronto 대학에서 역사 공부를 해오면서인지, 고향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 손에 닿는 여러 책들을 들여다 보고, 또 막연하게 알고 있던 일들, 미처 몰랐던 일들을 알게 되고, 父母님 또는 어른들로부터 들은 전설, 설화들이 기억에 떠올라 기쁜 마음에서 이들을 여기에 적어 본다.

<1> 함흥의 地政學史 개요

내 고향 땅의 위치를 살펴보면, 백두산 천지에서 남으로 내려 가면 赴戰嶺[부전령]을 만나 南西로 가면 赴戰高原[부전고원]이 있고 고원 동쪽에는 赴戰湖[부전호]가 자리잡고 西쪽에는 長津湖[장진호]가 위치하고 이 두 호수에서 물이 城川江[성천강]에 흘러 들어 이 강이 남으로 내려가 함흥평야를 지나서 동해로 흐른다. 이곳 함흥이 바로 내 고향이다. 1926년에 일본의 투자가 노구찌[野口]가 부전고원에 있는 부전호와 장진호의 두 호수 물을 터널을 뚫어서 함흥평야에 있는 성천강에 흐르게 하여 그 낙차를 이용하여 수력발전소를 건설했고, 이 전력을 이용해서 흥남에다 일본질소비료 공장을 건설하였다. 한편 이 성천강의 물을 함흥평야에 관개용수하여 밭농사를 논농사로 개량시켰다.

이 함흥 땅은 고대 우리 역사상 삼한시대부터 백제, 신라, 고구려, 그리고 고려가 1392년에 망하기까지는 이들 왕조에 속한 바 없었고, 함흥은 女眞族(여진족)의 땅이었다.

여진족은 백두산 북쪽의 중국 장백산맥 지대를 주요 거점지로 하여 반 농업, 반 수렵을 하면서 살아 온 민족이다. 여진족의 근세 역사와 중국과의 관계를 간단히 살펴보면, 명나라 지배하에 있던 한 지방의 여진족 수장 ‘누르차치’가 명제국말에 국력이 쇠약해 가는 틈을 타서 1616년에 국호를 ‘후금’이라고 정하고 여진족 나라를 세우고 (여진족이 전에 세운 김국은 1115-1234년까지 있었으나 몽고족 元나라에게 멸망, 원제국은 1368년에 명나라에 의해 멸망.

金이라는 국호는 이 지대에서 金금이 많이 생산된다고 하여 “金金”으로 하였다(요동평야까지 진출하다 67세에 병사하였다. 그의 아들 ‘훈다이지’가 1636년에 후계자가 되어 국호를 대청국으로 바꾸고 황제의 자리에 올라 세력을 확장하다가 51세에 사망한 후, 여섯 살 난 아들이 순치제가 1643년 계승하자 숙부가 섭정하면서 요동과 만리장성이 있는 곳까지 점령하게 되었다.

한편 명나라에서는 사천, 하남, 호북, 섬서 등지에서 농민 봉기를 주도하던 李自成이 혁명군을 이끌고 明의 수도인 北京 紫禁城[자금성]에 입성하여 명나라의 최후 황인 숭정제를 폐위시키고 자신이 황제에 올랐으나, 그 후 40 일만인 1644년에 청군이 입경하여 한족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순치제를 통합 중국의 황제로 세우고 여진족의 청조제국이 시작되었다. 한족으로부터 꾸준한 이민족, 즉 여진족 구축 항쟁을 받으면서 1912년 최후 황제 선통제 폐위까지 268년간 중국 대륙을 통치하였다.

드디어 한족이 辛亥革命[신해혁명]을 일으켜 1912년에 손문이 중화민국을 세우고 蔣介石(장개석)이 정권을 이어받아 중국 통일을 시도하여 여진족 만주(청조건국 후 만주로 부르게 되었는데 그 유래는 잘 알 수 없으며, 일설에 의하면 여진족이란 한족에게 침략자란 인상 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지우기 위해 불교의 지혜보살[智慧菩薩]인 문수보살[文殊菩薩]을 믿는 사람들이 산다는 의미로 文殊의 음과 뜻이 변한 滿住로 쓰다가 滿洲로 하였다) 함. 현재 중국에서는 만주라는 지명을 사용하지 않음)를 정복 하려고 하였으나 毛澤東과의 내전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한편으로는 中國이 외세에 약화된 틈을 타서 일본이 조선과 만주를 침략했고, 1949년에 毛澤東이 중국대륙을 통일하고 毛澤東의 인민해방군이 여진족 만주당을 통합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했고 모든 외국 세력을 중국대륙에서 추방하였다.

그 다음해인 1950년에 北-朝鮮 金日成軍이 조선을 통일 하려고 南으로 쳐들어 갔으나 李承晚 정권은 미국의 도움으로 이를 막았

다. 미국군이 北-조선 압록강까지 진출하자 毛澤東은 1950년 겨울에 의용군을 北-조선에 파병하여 미국의 세력 확장을 막았는데, 이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국경으로 미국과 직접 군사 대치하는 것이 중국 안전 보장에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다.

미국이 승전의 가망이 없음을 알고 중국에 휴전 제의를 하니 이를 받아들여 1842년의 아편전쟁에 패한 이후 백여 년간 서구 세력의 굴욕적 수모[受侮]에서 처음으로 벗어나 한민족의 자존심과 국가 권위를 회복하여 미국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1953년 휴전협정에 조인함으로써 인하여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분단된 상태로 오늘날까지도 지속 하고 있다.

이것이 내 고향 함흥의 지리정치학(geopolitics), 상으로 본 역사의 개요이다.

<2> 李成桂와 함흥

현재로는 자유로이 방문할 수 없는 땅에 속하고 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 李成桂(이성계)의 조선 왕조 건국 1392년을 전후해서 지정학적 역사를 살펴보면, 1260년에 몽고족인 진기스칸[成吉思汗]의 손자인 ‘쿠부라이’(元의 世祖)가 한족 宋나라를 멸망시키고 몽고족 대원제국을 건국하였으며 여진족, 契丹族[거란족]을 정복하고, 1368년에 대명제국을 건국한 朱元璋(주원장)에 의해 멸망할 때까지 약 백 년간 강압정치를 하였다.

몽고족은 元나라를 건국하기 이전 1230년 경부터 고려 침략을 시작하였는데 고려는 40년간 강화도에서 몽고족에 대항하다 견디지 못해 1271년에 元나라와 굴욕적인 강화조약을 맺고 왕권을 박탈당해 ‘祖’ 또는 ‘宗’의 廟號[묘호]를 쓸 수 없게 격하되어 왕자를 쓰되 王字앞에는 忠字를 붙여 원조에 충성한다는 뜻에서 忠[]王으로 부르게 되었다. 고려 왕비는 元에서 보낸 元의 공주를 받아들여야 했으며, 세자가 출생하면 元의 궁실에 보내 길러서 고려왕으로 冊封[책봉]하게 되었으니 고려말도 모르는 왕도 있었다. 이것은 일본의 조선 침략 정치보다 조금 나은 사정이었다 할까? 이와 같이 女眞 땅 함흥 지역도 역시 元나라에서 파견된 ‘다루가치’(摠監格)의 지

배 하에서 강압 통치를 당했다.

그시대 李成桂가 1333년에 李子春의 둘째 아들로서, 고려 땅이 아닌 여진족 땅 永興(영흥)—함흥에서 약 70리가량 떨어진 곳, 一金日成정권은 “금야”로 지명을 바꾸었다. 오백여 년 썩 오던 永興을 무슨 이유로 지명을 바꾸었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부친을 따라 함흥에 이주하였다. 부친 李子春은 元나라의 雙城總管府(쌍성총관부) 관직을 받아 종사하였는데, 몽고족 元나라의 압정에 불만이 있던 차 元나라가 衰退(쇠퇴)하기 시작하자, 女眞族의 권익과 여진 땅을 회복하기 위한 항쟁 지도를 하였고, 아들 李成桂도 함세하여 함경남도 일대를 정복하는데 많은 공로를 세웠다. 이 사실이 고려조에 알려지게 되자 1360년에 고려조 恭愍王[공민왕]이 李子春과 협의하여 정복한 영토를 동북면이라 하고, 李子春은 이 東北面兵馬使(동북면병마사)로 임명되니 李成桂도 고려조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고려는 내란이나 외침이 있을 때면 李成桂의 군사를 청하여 이를 진압시켰으니 李成桂는 고려조에 공을 세우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고려조에서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고, 고려 말엽에는 右軍都統使(우군도통사)로 임명을 받게 되었다.

한편 中國에서는 大明帝國—1386년에 주원장에 의해 건국—이 점점 세력을 확장하여 만주 땅까지 침입하기 시작하니 중국 대륙에서 밀려서 만주로 온 元은 明軍을 막고자 고려에 원군을 요청하였다. 이 때 고려조는 반몽고파이며 反元파인 李成桂를 출정케 하였다.

그는 군사를 이끌고 明軍에 대전하려 하였으나, 정세에 불리함을 자인하고 義州(의주) 북쪽 압록강에 있는 威化島[위화도]에서 회군하여 開京(지금의 개성)으로 돌아와 친원파인 崔瑩[최형]과 그의 일파를 숙청한 다음 恭讓王[공양왕]을 폐위시켜 고려왕조의 종말을 내리게 하고는 자신이 왕위에

올랐다.

이왕조는 李成桂의 고향인 함흥 일대는 물론 契丹[거란]족이 살고 있던 압록강 남부 일대와 여진족이 살고 있던 백두산 지역과 두만강 남부 전역을 통합하여 조선 왕조를 건국하였다.

조선 왕조의 통치 하에 있던 契丹族과 여진족은 오백여 년동안 한족의 높은 유교, 불교 문화에 동화되어 자신들의 문화, 언어, 문자, 및 풍속을 상실하고 성명까지도 한족의 성을 따라 개명하여 쓰게 되었다.

이 개명은 마치 우리 韓族이 중국 漢族의 성명을 바꾼 것과 비슷한 예라 하겠다. 이리하여 새로운 의미의 韓族, 다시 말하면 넷 따름 민족—女眞族, 契丹族, 中國-漢族, 朝鮮-韓族—이 통합된 조선 민족으로 오백여 년간 융합해서 살아 내려온 것이다. 앞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장백산맥의 여진족이 대명제국을 멸망시키고도 그들은 우월한 漢民族의 문명, 문화에 동화되어 자기들의 언어, 문자 등을 상실한 것과 거의 비슷한 사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일설에 의하면 李成桂의 조상은 전라도 전주의 실향민으로 전전하다 고려 땅도 아닌 女眞族 땅, 반 농사 반수렵 민족이 사는 함흥 지방에 이주하여 살면서 그 지방 호족이 되었다는 기록이 분명치 않은 전설이 지금까지 알려진 조선 역사상의 통설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전설을 부정할 만한 충분한 사료도 아직은 찾지 못하고 있다.

1107년 경 고려조 전성기에 한 때 함흥평야, 흥원 일대까지 잠시 점령하였다가 여진족의 반격으로 철수한 기록은 있다. 이 시대의 中國과 함흥 일대의 정치 배경을 살펴보면, 中國은 宋나 라시대(960—1279)이며 함흥 일대의 여진족 땅은 契丹族이 세운 遼나라(916—1125)가 지배하고 있다가 다시 여진족 金나라(1115-1234)가 遼를 물리치고 失地(실지)를 회복하였다.

< 다음호에 계속 >

SNUA OPINION LEADER

기능성 식품 유산균이 질병 예방해

최근 대장균, 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 등의 유해균과 유산균들과의 항균효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차세대 유산균인 「루테리」가 모든 균에 대한 항균효과뿐만 아니라 사멸효과까지 갖고 있음이 국내 최초로 입증됐다. 항생제에 대한 내성의 증가로 점차 의약품으로는 질병을 예방하기 어려워진 요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기능성식품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요거트에 들어있는 유산균이다. 이에 박龍浩(박용호)교수로부터 유산균에 대한 중요성과 그 효과에 대해 들어보았다.

최근 사람들의 식습관은 배불리 많이 먹던 과거의 습성에서 탈피해 질 좋고 건강에 도움이 되며, 생명연장과 관련된 식품을 찾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비단 우리 나라 뿐 아니라 (우리가 좀더 민감하기는 하지만)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과학자들은 이러한 인간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명공학 등 수많은 분야에서 그 해답을 찾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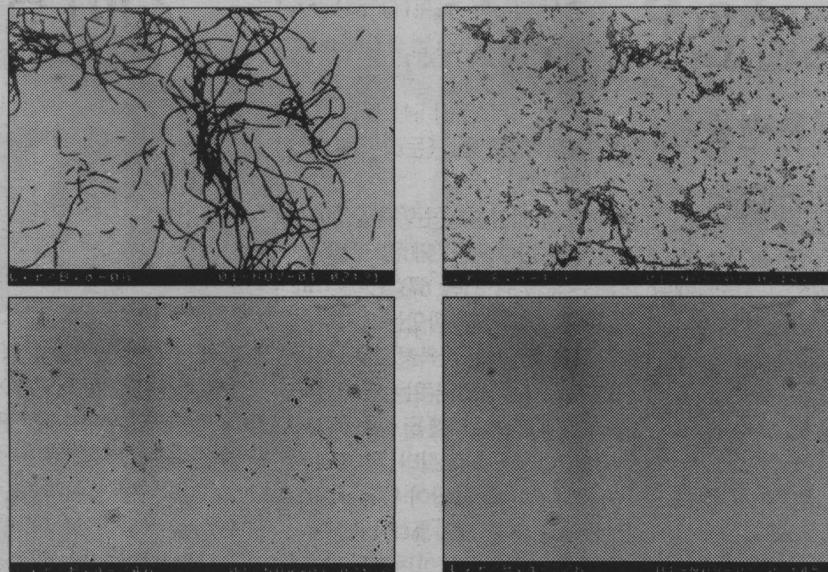
종합건강식품이라고 알려진 축산식품에서도 예외 없이 우유, 달걀, 쇠고기, 돼지고기 및 닭고기 등에서 소위 「기능성식품」을 개발, 생산자들은 이를 브랜드화하여 다른 제품들과 차별화하는 연구개발과 함께 미래의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DHA 우유, 콜레스테롤 저하 달걀 등 근래에는 더욱 많은 제품들이 우리를 유혹 또는 현혹하고 있다.

유산균 제제인 요구르트도 기능성 식품으로서의 시장 확대를 기하고 있다. 단순히 건강에 좋다는 일반적인 개념에서 탈피해 특정한 면에 확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려는 노력이 엿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오랜 기간의 연구 결과로서만이 국민들에게 제시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우유에 관련된 질병연구를 78년부터 시작한 이래 축산식품관련 병원성 세균들 즉 대장균 O157, 리스테리아, 살모넬라, 포도상구균, 캄필로박터 그리고 최근에 국제테러로 알려진 탄저균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면서 축산식품 중 하나인 요구르트에 이용되고 있는 유산균에 대한 항균력과 그 생체기전 등을 국제학회지에 발표할 수 있었기에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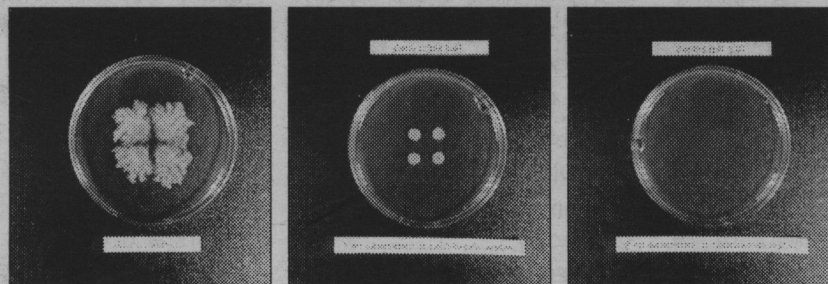
내열성 높은 「루테리」 유산균

유산균이 식품으로서 그 역할을 하기 시작한 이후, 초기에는 단순한 설사, 변비 방지 등의 발효 유제품으로 소개되기 시작했으나, 최근에는 더욱 그 면모를 쇄신하는 연구에 따라 구체적인 질병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기능성식품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유산균이 요구르트와 같은 식품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두 가지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가 안전성(safety), 그리고 둘째가 유효성(efficacy)이다.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 다음에는 과연 어떠한 유효성이 얼마나 있는가를 평가하는 일이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밝혀진 제4세대 유산균 「루테리」(락토바실러스 루테리, Lactobacillus reuteri)의 효과를 확인하게 되었다.



<그림 1> 좌 상단: 탄저균 접종 직후(0 시간), 탄저균의 특징인 죽절상의 간균모양을 관찰할 수 있다. 우 상단: 12시간 후, 탄저균이 단절되고, 죽절상의 형태를 잃어가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좌 하단: 24시간 후, 탄저균이 죽절상의 형태를 완전히 잃어버렸음을 관찰할 수 있다. 우 하단: 72시간 후, 탄저균이 완전 사멸되었음을 관찰할 수 있다(×400).



<그림 2> 탄저균의 실험실내 특수 배지에서 배양된 모습, 메두사 헤드(medusa head)라고 하는 특징적인 모양을 관찰할 수 있다(왼쪽). L. reuteri의 배양상층액 1ml을 첨가한 경우, 탄저균의 전형적인 모습인 메두사 헤드를 보이지 못하며 억제되어 자라고 있음을 볼 수 있다(가운데). L. reuteri의 배양상층액 2ml을 첨가한 경우, 접종한 탄저균이 전혀 자라지 못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오른쪽).

「루테리」는 루테린(reuterin)이라는 항균물질을 분비한다. 이 루테린은 기존의 유산균이 분비하는 항균물질이 대부분 단백질이기 때문에 가지는 취약점인 체내의 단백질 분해효소에 쉽게 파괴될 수 있고, 위산, 담즙 등에 효력이 상실될 수 있으며, 열에도 약한 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루테린은 베타하이드록시프로피온알데하이드(beta-hydroxypropionaldehyde)라는 화학명칭으로서 첫째 1990년 모유에서 처음 분리되어 그 안전성 및 효능이 인정되었으며, 둘째 단백질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유산균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갖지 않아 체내에서 쉽게 파괴되지 않으며, 셋째 내열성이 높아 효과적으로 장까지 도달할 수 있다.

또한 스웨덴 등 축산 선진국에서는 로타바이러스에 의한 설사증 치료 예방효과까지 확인한 바 있어 우리 연구실에서는 최근 식중독 및 축산식품유래 병원성 미생물인 대장균 O157, 리스테리아, 살모넬라, 포도상구균에 대한 항균효과를 확인하였고, 특히 다중의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살모넬라 티피무리움(Salmonella typhimurium) DT104 및 탄저균에 대한 사멸효과도 조사하였다.

결론적으로 볼 때, Lactobacillus reuteri가 분비하는 루테린은 이들 병원성 미생물에 대하여 단순한 성장 지연이나 억제효과(bacteriostatic)가 아닌 사멸효

과(bactericidal)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돼 기능성식품으로서의 선두주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겠다.

탄저균 억제·사멸효과 율 등

국내 식중독 원인체 중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 살모넬라균에 대하여 사멸효과를 나타낸 것은 물론, 병원에서 그 감염이 확인되면 별다른 치료대책을 세울 수 없는 약제대성 내성균인 「수퍼박테리아」에 대해서도 사멸효과를 나타내 예방 차원에서의 루테리 유산균(락토바실러스 루테리)은 유제품이 지니고 있는 본래의 장점 이외에 부가적인 식중독 예방 차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던 차에 국제 테러에 이용되고 있는 탄저균에 대한 효과를 한 번 시도해봄이 어떨까하는 교실 연구원의 제안에 따라 이에 대한 항균시험을 실시한 바, 뛰어난 사멸효과가 나타나 미국 등에서 탄저에 대한 공포증가로 인해 품귀현상까지 빚고있는 「시프로록(Ciprofloxacin, quinolone계 항생제)」 항생제에 대한 부작용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더욱 기능성식품으로서의 자리매김이 가능하리라 기대되었다.

이러한 유산균의 역할은 단순히 병원성세균 성장 억제나 사멸효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병원성 세균이 보유하고 있는 독소 등 병원성 무기에 대한 방어 효과 및 생체기전을 함께 확인함으로써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



박龍浩

- 1978년 모교 수의대 수의학과 졸업
- 1981년 모교 대학원 졸업(석사학위)
- 1991년 美워싱턴주립대 졸업(박사학위)
- 美농무성(USDA) 연구과제 심의위원
- 한국수의공중보건학회 부회장
- 한국유질유방염연구회 부회장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연구과제 자문위원
- 모교 수의대 교수

예를 들면, E. coli O157:H7의 경우, 유산균이 이와 같은 세균증식을 억제 또는 사멸하더라도 그들이 분비하는 독소에 의해 동물이나 인간 생체는 치명적인 손상을 받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 연구실에서 국제학회지(Journal of Food protection, Nov. 2001)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국내 개발 비피도박테리움 유산균(Bifidobacterium longum HY8001)은 E. coli O157:H7의 치명적인 독소인 SLT(shiga-like toxin)가 장이나 신장 세포에 부착함을 경쟁적으로 저해시켜 독소에 의한 위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많은 유산균들의 다양한 작용기전 및 생체 효과를 확인해 나간다면 유산균의 장래 역할은 더욱 크게 성장하리라 기대된다.

항생제 대체물질 개발 절실

유산균(probiotics)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연구는 과거에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으나 최근 무절제한 항생제 오·남용에 대한 대체 방법(alternatives)을 연구하면서 다시 그 가능성이 식품업계는 물론 동물사료 회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이용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루테리」 유산균은 내열성 및 단백질효소에 쉽게 파괴되지 않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산균을 이용한 연구 및 기능성 식품연구는 앞으로 의학계 및 수의축산계에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유산균의 효과검증은 생체나 유사조건하에서 정밀히 이루어져야 하며, 유산균 자체도 인체나 동물에 유익한 미생물이기는 하나 결국 세균이라는 측면에서 그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유산균 자체는 물론 이들이 분비하는 항균물질을 정확히 규명하고 정제해 발전시켜 나가야 하리라 생각한다.

우리 연구실에서도 축산식품 유래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루테리」 유산균 뿐 아니라 항생제 대체물질 개발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끝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는 혼자 연구결과가 아닌 모교 수의대에 있는 모든 교수님과 우리 미생물학교실 연구원 전부의 합심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꼭 밝혀두고 싶다.

밴쿠버지역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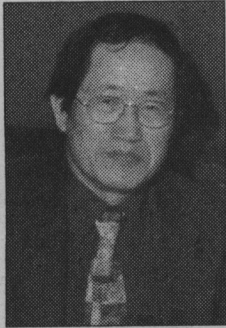
2001년도 정기총회 및 송년모임

신임회장 황택구(미대 57년 입) 동문 선출

밴쿠버지부(회장 엄승용)는 지난 12월 9일(일) 오후 6시 Executive Plaza Hotel (405 North Rd., Coquitlam, BC)에서 2001년도 정기총회 및 송년모임을 가졌다.

총무 최승선 동문(공대 76년 입)의 사회로 진행된 총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신임 회장단을 선출하고, 장학금 수여 및 관악상 시상 등이 있었다.

이어서 신임회장 **황택구 동문**(미대 57년 입, 사친)의 사회로 만찬, 여흥 그리고 경품 추첨이 있었다.



동창회 경조사

◇경사:임성택 동문(상 58) 장남 결혼장영철 동문(법 62) 장남 결혼

김훈 동문(문리 54) 장녀, 차녀 결혼유무종 동문(문리 53) 장남 결혼

◇조사:임영창 동문(문리 59) 모친상박정길 동문(약 58) 장모상

구자형 동문(공 67) 모친상 박의용 동문(공 56) 장모상

윤종환 동문(상 45) 별세 윤종환 동문(상 45) 부인별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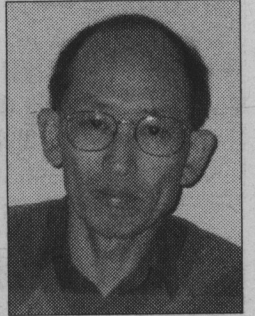
황의성 동문(약 61) 장모상홍성화선생('99 관악상수상) 별세

문병: 김영휘 동문(사 54) 수술 차동철 동문(문리 54) 입원

엄승용 회장 고별사

2001년 임기를 마치며

어느덧 한 해를 보내면서 지난 2001년을 돌이켜 볼 때, 본 동창회는 동문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회원간 친목 활동과 장학금 모금사업 등으로 착실한 성장을 하게 되어 동문들 여러분께 가사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여름야유회 모임에는 불순한 기후에도 불구하고 다수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끈이어 열린 장학금 조성을 위한 아트 세일에도 자원봉사와 열성적 지원으로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어 흡족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9년 전 초창기의 동창회 모임이 연륜을 거듭하여 오늘과 같이 괄목할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룩한 것은 서울대 동문들의 애교심, 참여, 지원의 결실이라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올해 같이 수고했던 임원진께 감사드리며 특히 박병우, 최승선 동문의 헌신적 봉사에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동문들 가정엔 건강과 행복이 내내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동창회 밴쿠버지부
회장 엄 승 용(상대 54년 입)

캐나다 밴쿠버 지역 동창회 신임임원진

회장 : 황택구 (Taik Koo Whang), 미대 조소과 57학번 (전화) 604-433-8539

부회장 : 유동성 (Dong Sung Yu), 공대 조선공학과 58학번 (전화) 604-435-8937, (Office) 604-666-4141

총무 : 김은중 (Un Joong Kim), 인문대 불문과 80학번 (전화) 604-988-3679, (Office) 604-570-0803

재무 : 박병우 (Byung Woo Park), 사회대 경제학과 76학번 (전화) 604-420-7034, (Office) 604-570-0803

밴쿠버 지부의 연락 담당 및 재미동창회보 등 배달처는 박병우 동문이다. Byung Woo Park 1311 Glen Abbey Dr., Burnaby, BC, Canada V5A 3Y2

투고요청

동문여러분, 동창회보는 우리들의 삶의 역사이므로 크고 작은 소식을 사진과 함께 많이 보내주시십시오.

2001년도 관악상 수여 및 장학금시상

2001년도 관악상 수상자로 장법식 동문(문리 49년 입)과 비동문이 박경애 교수가 선정되어 총회에서 시상하였다.



장법식동문 (문리대 49년 입)은 문리대 수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후 UBC에 유학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UBC에서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한인회 설립 초기에 적극 참여하셨으며, 법정 통역과 자원봉사를 통하여 재배쿠버 한인들의 복리증진에 크게 헌신하셨다.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밴쿠버 지부의 발기를 주도하셨으며 밴쿠버 동창회의 오늘이 있기 위한 밑거름 역할을 하셨다.



관악상 수상자.

장학금 수상자로 선정된, 한석웅군.

박경애교수(UBC)는 UBC 아시아 문제 연구소 석좌교수 및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박교수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1978년)하고, 미국 조지아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수여(1984)하였다.

1995년 이래 캐나다 대표단의 일원으로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캐나다와 북한간의 교류증진 협력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지난 2001년 2월 6일 캐나다와 북한 사이에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는데도 박교수의 공로가 크게 인정되고 있다.

관악상 위원회 위원(위원장 유동성 동문, 공대 58년 입)들이 후보추천을 위한 신문광고, 수여자 선발을 위한 작업을 지난 2월부터 맡아 수고해 주셨다.

장학금 수여

동창회는 동문자녀 장학금 수여 대상으로 허봉 동문(법대 58년 입)의 자제인 허정호군



← 밴쿠버지역 동창회가 수여하는 관악상 수상식 장면. 왼쪽으로 부터 박경애 교수, 최승선 총무와 수상자 엄승용 회장.

미, Art Center College of Design), 한대준 동문(공대 74년 입)의 자제인 한석웅(S.F.U 생화학)군을 선정 상장 장학금 \$500을 각각 전달 하였다.

올해 비동문 부문은 추천 대상자가 없어 동문 부문에서만 선정하였다.

장학위원회 위원장 김영휘동문(사대 54년 입)의 투병으로 최문경동문(사대 57년 입)이 장학위원회 위원 업무를 대행하였다.

김영휘 동문이 하루속히 완쾌하시기를 바랍니다.



밴쿠버지역 정기총회 및 송년회에 참가한 동문들.

뉴잉글랜드 소식

뉴잉글랜드 지역 동창회 웹사이트 개설

뉴잉글랜드 지역 동창회(회장 이재신)는 자체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앞으로 지역동창회의 소식을 신속히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웹사이트 주소는 <http://www.snua.org> 이다.

Ballroom Dance Club 첫 번째 Party

뉴잉글랜드 지역 동문만으로 구성된 Ballroom Dance club 이 지난 12월 29일 첫 번째 정기 모임 겸 무도회를 가졌다. 아름다운 실내장식과 조명으로 차려진 휘황한 Dance Hall에서 모두들 그간에 닦아온 기술들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흥겨운 음악에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른 채 거의 2시간이 가까워져야 끝이 났는데, 이 첫 번째의 무도회를 이처럼 성공리에 이끌게 된 데에는 권이덕(공대 68입) 동문의 수고가 매우 컸다. 권동문은 그 동안 20여 년간 연마한 실력을 여지없이 과시하면서 동문들을 지도하여 주었는데, 부인 권영희 여사께서도 남편 못지 않은 실력자여서 이번엔 참석했던 동문 부인들의 무도 실력 연마에 큰 도움을 주셨다.

서울 동창회 소식

문리대 불어불문학과 동창회

1천여 회원 힘모아 모교 지원사업 펼칠 터

全淳翼 총무 < 문리대 80년졸, 외환은행 지점장 >

1946년 불어불문학과 창설, 1997년 불어불문학과 총동창회 발족... 학과가 창설된 지 56년 만에 동창회가 발족되었다.

1995년 말, 원로 선배들과 뜻을 같이 하는 동문들이 차홍호(57년졸, 민음사 대표) 동문을 창립위원장으로 선임해 동창회 구성에 적극 나섰다. 이후 사회 각계각층에 흩어져 있는 동문들의 소재 파악부터 시작해 1년여간의 제반 준비 끝에 드디어 1997년 1월17일, 제1회 불어불문학과 총동창회를 소공동 롯데 호텔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이날 동문들의 남다른 관심과 기대 속에 무려 2백 5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 대성황을 이룬 뜻 깊은 동창회 행사가 되었다. 그 뒤로부터 매년 초에 정기총회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올해 2월 2일 제5회 정기총회 행사를 마쳤다.

학과 창설 이후 지금까지 배출된 동문은 1천여명에 이르며, 이들 동문들은 문학, 철학, 신문방송학, 정치학, 경제학, 연극영화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계에서 활

동하고 있음은 물론이며, 사회로 진출한 동문들 가운데는 정치, 경제, 회교, 무역, 금융, 언론, 방송, 사업경영 등 다채로운 영역에서 눈부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동창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협조와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 발전에 기여함에 있다. 동창회 발족이 늦어 아직은 재정이 충분치 못해 일부 뜻 있는 동문들의 기부금과 개인들의 회비로 그 초석을 다지고 있기는 하지만, 동창회가 지향하는 바는 사뭇 그 뜻이 크다.

제2외국어나 인문학이 경시되고 있는 현 풍조이긴 하나 불문학을 위시한 인문학은 현대사회 일반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며 이는 한때의 유행과 인기여 영합하지 않는 연속성을 간직하고 있다.

우리 불문학도들은 특히 서구 문화 중심지라는 프랑스 문화의 적극적인 수용과 창조적인 발전을 통해 새로운 역량을 발휘하며 우리 사회의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고 있으며, 이는

NE 지역 동창회 총회 및 신년 하례회

1월 26일 5시, Western Country Club

NE지역 동창회(회장 이재신)는 2002년도 정기 총회 및 신년, 구정 Dinner Party를 2002년 1월 26일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Western Country Club(275 Meadowbrook Road, 전화 781-894-2503)에서 개최되어 많은 동문과 가족들이 참석하였고, 이날 행사로는 5시부터 Reception이 있으며 6시부터 만찬이 있고 연례총회가 7시부터 7시 30분까지 있는데 동창회 사업보고 및 노인회 기여금 및 장학금 전달식이 함께 있었다. 이어 11시까지 송년 파티가 있었는데, 노래자랑, 행운권추첨, Nonsense Quizzes, 즉석 사물놀이, 장기자랑 및 Dance Party가 있었다. 자세한 진행 경과는 다음호에 보도할 예정이다.



뒷줄 좌로부터 최홍균(공대 69입) 윤충남(문리대 60입) 윤상래(수의대 62입) 윤은상(상대 66입) 권이덕(공대 68입) 정정욱(의대 68입) 김문소(수의대 61입) 김은한(의대 60입)과 앞줄 사모님들.

우리 동창회가 지향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

우선 동창회는 동문 상호간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동창회 명부를 발간(지금까지 2회에 걸쳐 수정 및 보완)했다. 또한 1999년부터는 동창회 소식지를 발간해 각계 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문들의 동정과 활약상을 실어 전 동문들에게 송부하고 있으며, 동문들의 경조사를 챙기고 있다. 앞으로 동문들의 에너지를 결집해 기금이 확충되는 대로 후학 양성과 모교 발전을 위한 사업 등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큰그릇은 늦게 만들어진다지 않는가.

끝으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저명 동문들을 소개하자면 현 동창회장인 차홍호 민음사 대표,金正鈺(56년졸) 문예진흥원장, 홍익대 총장을 역임한 沈相熙(59년졸) 동문, 盧永燦(57년졸) 前한국국제교류재단 상임고문, 한성자동차 金聖棋(67년졸) 대표 등이 있다.

학계에는 일일이 이름을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동문들이 대학 강단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중 이미 작고하신 李堯榮, 金鵬九(50년졸)교수는 한국 불문학의 산증인이자 태두인 분들이며, 吳鉉偶(50년졸), 鄭明煥(54년졸),

李桓(55년졸)교수 등은 한국 불문학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며 확고히 다진 원로선배들이다. 朴異汝(본명 朴仁熙, 55년졸)

교수는 철학으로 명성을 날렸으며, 그 외에도 소설, 시, 평론 등 문필가로서 명성을 얻고 활동하고 있는 동문들이 많다.

워싱턴지역 소식

워싱턴지역 동창회 신임회장 許允行(사대 57입) 동문 선출

부회장에 고희선 동문(법대 64입)

새로이 구성된 2002년도 워싱턴 지역 동창회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 회 장 : 許允行(사대 57입)
- 부회장 : 고희선(법대 64입)
- 감 사 : 황수택(의대 65입)
- 총 무 : 이혜숙(문리대 64입)
- 문 화 : 양용관(수의대 62입)
- 재 무 : 권오성(경영대 86입)
- 섭 외 : 서마리아(음대 54입)
- 홍 보 : 맹병규(문리대 70입)
- 사 업 : 차효주(사대 56입), 김봉오(법대 74입)

(연락처) ▶허윤행 회장(전화) 360-683-4195/6(B) 360-683-4197(H) 360-683-1546(F) (주소) 830 West Washington St. Sequim, WA 98382

▶고희선 부회장(전화) 425-673-7258(B) 425-744-0648(F) (주소) Allstate Insurance Co. Exclusive Agent 18730 33rd Avenue W. Suite 201, Lynnwood, WA 98037

남가주지역 소식

2001년도 상대 정기총회 및 송년회

남가주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동창회(회장 심상은 상대 54년 입)의 2001년도 정기총회 및 송년모임이 지난 12월 6일에 Korea Town에 있는 Radisson wilshire Plaza Hotel의 Ball Room에서 열렸다. 임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특히 심상은 회장께서 일일이 모든 상대 동문들에게 보낸 카드의 효과로, 예년보다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는 좋은 모임이 되었다. 등록되어 있는 동문들 중에서 만행이면서도 얼마 전까지 Asiana 은행을 설립하시고 기초를 닦으셨던 정원훈(38년 입)선배님, 남가주 상대 동창회를 창립하시고 초대 회장을 지내신 유진형(47년 입)선배님, 그리고 이종성(50년 입)선배님과, 김재소(50년 입)선배님등 연로하신 여러 동문님들께서 건강

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셔서 많은 환영의 박수를 받았다.

또한 가장 나이 어린 동문으로는 90년도에 입학한 오재석 동문이 참석하여 정원훈 선배님과는 무려 50년 이상 차이가 났지만 우리 동창회의 특성상 전혀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선배배간의 존경심과 사랑으로 결속하는 기회가 되었다.

Cocktail과 저녁식사를 마친 후, 8시부터 제 1부 2001년도 정기총회를 유병원 총무(76년 입)의 진행으로 열고 심상은 회장의 인사, 참석자 소개, 원로 선배님의 축사, 사업보고, 재정보고, 골프 회보고 등의 순서를 거쳐 마지막으로 교가를 함께 부르고 기념사진을 찍고 총회를 마쳤다.

특히 심상은 회장은 내년도에 새

로이 동창명부를 발간하기로 약속하였고, 정원훈 동문님과 유진형 동문님께서도 초창기 상대 동창회의 회고를 통해 당시의 시대상 및 재미 있었던 일화 등을 말씀해 주셨다.

8시 40분부터 서울방송 이영돈 씨의 사회로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제 2부 송년파티에서는 남녀 그리고 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노래와 춤과 Game 을 즐겼고 사회자의 만담과 Quiz에 배꼽을 잡고 웃었다.

더욱이 많은 동문들이 제공해 주신 풍성하고도 가치 있는 선물들로 참석한 모든 사람이 상품 또는 경품을 받았으며, 심상은 회장이 제공한 서울왕복 비행기표는 이명선 부회장(58년 입)이 당첨되는 행운을 가졌다.

밤 11시 30분, 작별의 아쉬움 속에서 "새해에도 모든 동문들이 하시는 사업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며 다시 1년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뵈 수 있기를 바란다"는 심상은 회장의 말씀과 함께 모든 행사를 마쳤다.

<투고자 성주경 동문>

2002년도 정기총회 및 신년회

2월 15일(금)

남가주 서울대학교 동창회는 다음과 같이 2002년 정기총회 및 신년회를 개최하니 많은 동문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일시 : 2월 15일(금) 오후 6시 30분

●장소 : Radisson Wilshire Plaza Hotel

남가주 서울대학교 동창회장 이 청 광

남가주 동창회 단과대학 회장단 회의 개최

1월 8일 오후 6:30 La Seoul Garden에서 남가주 지역 동창회(회장 이청광)산하의 단과대학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총 20명이 참석하였다.

의 안전에 대해 사전 논의 및 확인을 하였고,

2) 2월 15일에 갖는 정기총회 및 신년모임에 대한 협조사항을 논의하였다.

1) 1월 23일에 개최하는 이사회

2002년도 정기이사회 개최

2002년도 정기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일시 : 1월 23일(수) 오후 6시 30분

◇장소 : La seoul Garden Restaurant

◇안건 : ① 수석 부회장 선출

② 2002년도 부회장 인준과 감사선임

③ 회계 년도 변경 및 회칙 개정이 논의되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 호에 게재될 예정이다.



남가주 상대 동창회에 온 동문들. 앞줄 오른쪽 부터 7번째가 초대회장 유진형 동문이고 그 옆이 전 회장 정원훈 동문이고 유진형 선배님 뒤에 심상은 현 회장.

하 고

박명근 동문 모친상

박명근 동문(상대 63년도 입학)의 어머님께서 지난 1월 5일 별세하셔서, 한국 장의사에서 1월 8일에 입관예배를 하였습니다. 재미총동창회는 박동문과 유가족들에게 심심한弔意를 표합니다.

박명근 동문 연락처 :

(H) 626-351-8435

(B) 323-222-2362



남가주 상대 동문들이 학창시절을 생각하며 힘차게 교가를 제창하고 있다. 왼쪽 앞에 정원훈 동문(38년 입)이고 오른쪽에서 2번째가 막내 오재석 동문(90년 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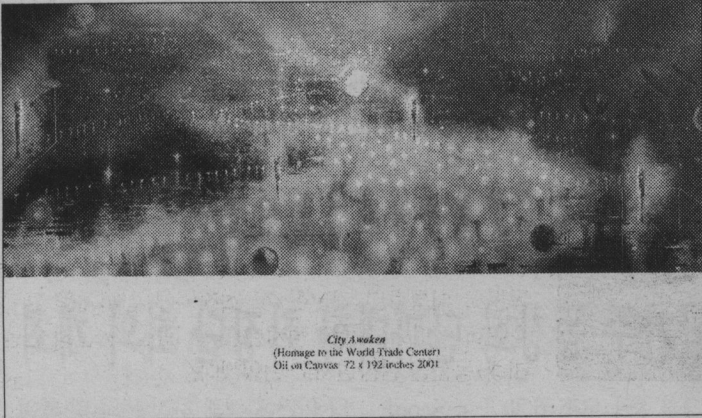
이명선 사회자가 게임을 주도(사진 위), 성주경 부회장이 조성상 동문에게 수상경품 증정(사진 아래)

뉴욕 지구 소식

정연희동문(미대 68졸)미술전

“다섯 번째의 계절”

1월 11일(금)부터 2월 15일까지
Sugar Hill Art Center에서



City Awaken
(Homage to the World Trade Center)
Oil on Canvas 72 x 192 inches 2001

정연희(Mrs. Younhee Paik, 미대 68년 졸) 동문은 지난 1월 11일(금)부터 2월 15일까지 뉴욕시 내 uptown에 있는 Sugar Hill Art Center에서 “다섯 번째의 계절”이라는 주제로 대작들을 전시하고 있다. 이는 지난 2년 동안 (Chelsea의 Branda Taylor 화랑 개인전 이후)에 제작한 新작들로서 대형 유화작품 “깨어있는 도

시(72'x 192')를 비롯해서 천정설치 작품들과 철판에 그린 油畫들이다. “깨어있는 도시”는 추구하고 투쟁하는 뉴욕이라는 도시의 삶을 표현했으며, 지난 9.11 World Trade Center 사건의 아픈 영혼을 상징하고 있다. 철판(Oil on Aluminum)의 그림들은 몇 년 전 정동문의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오랜 병상에서 빈

청정만 보시던 어머니를 위해 걸어 드리고 싶었던 환상적 공간에서 발상된 작품이라고 한다.

이번 신작들은 서울 현대화랑 개인전(2001년 11월)에서 전시되었고, 뉴욕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작품이다.

전시회장인 Sugar Hill Art Center는 최근에 Harlem 지역에 문화시설 도입을 위하여 생겨진 화랑공간이다.

전시장소: Sugar Hill Art Center(3664 Broadway & 151 st. St.)

전시시간: 화-토요일 오전 11시-오후 5시, 일요일 12시-오후 4시
전화: 212-491-5890

연락처: 212-473-0173, 917-406-5324 (Studio)



Donald S. Weiss
SUGAR HILL ART CENTER

YOUNHEE PAIK

The Fifth Season
PAINTINGS AND CERAMIC INSTALLATION
JANUARY 11-FEBRUARY 15 2002

WE ARE COMEABLEY INVITED TO AN
OPENING RECEPTION
FRIDAY, JANUARY 11, 2002
7:00-9:00PM

TO RESERVE
PLEASE CALL: 212-491-5890 OR 917-406-5324

3664 BROADWAY AT 151ST STREET, NEW YORK, NY 10032
TEL: 212-491-5890 FAX: 212-491-5891
WWW.SUGARHILLARTCENTER.COM

미주 의대 동창회 2002년도 獎學生 선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미주 동창회에서 2002년도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동문 자녀 및 동포 학생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대상: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각 분야에서 특기가 있는 **동포 자녀** 및 **유학생** 서울대학교와 서울의대 **동문 자녀**로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자.

◇분야: 의학, 과학, 경제, 법률, 문학, 신문방송, 예술분야 및 체육 특기자 등 전공분야

◇모집인원: 10명

◇장학금 금액: 각 분야 1인당 **2천 달러**

◇구비서류: 신청서(동창회 사무실에 비치),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자필 소개서

◇추천서 2통, 단체장 추천서(단체 또는 협의회 추천 시)

◇신청마감일: 2002년 2월 28일

◇접수 및 문의처: SNUCMAA of North America

142-04 Suite 10U-ABayside Ave., flushing, NY 11354

Tel : (718)888-2622 Fax : (718)888-2608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미주 동창회
장학위원장 한 기 현

오레곤지역 소식

지역 동창회장 라제관 동문(공대 72년 입)

부회장 정성국 동문 (문리대 73입)

오레곤지역 동창회(회장 박창성, 사대 72년 입)는 지난 12월 28일 뉴서울 가든식당에서 16명의 동문들이 망년회 겸 총회를 가졌다.

푸짐한 한식 Buffet로 식사를 나누면서 여러가지 정담으로 그동안 자주 만나지 못했던 동문들과 회포를 풀었으며 식사가 끝난후에는 배일도 동문(약대 56입, 한의 원원장)의 성인병 예방에 대한 건강 세미나가 있었다.

최근 성인병으로 타계한 동문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였다.

이어서 열린 총회에서는 새 회장

단이 선출되었는데 그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임회장 : 라제관(Lah, Jeh Kwan, 공대 72입, 전자회사 근무)

16298 NW Somerset Dr.
Beaverton, OR 97006

(H) 503-645-5550 (O) 503-696-3422

부회장 : 정성국 (Chung, Sung Kook, 문리대 73입, 스포츠용품점 운영)

11834 SW Wilton Ave.
Tigard, OR 97223

(H) 503-524-7741 (B) 503-226-6467

감사의 글

故 유희길 동문 유가족 NY동문들과 교민들께 투병시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랑 하는 주님의 결으로 가신 (고)유희길의 천국환송예배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시어 따뜻한 사랑과 기도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구나 생전에 고인의 구명을 위해 애써주신 뉴욕 한인회, 뉴저지 북부 한인회, 한국일보, 중앙일보, 라디오 서울, 그 외에 많은 친지 독지자들의 눈물겨운 노력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직접 찾아 뵙고 인사 드리는 것이 도리인 줄 아오나 우선 지면을 통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니 헤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믿음을 본받아 영원한 삶에 소망을 두고 더욱 힘차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기 부탁 드리오며 다시 한번 베풀어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001년 12월 26일 (고) 유희길 유가족

미망인 : 유. 에스터

장 남 : 유. 제임스

차 남 : 유. 토마스

삼 남 : 유. 앤드류

서울대 동창회보를

직접 읽으시렵니까?

<http://www.snua.or.kr>

워싱턴 DC지역 소식

송년회 및 임시 총회 개최

워싱턴 D.C. 지역동창회(회장 진금섭, 약대 61년 졸)는 12월 29일 버지니아 주 페어팩스 소재 인터네셔널 골프장에서 60여명의 동문 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2001년 연말 파티 및 임시 총회가 개최되었다.

특히 시카고에서 멀리 찾아 주신 이용락 미주 총동창회장 내외를 박수로 맞으며 시작된 연말 파티에는 예년에 볼 수 없었던 3인조 빠리아치 밴드가 동문들의 흥을 돋구는 가운데 개최 및 임시총회, 그리고 여흥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전임 문성길 회장에 대한 공로패 수여와 회칙 개정안 통과가 있

은 후 김국 총무(농대 75입)의 사회로 퀴즈풀이, 노래, 춤, 상품추첨으로 진행된 여흥시간에 참석 동문 모두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대상인 오디오 세트의 행운의 주인공은 현재 상임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영목동문(공대 59입)의 부인이 차지 주위의 박수를 받았으며 참석한 모든 동문들이 손에 손을 잡고 올드랜사인을 합창하며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을 나누었다.

송년회 인사를 하는 진금섭 회장.



샌프란시스코지역 소식

신임회장 정조웅동문

부회장에 정지선(상대 58입)과 임승쾌(문리대 66입)동문

샌프란시스코(회장 김은중, 상대 59입) 서울대학교 동창회 신년모임이 12일(토)오후 6시부터 샌프란시스코 공항 메리오프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신년모임에서는 김은중 전 회장과 정조웅(공대) 신임회장의 이취임식이 겸했다. 김은중 전 회장은 지난 2년간 동문들의 협조로 회장직을 무난하게 수행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샌프란시스코지역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조웅 신임회장은 임기동안 동문들을 자주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뿐 아니라 동문들간의 소식을 전하는 "뉴스레터"발간도 추진해 보겠다고 말했다. 6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이날 신년회에는 정대현(공대)동문의 자작 시 "精"을 낭송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날 신년 모임에서는 또 오는 4월과 6월, 9월에 골프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 동문회는 동문회 이름으로 김은중 전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동문회는 또 부회장에 정지선(상대 58입) 동문과 임승쾌(문리대)동문을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휴스턴지역 소식

동창 회장에 김영창 동문(공대 68입)

부회장에 박진섭 동문(의대 67입)

휴스턴 지역동창회(회장 이욱 배, 문리대 62년 입)는 지난해 12월 27일 Adam's Mark Hotel에서 송년잔치 및 정기총회를 열었

이던 정기총회에서는 2002년을 위한 새 회장단도 선출되었는데, 회장에 김영창 동문(공대 68입)

부회장에 박진섭 동문(의대 67입) 총무에 변중무 동문(공대 87입) 재무에 허진범 동문(공대 68입) 섭외에 이진형 동문(공대 74입)이 일년간 수고하게 되었다.

회장 : 김영창(Kim, Young-Chang, 공대 64입)

713-431-6071 (B) 713-431-6326 (F) 713-859-8182 (H)

E-mail : yckim11@msn.com

총무 : 변중무(공대 87입)

713-952-8555 (B) 713-952-3805 (F) E-mail : joongmoo@hotmail.com

달라스지역 소식

지역동창회 신임 회장에 李秉規 동문(약대 61년졸)

달라스 지역동창회(회장 崔權子 약대 68년 졸)는 지난 연말 총회를 열고, 퇴임하는 최근자동문 Lee, Byung Kyu 236 Samuel Blvd. #Q5 . Coppell, TX 75019

(Mrs. Kuenja Chung)후임으로 李秉規 동문(약대 61년 입)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전화 817-251-8789(B), 972-304-0748(H)

이용락 재미총동창회장 D.C. 지역 동창회 송년회 인사 <준비된 원고>

동문 선후배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이 해를 보내며 새로운 소망을 신년을 바라보는 歲暮에, 워싱턴 D.C. 지역 송년회에 참석하게됨을 본인은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진금섭 회장님, 이영목 차기회장님, 문성길 전회장님, 총동창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오신 방은호 선배님, 곽흥, 백순평 의원님, 박윤수 고문님과 워싱턴 D.C.의 동문여러분 본인을 이 송년모임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우리 서울대학교 동문들과 자리를 함께 하는 기회를 감사하며 또, 재미 총동창회장으로 봉사하는 중에 가지는 큰 보람중의 하나로 생각합니다.

우선 워싱턴 D.C.는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의 산실이였으며 박윤수 박사님을 초대 회장으로 창립되었다는 사실을 본인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후 선대회장님들의 헌신적인 공력으로

재미 총동창회가 오늘과 같이 성장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바로 20년 전 재미 한국 과학기술자 협회회장으로 매달 한 번 씩 방문하던 워싱턴 D.C. 이기도 하며, 오늘 이 자리는 많은 감회가 있으나, 무엇보다도 모교를 졸업한지 어언 50여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同門修學의 인연으로 맺어지고 만리 이역땅 미국에서이지만 近隣의 형제자매의 우정을 나누는 우리 선후배 동문들과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워싱턴 D.C. 동문여러분, 이 지역은 혹은 전문직으로 혹은 사업가로서, 또는 미국 정부 요직에 종사하는 우리 동문들이 많은 활약을 하고 있어 본인은 이 자리에서, 미국 내에서는 우리 동문들의 금지와 체류를 가장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최근에 "조수미 동문 초청 음악회"를 성공적으로 가질 수 있었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이의 성공을 위하여 노력하신 여러 동문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지역 동문들께서 제작된 CD 500장을 재미 총동창회에 기증하셔서 판매대금으로 母校와 後進을 위한 基金과 관악후원회 후원금으로 사용하도록 결의하신데 대하여 총동창회를 대표하여 이에 감사드립니다.

동문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의 가장 큰 사업은 '재미 서울대학교 동창회보 발간'입니다. 이 회보를 <母校를 高揚하고, 知性人의 友情을 글로써 나누는 장>으로서 발전시킨다는 목표에 대한 공감하시는 미주 전역의 동문들로부터 그 중요성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문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제6대 임원진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회보 발간 사업으로 얻는 회보 구독료 수입으로 회보발간은 물론이고 총동창회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아직은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고 있음은 동문들께서 주지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모든 동문들께서 구독료를 납

부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광활한 미주 전역을 연결하는 재미 총동창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뜻 있는 동문들께서 관악후원 이사로서 많이 참여해 주실 것을 또한 부탁드립니다. 재미 총동창회의 집행부를 대표하여 본인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보내 주시는 후원회 이사회비는 최대한 절약사용하고 회보자립기금의 비축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려고 생각합니다. 재미 총동창회의 두번째 강산을 여는 이 시점에서는, 우리 동창회보가 명실공히 基層同門들의 힘에 의한 자조자립의 사업으로 정착하여야만 우리 한국의 지성인들의 금지에 상응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문여러분! 그간 보여주신 역량을 더욱 발휘하셔서, 우리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가 무궁한 발전을 이룰 것을 함께 소망합니다.

동문여러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마다 크게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12월 29일 서울대 재미총동창회 회장 이용락 배상

워싱턴 DC 송년회 다음날 이 회장과 DC동문들은 조찬 겸 간담회를 가졌고, 이 간담회의 목적은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와 지역 동창회간의 긴밀한 제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 교환이었는데, 진금섭 지역동창회장(약대), 이영목 차기 회장(공대), 박윤수 재미 서울대 총동창회 초대회장 내외, 방은호 평의원 내외, 곽홍 평의원 내외, 문성길 전 회장 내외, 한의생 DC 19대 회장(수의대), 변만식 전 회장(사대)등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재미 총동창회의 사업에 관하여 참석자간에 진지한 토론이 있었다.

그 주요토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재미 서울대동창회보

이용락 회장은 동창회보에 대한, 참석 동문들의 소감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부탁하였는데, 간담회 참석자들은 많은 의견을 피력하였는데 그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았다.

간담회 참석자들의 소감을 요약하면:

(가) "전문지식에 가까운 내용을 많이 게재하지 말고, 학창시절의 회고 등을 많이 게재해" 주십시오.

(나) 내 이웃에 사는 연세대 출신의 말을 인용하겠는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자기는 동창이 아니므로 신문은 받지 못하나 서울대 동문으로부터 얻어 재미 서울대동창회보를 읽고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다 읽을 가치가 있는 것들"이라는 좋은 평을 하고 있습니다.

(다) "지방소식에 있어서, 어떤 한가지 행사를 중심으로 많은 장면을 소개하는 것보다 각 지역동창회에 속해있는 여러 회원들의 동정에 대한 짝막한 내용을 많이 게재해야 독자가 많아집니다"

(라) "편집은 전반적으로 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글의 내용은 자기 집안 일을 소개하는 인상을 주는데 잘 선별해주기를 바랍니다.

(마)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는 동문 특히 관악후원회 회원들 및 100만불 모교 돕기 운동에 기부한 동문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많이 표시할 것. 예컨대 사진을 그때마다 반드시 게재할 것" 등의 의견피력이 있었다.

이에 대한 이회장은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하였다.

(가) 한국의 최고 지성인인 서울대인의 긍지를 위해서도 동문들간의 일반 소식지 이상으로 동창회보를 발전시키자는 것이 미주 서울대 총동창회 제 6대 집행부의 포부입니다. 부탁하신 대

이용락 재미총동창회 회장과 워싱턴 DC 동문 간담회(抄錄)

2001년 12월30일



간담회에 참석한 DC동문들(사진 뒷줄 좌로부터 변만식, 곽홍, 이용락 재미총동창회장, 방은호, 박윤수, 문성길 동문과 앞줄의 사모님들). 이영목 동문(차기회장)은 참석하였으나 이 사진에 없음.

로 새로운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필자로 하여금 일반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노력을 한층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 Texas에 있는 어떤 동문과 대화한 즉 이 동문도 동창회보를 한 글자도 빼지 않고 다 읽는다" 고 합니다. 이에 회보 발행인으로 동문독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다) 바로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은 요청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찬성하며 그렇게 되도록 본인과 회보편집인 그리고 우리 임원들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를 총동창회가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이 자료들을 지역동창회에서 총동창회로 제공해주시면 총동창회는 이 자료들을 종합 편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문들의 기대대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동문 각자가 필자로서, 취재기자로서, 자료공급원으로 풍요로운 재미동창회보의 발행이 되도록 요청드립니다.

(라) 편집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제 1부 본부소식, 제 2부 문필과 논고, 제 3부 동문 및 지역동창회소식으로 분류하고, 제 3부에는 모국 총동창회 소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감에 큰 힘을 얻게 됩니다.

(마) 아직까지 충분한 사진자료가 없어 파생된 문제입니다. 우선 제 5대에서 충분한 자료를 인계 받지 못한 점도 있고, 어떤 사람(사진이 있는 동문)의 것은 게재하고 다른 사람(사진이 없는 동문)은 게재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염려가 있어서 주저하는 일로 일어난 현상입니다. 이 점

을 시정하기 위하여 기획 있는 대로 동문들이 사진을 꼭 보내주실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2) 재원의 종류와 각각의 사목적

재미 총동창회에 납부하는 각종 납부금이 많으며 그것들의 내용을 분명히 모르는 동문들이 다대수이므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란다고 하였다.

이에 이회장은 회원들이 지불되는 회비에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재미 서울대학교 동창회보 구독료입니다. 현재로는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를 위한 회비는 별도로 없으므로, 그 대신 회보 구독료를 모든 회원이 납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 회보 구독료를 회원 전체가 납부하는 경우 회보발간은 물론 총동창회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동문 3,000명이 구독료를 납부하면 재미 총동창회의 최대사업인 회보발간 뿐만 아니라 사무국 운영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 3,000명 이상이 납부하는 경우 재미 총동창회는 회보발간 사업 이외의 다른 뜻 있는 보다 발전 여러가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됩니다.

그러므로 제 6대 執行部는 회보의 질적 향상을 이루어, "단지 동문이기 때문에 구독료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이 기대하는 회보로 발전시켜" 구독료를 기쁨으로 납부하는 단계로 올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하간 현재의 추세로 보면 제 6대 총동창회기의 제 1차 년도의 회기가 끝나는 2002년 6월 30일까지 구독료 납부자 수는 전년도에 비하여 25%의 구독료 납부율이 증가, 이 추세로 가면 금회계 년도에는 1,500 명의 동문

들이 구독료를 납부하시게 되려는 전망을 여러분에게 알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1차 목표액의 50%에 불과하므로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관악후원회 이사회비입니다. 관악후원회의 주요 목적은 상기와 같이 재미 총동창회의 경제적 자립의 제 1차 목표가 도달되면 장학사업, 동문복지사업 등으로 확장하는데 필요한 기금으로 사용하게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회보발간 사업자체가 자금자족이 되지 않으므로 부득이 관악후원회 이사회비는 종신이사회비를 제외하고는 전적으로 회보발간에 쓰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하루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체 동문이 회보구독료를 납부하는 일입니다.**

셋째는 본국 총동창회에 지불하는 납부금입니다. 이 납부금은 각 지역동창회의 동문 수에 비례하여 각 지역동창회에 분담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모교를 위한 100만불 기금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이 기금은 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명예회장)에서 관리하며 집행부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 방은호 평의원의 긴급동의

이상과 같은 토의와 설명을 들은 뒤에 방은호 동문께서 "이곳에 모

인 동문이라도 우선 출선 수범하여 총동창회를 돕자"는 긴급동의를 제출하여 현장에서 방은호 평의원, 문성길 직전회장, 변만식 평의원이 관악후원비를 내었으며, 이영목 차기회장, 곽홍 평의원, 한의생 DC 19대회장이 약정하였다.

이날 긴급동의로 관악후원금 납부를 권고한 방은호 동문은 실은 이미 종신 관악후원회 이사(\$3,000의 종신 이사회비를 제 5대 집행부에서 납부)이므로 제 6대 집행부뿐만 아니라 여생에 더 이상의 관악후원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추가 지원하였고 이회장은 그리고 먼길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참석하고 총 동창회의 발전을 위하여 참석하신 여러 동문들에게 사의를 표시했다.

(4) 조수미동문 음악회

D.C. 지역 동창회 주최로 개최된 음악회가 성공리에 마쳤으며 그대 제작된 CD 500 장을 총동창회에 기증한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했으며, 이 행사를 주도한 문성길 직전회장과 앞으로 이런 행사와 계획중인 모교 재학생 방미 순회공연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에 대하여 문동문은 이상 두 가지 행사는 별도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모교재학생 순회공연은 재미동문과 후배 동문들간의 유대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의 실행에는 총동창회의 재원의 동원이 필요시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술성이 높고 인정을 받고 있는 조수미 동문의 음악회도 많은 준비노력이 필요하며, 실천방안으로 재미 총동창회는 총괄적 역할을 하고, 각 지역동창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는 경우, 총동창회와 지역동창회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유망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용락 재미총동창회장에게 특별 관악후원금과 회보 구독료를 전달하고 있는 관악후원회 종신 이사 방은호 동문.

시카고지역 소식



한재은 신임회장실에서 임원회의를 하고 있는 시카고지역 동문들.

신임 한재은회장 취임후 제 1차 임원회의 개최

시카고 지역 서울대학교 동창회 (회장 한재은, 의대 65년 졸)는 구 회장단과 신 회장단간의 업무 인수인계 모임을 지난 1월 12일 오전 11시에 시카고 근교 Barrington Hills 에 소재한 한재은 신임 회장실에서 가졌다.

이에 퇴임하시는 조대현 회장 장영수 총무, 전현일 재무와 새로 취임하시는 한재은 신임 회장을 비롯하여 이승자 총무와 김영 재무간에 서류인수인계 및 지역동창회의 현안과제에 대한 의견의 교환이 있었다.

정오부터는 제1차 임원회모임이 계속하여 한재은 회장실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신임 임원 28명중 25명이 부인/부군들과 함께 참석하여 화기 넘친 분위기에 희망의 새해와 더욱더 보람있는 2002년도 동창회를 기약하며 즐거운 식사 및 다과를 나누는 후 곧 이어 한재은 회장의 주재로 진행되었다.

● 제1차 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어 안건들을 토의하고 결정하였다.

- 1) 임원 소개 및 업무 분담 - 회장
- 2) 2002년도 행사계획안 작성 - 회장
- 3) Newsletter 발간 토의 - 이승자 총무
- 4) 2002년도 예산안 작성 - 김

- 영 재무
- 5) 미주 총동창회 협조 관계 - 회장
- 6) 신임 이사 선출 토의 - 회장
- 7) 기타

토의 및 결정사항:

● 한재은 회장은 2002년에 함께 수고해 주실 **새 임원진** 명단을 다음과 같이 발표 소개하였다.

- 회장 : **韓在殷** (의대 65년 졸)
- 수석 부회장 : **장기남** (문리대 62년 입)
- 부회장 : **김동희** (공대 70년 졸)
- 황치용** (문리대 69년 졸)
- 총무: **이승자** (사대 64년 졸)
- 재무: **김영** (문리대)
- 편집: **육길원** (사대 63년 졸)
- Webmaster : **임진서** (자연대)
- 특별간사 : **조철원** (문리대 71년 졸)
- 최순분** (간호대 60년 졸)
- 김선영** (음대)
- 학생간사 : **김소영** (사대, NWU)
- 이대기** (사화대, UC)
- 정현영** (약대, UIC)
- 감사: **전현일** (농대 66년 졸)
- 이수인** (의대 63년 졸)
- 고문: **문병훈** (사대 51년 졸)
- 송재현** (의대 52년 졸)
- 이용락** (공대 53년 졸)
- 강수상** (의대 53년 졸)
- 최일주** (공대 55년 졸)
- 송순영** (문리대 52년 입)

- **박창만** (공대 60년 졸)
- 조대현** (공대 61년 졸)
- 박영규** (농대 61년 졸)
- 구경희** (의대 65년 졸)
- 김정주** (문리대 64년 졸)

● 2002년도에는 시카고에 본부를 둔 미주 총동창회 (이용락 회장)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재미서울대 동창회보를 최대한 이용하는 의미로 별도로 매년 3-4번에 걸쳐 발간하던 시카고지역 동창회보를 1회에 국한하기로 결의를 보았다. 이에 동창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라며 재미서울대 동창회보에 기재되는 시카고 동창회 소식을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구독하기 바라 마지않는다.

● 계속하여 2002년도 예산안 작성에도 진지한 토의가 있었으며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은 후에 발표될 계획이다.

● 이용락 재미서울대학 총동창회장은 계속 미주 총동창회가 자금자족으로 동창회보를 발간 배부할 수 있도록 여러 동문들의 물심양면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 한재은 회장은 현 유임이사들의 명단을 배부하고 신임 이사 약 30명을 첫 이사회에 추천하여 인준 받기 위하여 물색 추진 중에 있다고 발표하였으며 임원들의 많은 추천을 요청하였다.

2002년도 시카고지역 동창회 행사 계획안

제 1차 이사회에 상정하여 인준을 받을 2002년도 행사 계획안을 아래와 같이 채택하였다.



신임 한재은회장

- 1월 12일(토) - 제 1차 임원회 : 한재은 회장 대
- 3월 15일(금) - 제 1차 이사회 : Raddison Hotel, Lincolnwood
- 5월 11일(토) - 제 2차 임원회 : 김동희 부회장 대
- 6월 7일-9일 - 미주 총동창회 평 위원회
- 6월 16일(일) - 춘계 Golf Outing
- 6월 22일(토) - 하기 야유회 : Busse Grove #12
- 9월 7일(토) - 동문 환영회
- 9월 7일(토) - 제 3차 임원회 : 장기남 수석부회장 대
- 9월 일자 미정 - 지역사회 봉사 활동
- 9월 21일(토) - 추계 Golf Outing
- 10월 5일(토) - 제 2차 이사회
- 11월 2일(토) - 제 4차 임원회 : 황치용 부회장 대
- 11월 30일(토) - 총회 및 연말 Party



생일축하 케익을 자르는 이기억 박사 부부와 서울 문리대 시절의 제자 송순영 동문. (사진 오른쪽)

이기억 박사 팔순연

서울대학교 미 중서부지역 동창회 초대회장을 지내신 이기억 박사(문리대 47년 졸)의 팔순 만찬이 문리대 동창회의 주최 및 재미 과학기술자 협회와 시카고지역 총동창회의 후원아래 2002년 1월 11일(금) 오후 6:30에 Oak bor가 Hills Hotel 에서 80여명의 가족, 친지 및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열렸다. 재미 총동창회장 이용락 박사의 축배를 시작으로 총동창회 관악후원회 부회장이며, 이박사님의 문리대 제자중의 한 분인 송순영(문리대 52년 입)동문과 문리대 동창회장 최길용(57년 입)동문 및 밀워키 한인회장을 지내신

권중길씨의 축사와 인사말씀에 이어, 전 과거협 회장 정호박사(공대 66년 졸)의 이기억 선배님의 약력소개 후, 이기억 선배님으로부터 답사가 있었으며, 축하연을 위한 특별음악회는 정호 박사의 부인인 정명희 박사의 피아노 독주로 진행되었는데 기립박수의 앵콜을 받았다. 이날 사회는 실수가 있더라도 애교로 봐달라며 최희수(문리대 67년 입)동문이 맡았다. 그 동안 문리대 동창회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임원 여러분과 이기억 선배님의 생신연을 준비하기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신 여러 동문들께 감사드립니다. (투고자 최희수 총무)

모교소식

장기발전계획 시안 발표

로스쿨·MBA 별도 설립 의·치·수의대 전문대학원 전환

총장 임기 6년·재임 허용

모교 의대·치대·수의대가 타 전공 학사학위 소지자의 입학이 허용되는 전문대학원으로 전환되고, 법학 및 경영 전문대학원은 별도 신설될 전망이다.

모교 장기발전계획연구위원회(위원장 박희철·기획실장)는 지난 11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2~2011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시안」을 발표했다. 모교는 향후 공청회 등 학내외 자문절차를 거쳐 연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의대, 치대, 수의대 등 3개 단과대학의 기존 본과과정 전체가 전문대학원체제로 바뀐다. 의학 전문대학원의 경우 2년간의 예과를 마친 학생과 타전공 4년제 대학졸업자를 각각 일정 비율로 선발한다.

법학 전문대학원(로스쿨)과 경영 전문대학원(MBA)은 별도로 설립하되 해당 학부 및 학술 학위를 주는 대학원은 종전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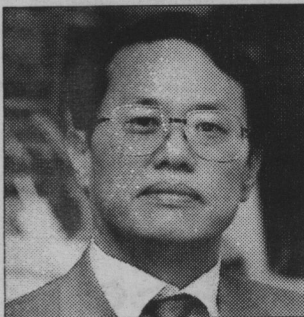
유지한다.

또 학교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4년(단임제)인 총장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며 재임도 허용한다. 총장선출방식은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2명의 후보를 선정한 뒤 정부에 추천하는 일종의 간선제와 추천위에서 선정한 후보자에 대해 학내 신임투표를 거치는 직선제 등 2가지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2년 단임 직선제인 단과대학(원)장은 연임이 가능한 3년 임기의 총장 임명직으로 변경한다.

재정운영과 평가 관련 업무의 상당부분을 대학 자원에 맡기는 독립회계제도를 도입하고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별도의 사업재단도 설치한다.

캠퍼스를 24시간 개방하고 장기적으로 외국분교 설치나 제2 캠퍼스 설립도 추진한다. 외국인 교수 및 학생비율은 10년 이내에 각각 전체의 10%와 5%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대학원장에 鄭正佶교수 선임 高健학술정보원장·許成道도서관장



鄭正佶 대학원장

지난 11월 24일자로 대학원장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鄭正佶(65년 法大卒)교수가 선임됐다.

신임 鄭대학원장은 65년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미국 미시간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68년 행정고시에 합격, 농림수산부 기획계장을 거쳐 경북대 교수, 모교 행정대학원장, 한국행정학회 회장,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자문위원장을 역임했다.

또 지난 11월 26일자로 학술정보원장에 공대 전기·컴퓨터공학부 高健(74년 工大卒)교수, 중앙도서관장에 인문대 중어중문학과 許成道(72년 文理大卒)교수가 각각 선임됐다.

신임 高학술원장은 74년 응용물리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버



高健 학술정보원장



許成道 도서관장

지니아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모교 자연대 전산학과 교수, 공대 컴퓨터공학부장 등을 역임했다.

신임 許중앙도서관장은 72년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한 후 모교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중어중문학과장을 역임한 바 있다.

모교 소식을 직접 확인하세요
<http://snu.ac.kr>

공과대학

「Vision 2001」 개최... 인터넷 강의 시연



좌로부터 林光洙동창회장, 李長茂학장, 李錫浩 前학술정보원장, 李基俊총장, 李熙範산자부 차관.



기계항공공학부 전시관.

공과대학(학장 李長茂)에서 주최한 「Vision 2001」이 지난 10월 18~24일 신공학과관 엔지니어하우스에서 열렸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고교생과 일반인에게 입시제도를 설명하고, 지난 1년간 공대 업적을 홍보했다.

18일 일진 許鎭奎(63년 工大卒)회장, 현대자동차 李忠九

(67년 工大卒)사장, 휴맥스 卞大圭(83년 工大卒)사장 등 공대 출신 CEO 초청 강연을 시작으로, 19일 李長茂학장의 개회사로 공대 교육·연구 결과 전시회 및 산업체 홍보 전시회의 개막식을 가졌다.

이날 개막식에는 본회 林光洙 수석부회장(공대동창회장)을 비롯해 모교 李基俊총장, 산업자원부 李熙範(71년 工大卒)차

관 등이 자리하여 축사를 했다.

19~20일 이틀간 열린 전시회에는 공대 6개 학부(기계항공공학부, 응용화학부, 재료공학부, 전기공학부, 컴퓨터공학부,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4개 학과(건축학과, 산업공학과, 원자핵공학과, 조선해양공학과)와 공학 관련 연구소 및 우수연구센터가 참여해 다양한 연구업적과 연구결과물을 전시했다.

특히 입시설명회에 그쳤던 작년과는 달리 올해는 도교대 공대 학장인 히로시 코미야마 교수 초청세미나, 미시건·옥스포드·모교 공대의 「인터넷을 이용한 외국대학과의 공동강의」 시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번 「Vision 2001」 행사는 공대 교수들과 재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행사로 더욱 발전하는 공대의 참모습을 접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참가자들에게 공학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고 미래를 설계하는 모교 공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뜻깊은 행사였다.

한편 지난 10월 19일 엔지니어하우스에서 공대 출신 1백여명의 인사로 구성된 「모교 공대 발전자문협의회」가 출범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공대의 발전 방향, 교육 목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미식축구부

서울 대학선수권대회 우승 차지



모교 미식축구부(Green Terror·단장 李鎭濟교수)가 지난 11월 11일 서울시립대 운동장에서 열린 2001 추계 서울지역 대학미식축구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연세대를 50대 6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모교 미식축구부는 지난 1999년 춘계 서울지역 우승을 거둔 이후 2년만에 우승기를 탈환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남성남(95년 農生大卒)감독이 우수감독상을, 유대준(농생대 생물자원공학부 4년)선수가 우수수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모교 미식축구부는 지난 1965년 농대에서 창단된 이후 서울 지역 대회에서 17번의 우승, 9번의 준우승을 기록했으며, 2000년 제41회 전국대학 대회에서 준우승을 거뒀다.

복싱부

전국 동아리 대회 1위

모교 복싱부(지도교수 全泰源)가 지난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모교 체육관에서 제1회 전국대학 아마추어 복싱동아리 연합대회를 개최했다.

모교를 비롯해 고려대, 한국외대, 경희대, 경찰대, 전남대,

인천전문대 등 7개 대학 복싱동아리에서 12체급에 걸쳐 총 47명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에 모교에서 11명이 출전해 전원이 금메달 4개, 은메달 6개, 동메달 1개를 획득, 종합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또 국어국문학과 3학년인 홍주영군이 최우수상을, 장광일코치가 지도자상을 받아 모교의 위상을 드높였다.

이번 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본회에서 복싱 링 설치비로 5백만원을 전달한 바 있다.

재학생 25명으로 구성된 있는 모교 복싱부는 지난 10월 18일 관악캠퍼스 체육관 옆에 복싱관을 개관했으며 천인호 감독, 장광일 코치 등이 자원봉사 형태로 지도하고 있다.

규장각

「예술과 정보의 만남」 전시

규장각(관장 鄭玉子)은 지난 10월 16~31일까지 1층 전시실에서 개교 55주년 기념 「예술과 정보의 만남」 특별전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학술적 가치와 예술성을 겸비한 고지도, 의궤(儀軌), 서예, 회화, 음악, 전각 등 예술관련자료 80여종이 선보였다. (變)

동 정

수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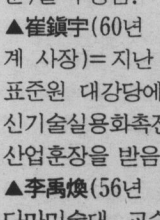
▲柳達永(36년) 水原高農卒·성 천문화재단 이사장= 지난 11월 26일 신라호텔에서 인제인성대상 운영위원회가 수여하는 제3회 인제인성대상을 수상함.



▲邊衡尹(51년) 商大卒·서울사회경제연구소장= 지난 11월 13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제50회 서울특별시 문화상(인문사회과학부문)을 수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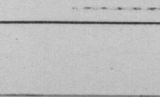
▲韓相泰(55년) 醫大卒·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 명예사무처장= 지난 11월 17일 모교 보건대학원 강당에서 열린 제26회 보건학 종합학술대회에서 대한보건협회가 수여하는 제15회 보건대상(공로부문)을 수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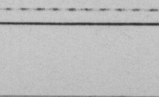
▲李御寧(56년) 文理大卒·중앙일보 고문= 지난 11월 13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제50회 서울특별시 문화상(문학부문)을 수상함.



▲閔庚甲(57년) 美大卒·예술원 회원= 지난 11월 13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제50회 서울특별시 문화상(미술부문)을 수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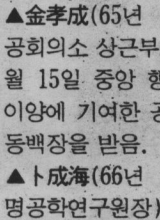
▲崔鎮宇(60년) 工大卒·삼원기계 사장= 지난 11월 1일 기술 표준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5회 신기술실용화추진대회에서 동탑산업훈장을 받음.



▲魏聖復(64년) 商大卒·조흥은행 회장= 지난 11월 3일 한국 인사관리학회가 수여하는 제4회 경영자대상을 수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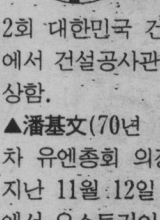
▲崔相哲(64년) 行大院卒·모교 환경계획학과 교수= 지난 11월 13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제50회 서울특별시 문화상(건설부문)을 수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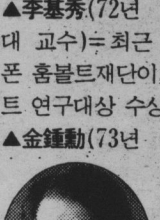
▲金孝成(65년) 法大卒·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지난 11월 15일 중앙 행정업무의 지방이양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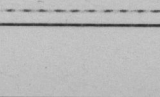
▲李種福(66년) 美大卒·포름디자인 회장= 지난 10월 13일 열린 경기 여고총동창회 「동창의 날」 행사에서 영매상을 수상함.



▲崔勳(67년) 工大卒·대우건설 전무= 지난 12월 4일 르네상스호텔에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수여하는 제2회 대한민국 건설대상 시상식에서 건설공사관리상 금상을 수상함.



▲潘基文(70년) 文理大卒·제56차 유엔총회 의장 비서실장= 지난 11월 12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오스트리아 정부가 수여하는 「대훈장」을 받음.



▲林文奎(72년) 工大卒·대우조선 전무= 지난 11월 1일 기술 표준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5회 신기술실용화추진대회에서 철탑산업훈장을 받음.

▲李基秀(72년) 大學院卒·고려대 교수= 최근 독일 알렉산더 폰 훔볼트재단이 수여하는 훔볼트 연구대상 수상자로 선정됨.

▲金鍾勳(73년) 工大卒·한미파슨스 대표= 지난 12월 4일 르네상스호텔에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수여하는 제2회 대한민국 건설대상(건설경영부문)을 수상함.

▲金道賢(76년) 自然大卒·한국해양기술 대표= 지난 12월 4일 르네상스호텔에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수여하는 제2회 대한민국 건설대상 시상식에서 건설기능상 금상을 수상함.

▲柳明姬(76년) 自然大卒·한국과학기술연구원 단백질연구단장= 지난 11월 13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제50회 서울특별시 문화상(생명과학부문)을 수상함.

▲林憲政(76년) 音大卒·모교 작곡과 교수= 지난 11월 29일 소피텔 엠베서더호텔에서 파라다이스문화재단이 제정한 제9회 우경문화예술상을 수상함.

▲成百麟(77년) 藥大卒·연세대학교 교수= 최근 대한민국학술원 강당에서 한탄생명과학재단으로부터 제5회 한탄생명과학상을 받음.

▲洪承湧(83년) 大學院卒·해양수산부 차관= 지난 11월 2일 해양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해양학회로부터 공로상을 받음.

▲崔煥英(84년) 保大院卒·대한한의사협회장= 지난 11월 15일 경희대로부터 「2001년도 경희인상」을 수상함.

▲許 埴(85년) 美大卒·전남대학교 교수·한국화가= 지난 10월 20일 문예회관 대극장에 열린 문화의 날 기념식에서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받음.

▲金在哲(4기 AMP·한국무역협회 회장)= 지난 10월 31일 벨기에 국왕으로부터 한·벨기에 간 경제협력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레오폴드2세 훈장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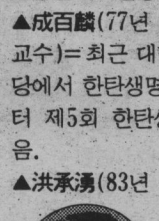
▲安福鉉(41기 AMP·제일모직 사장)= 지난 11월 3일 건국대에서 한국재무관리학회 주최로 열린 제1회 재무경영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함.



▲朴仁浩(43기 ACAD·한국물관리연구소 이사장)= 최근 환경보존운동가로서 「깨끗하고 청결한 등산로 만들기」 운동 등을 전개한 공로로 국민훈장을 받음.



▲李商淳(56년) 工大卒·前롯데건설 사장= 지난 11월 24일 주택·부동산 전문 언론사인 주택문화사 회장에 취임함.



▲金一熙(56년) 農大卒·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부 회장= 지난 10월 23일 개최된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상임위원회에서 임기 3년의 제24대 회장에 재선됨.



▲權泰竣(62년) 法大卒·모교 환경계획학과 교수= 지난 11월 12일 서울시장개발연구원 제5대 이사장에 선출됨.



▲洪剛義(65년) 醫大卒·제주대



▲鄭年(65년) 文理大卒·前 YTN사장·관동대 교수= 지난 11월 13일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고문에 위촉됨.

편집주긴석

아듀 2001!

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간 동문들께서 모교의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기울여주신 성원과 애정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동창회 살림의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숙과 내실화를 기하는 데 역점을 둔 한 해였습니다. 올해의 회무를 요약보고 드린다면 첫째, 장학사업을 중심으로 한 모교 재학생과 교수 지원은 차질없이 예정대로 시행되었으며(5억원) 둘째, 동창회보는 미주판(7천부)을 포함해 인쇄회보가 9만7천부로 증대된 한편 e-mail을 통해 발송되는 On-line 회보인 e-bulletin 8만부가 새로 추가됨으로써 동문간 가교가 더욱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셋째, 재정안정을 위한 기금증대 목표는 경제·사회적 어려움과 여건의 미성숙으로 목표치에는 미달했으나, 다소간의 흑자(약 3억원)는 이뤄지리라 예상됩니다.

넷째, 2002년 6월경 발간 배포가 예정되어 있는 「서울대 인명록」 편집·제작사업 역시 준비단계를 거쳐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모교와 동창회, 각급 동창회간의 만남도 격의없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나 자평해 봅니다.

그러나 아쉬움도, 부족함도 없지 않았나 생각하기에 내년의 분발을 다짐하면서, 동문들께 더욱 가깝고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동창회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회무 보고를 통해 송년 인사를 드릴 수 있음을 기쁘게 생각 하면서 다시 한번 동문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동·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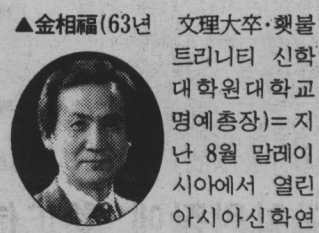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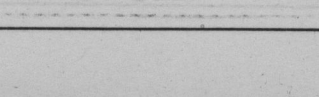
▲具平會(51년) 文理大卒·LG그룹 창업고문·本會 顧問= 지난 11월 29일 한미친선단체인 사단법인 한미협회 제4대 회장에 취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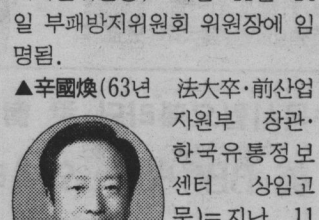
▲趙光秀(53년) 醫大卒·前성남병원 종합검진센터 과장= 최근 안산제일병원 산업의학연구소장에 선임됨.



▲張錫錫(55년) 醫大卒·모교 명예교수= 최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제9차 아시아대양주 산부인과연맹 이사회에서 부회장에 선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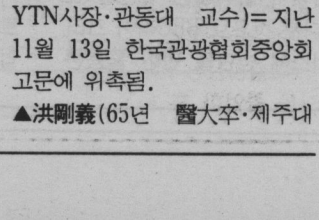
▲金相福(63년) 文理大卒·햇빛트리티 신학대학원대학교 명예총장= 지난 8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시아신학연맹(ATA) 총회에서 임기 3년의 회장에 재선임됐으며, 지난 10월 태국에서 열린 아시아복음주의연합회(EFA) 총회에서 회장에 선출됨.



▲金聖男(63년) 法大卒·前반부패특별위원장은 지난 11월 24일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됨.



▲辛國煥(63년) 法大卒·前산업자원부 장관·한국유통정보센터 상임고문= 지난 11월 19일 하이닉스구조조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내정됨.



▲李容環(64년) 工大卒·KTF 사장= 지난 11월 19~20일 미국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정보통신위원회(ICT) 창립 총회에서 창립위원에 선임됨.



▲陰龍基(64년) 商大卒·이노티브 대표= 지난 12월 11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사대 부고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제18대 회장에 선출됨.



▲鄭年(65년) 文理大卒·前 YTN사장·관동대 교수= 지난 11월 13일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고문에 위촉됨.





의대 학장)=
지난 11월 1일
제주대 의대 부
속병원 초대 원
장에 취임함.



▲高興吉(66년 文理大卒·국회
의원)= 지난
11월 19일 국
회 방 송
(NATV) 자문
위원회 위원에
위촉됨.

▲李永德(66년 文理大卒·조선
일보 논설위원)= 지난 11월 19
일 국회방송(NATV) 자문위원
회 위원에 위촉됨.

▲鄭津澤(66년 商大卒·몰렉스
코리아 사장)= 지난 12월 12일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커
넥터산업협회 창립총회에서 초
대 회장에 선출됨.

▲李康國(67년 法大卒·대법원
대법관)= 지난
11월 5일 법원
행정처장에 임
명됨.

▲宋錫亨(68년 文理大卒·SBS
편성본부장)= 지난 11월 14일
SBS 보도본부장에 선임됨.

▲辛東午(68년 文理大卒·중소
기업청 차장)= 지난 11월 13일
한국무역협회 자회사인 한국무
역정보통신(KTNET) 사장에
임명됨.

▲朴明珍(69년 文理大卒·모교
언론정보학과
교수·本報 論
說委員)= 지난
11월 19일 국
회 방 송
(NATV) 자문
위원회 위원에 위촉됨.

▲申英秀(69년 醫大卒·모교 의
료관리학교실 교수)= 지난 11
월 3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장
에 내정됨.

▲安國正(70년 文理大卒·SBS
제작본부장·本
報 論說委員)
= 지난 11월
14일 SBS 편
성본부장에 선
임됨.



▲梁建(70년 法大卒·한양대
법대학장)= 지난 11월 19일 국
회방송(NATV) 자문위원회 위
원에 위촉됨.

▲李秀一(70년 法大卒·한국감
정원장)= 지난
11월 24일 국
가정보원 제2
차장에 임명
됨.

▲李景台(70년 商大卒·대외경
제정책연구원
장)= 지난 11
월 22일 경제
협력개발기구
(OECD) 대사
에 내정됨.

▲嚴洛鎔(71년 法大卒·금융연
구원 연구위
원)= 지난 11
월 9일 법무법
인 우방 비상임
고문에 선임
됨.

▲韓惠洙(71년 商大卒·유엔경
제협력개발기구 대사)= 지난 11
월 13일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
서관에 임명됨.

▲宋仁誠(71년 醫大卒·모교 내
과학교실 교
수)= 지난 11
월 23일 워커
힐호텔에서 열
린 대한소화기
병학회 총회에

서 초대 이사장에 선임됨.
▲鄭漢化(71년 大專院卒·덕성
여대 교수)=
지난 11월 9일
열린 한국응용
약물학회 정기
총회에서 제7
대 회장에 선
출됨.

▲金仁圭(73년 文理大卒·KBS
뉴미디어본부
장·本報 論說
委員)= 지난
11월 19일 국
회 방 송
(NATV) 자문
위원회 위원에 위촉됨.

▲金宅坤(73년 文理大卒·MBC
보도국장)= 지난 11월 19일 국
회방송(NATV) 자문위원회 위
원에 위촉됨.

▲全聖喆(73년 文理大卒·세종
대 부총장)=
지난 11월 17
일 무역위원회
위원장에 임명
됨.

▲鄭正浩(73년 師大卒·중앙대
교수)= 최근 성균관대에서 열린
「문학과 환경학회」 제1회 학술
대회 및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
장에 선출됨.

▲鄭智澤(74년 商大卒·두산 IT
담당 사장)= 지난 11월 1일 두
산의 창업투자회사인 네오플릭
스캐피탈 공동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됨.

▲李允浩(74년 醫大卒·모교 성
형외과학교실
교수)= 지난
11월 24일 모
교 병원 삼성암
연구동에서 열
린 대한화상학
회 학술대회 및
총회에서 제3대
회장에 선출됨.

▲李南基(76년 大專院卒·SBS
보도본부장)= 지난 11월 14일
SBS 제작본부장에 선임됨.

▲金重謙(77년 人文大卒·대통
령 치안비서
관)= 지난 11
월 15일 충남
경찰청장에 임
명됨.

▲李明祐(77년 人文大卒·삼성
전자 상무보)= 지난 10월 31일
소니코리아 사장에 선임됨.

▲許準坪(77년 醫大卒·육군 의
무감)= 지난 11월 13일 국군의
무사령부 제34대 사령관에 취임
함.

▲黃尙翼(77년 醫大卒·모교 의
사학교실 교
수)= 지난 11
월 10일 공식
출범한 전국교
수노동조합 초
대 위원장에 선
출됨.

▲申澈永(78년 工大卒·부천경
실련 대표·경실련 상임집행위원
회 부위원장)= 지난 11월 10일

▲金在淳(51년 商大卒·샘터사
고문·도산아카
데미연구원 이
사장·本會 會
長)= 지난 11
월 9일 힐튼호
텔 컨벤션센터
에서 「2001 도산의 밤」 행사 및
「도산연구상」 시상식을 가짐.

▲崔鍾起(54년 法大卒·한국국
제관계연구소
이사장)= 지난
11월 24일 비
엔나에서 열린
국제평화연구소
총회에 참석,
남북한 관계에 관해 연설함.

▲李鎬汪(54년 醫大卒·학술원
회장)= 지난
11월 16일 학
술원 대회의실
에서 「한국문
학작품의 외국
어 번역 상황과
개선방향에 대한 고찰」 등을 주
제로 정책토론회를 가짐.

▲孫一根(51년 法大入·한국일

대통령 부인 李姬鎬여사 금일봉 전달... 동창회 활성화 격려



본회 고문인 대통령 부인 李姬鎬(50년 師大卒)여사(사진)가 지난 11월 30일 본회에 동창회 연회비로 금일봉을 전달

했다.
올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동창회의 연회비 납부율이 저조한 상태임을 인지하고, 동창회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모교 사랑을 실천하는 숭선수범을 보였다.
李여사는 지난 95년부터 매년 동창회 큰 행사에 금일봉을 전달함으로써 모교 발전은 물론 동창회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제5대 사무총장에 선출됨.

▲高光南(80년 人文大卒·YTN 보도국장)= 지난 11월 19일 국회방송(NATV) 자문위원회 위원에 위촉됨.

▲金用盛(84년 社會大卒·前맥킨지 서울사무소 파트너)= 지난 11월 1일 두산의 창업투자회사인 네오플릭스캐피탈 공동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됨.

▲李泰炯(87년 自然大卒·전문 우주기획 사장·대전시민천문대장)= 최근 한국아마추어 천문학회 회장에 선출됨.

▲金成洙(2기 SGS·前경기도 정무부지사)= 지난 11월 1일 한국자유총연맹 제6대 사무총장에 취임함.

행사·출간

▲金在淳(51년 商大卒·샘터사 고문·도산아카데미연구원 이사장·本會 會長)= 지난 11월 9일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2001 도산의 밤」 행사 및 「도산연구상」 시상식을 가짐.

▲崔鍾起(54년 法大卒·한국국제관계연구소 이사장)= 지난 11월 24일 비엔나에서 열린 국제평화연구소 총회에 참석, 남북한 관계에 관해 연설함.

▲李鎬汪(54년 醫大卒·학술원 회장)= 지난 11월 16일 학술원 대회의실에서 「한국문학작품의 외국어 번역 상황과 개선방향에 대한 고찰」 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짐.

▲孫一根(51년 法大入·한국일

보 상임고문·경원대 겸임교수·本會 常任副會長)= 지난 10월 30일부터 보름간 업무연

락차 미주지역을 다녀옴.
▲閔丙峻(56년 師大卒·한국광고주협회장·국제로타리 3650 지구 총재·本會 副會長)= 지난 11월 16~17일 하얏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40년차 2001~2002 지구대회를 가짐.

▲尹銘重(57년 文理大卒·한국 언론인포럼 회장)= 지난 11월 14일 한국 언론재단 목련실에서 중앙일보 金永熙 대기

자를 초청, 「반 테러 전쟁, 어디까지?」라는 주제로 오찬 특별강연회를 가짐.

▲閔庚玄(57년 師大卒·풍문여고 이사장)= 지난 11월 19일 중국 북경공업대학 부속중학교와 자매결연식을 갖고

인적·문화교류를 갖기로 함.
▲李吉女(57년 醫大卒·경원대 총장·민주평통 여성부의장·醫大同窓會長)= 지난 11월 8일 신라호텔 다이

너스티홀에서 통일연구원 徐丙喆(63년 文理大卒)원장, 여성부 韓明淑장관을 초청, 민주평통 서울지역 여성자문위원을 대상으로 통일안보 정세보고회를 가짐.

▲鄭宗澤(58년 法大卒·충청대학 학장·本會 副會長)= 지난 11월 20일 모교 농생대에서 그린랩 프환경

교육연합 환경

교육연합 환경

뉴욕시립오페라단 尹 衡동문 英 BBC방송 오페라 주역 맡아

뉴욕시립오페라단 단원인 尹 衡(91년 音大卒·바리톤)동문(사진)이 영국 BBC방송과 올 크리스마스에 방송될 TV 오페라 「아델과 저녁에 찾아온 손님」의 아시안 왕인 「펠키우르」역을 맡아 최근 녹음을 마쳤다.



이 오페라는 미국의 현존 오페라 작곡가 지안 카를로스 메노티의 작품으로 지난 1951년 미국에서 첫선을 보였으며 올해는 작품 발표 50주년을 맞아 영국에서 제작된 것이다.

소재의 오페라라는 판단하에 제작하게 된 것이라고.
이 오페라에는 현재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과 라 보엠을 공연 중인 성악가 패트리시아 라셋도 함께 출연하며, 내년에도 PBS에서도 방송될 예정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랜시스카 이암벨로가 감독을 맡아 리바이벌한 「아델과 저녁에 찾아온 손님」은 가난한 가정의 소아마비 아들과 그 어머니 사이에서 벌어지는 극진한 효를 다룬 것으로 BBC측이 크리스마스에 방영될 만한 훌륭한

尹동문은 성악가 尹致昊(66년 音大卒·명지대 객원교수) 동문의 아들로 보스턴 음대 대학원과 커티스 뮤직 인스티튜트에서 박사과정을 올 A로 졸업했다. (變)

지도자대학 3기생을 대상으로 「녹색환경의 나라건설」을 주제로 강연함.

▲金英勳(59년 法大卒·승실대 교수·대한환경문제연구소장) = 지난 11월 30일 국립의료원 스칸디나비아클럽 회의실에서 도갑수 박사를 초청, 「자원순환형 사회구조를 위한 환경정책」을 주제로 학술발표회를 가짐.

▲李昌九(60년 師大卒·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 지난 11월 12~17일 수험생과 학부모가 교육내용과 과정을 체험하고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전국 62개 전문대학에서 「제1회 전문대학의 날」 행사를 개최함.

▲金亨圭(64년 音大卒·한양대 교수·한국피아노협회회장) = 최근 오스트리아 IPA사에서 베토벤 피아노협주곡 3, 4번을 연주해서 담은 새 음반을 발매함.

▲金準次(63년 音大入·서울챔버앙상블 음악감독·피아니스트) = 지난 11월 26일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바이올리니스트 김경아(서울챔버앙상블 악장)

씨와 듀오 리사이틀을 가짐.

▲金春玉(68년 美大卒·한국화 여성작가회장) = 지난 11월 17~25일 서울 시립미술관 본관, 12월 11~16일 일본 삿포로 오오도리 미술관에서 「자연 - 생성과 소멸」이라는 주제로 한·일 국제교류전을 가짐.

▲鄭蓮姬(68년 美大卒·뉴욕 전업작가) = 지난 11월 8~21일 서울 사간동 갤러리 현대에서 미지의 세계를 향한 여행과 영적인 초월을 향한 비상을 주제로 초대전을 가짐.

▲金勳東(69년 農大卒·신용보증기금 감사) = 지난 11월 20일 수원 호 텔리젠시에서 시집 「역새꽃」(화성 미디어刊) 출판기념회를 가짐.

▲鄭昭盛(69년 文理大卒·단국대 교수) = 지난 11월 24일 경원대에서 열린 한국소설학회 주최 「소설 창작법」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함.

▲申尙澈(70년 法大卒·고전문

화회의 원장) = 지난 11월 7일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학담스님을 초청, 「신명명 시대와 생활禪」이라는 주제로 제30회 관문논단을 가짐.

▲全京秀(71년 文理大卒·모교 인류학과 교수·비교문화연구소장) = 지난 11월 14일 모교 관악캠퍼스 사회과학대학 시청각실에서 남캐롤리나내 칼 하이다 교수를 초청, 「인류학 교육에서 영상자료의 활용」이라는 주제로 제66회 비교문화연구소 집담회를 가짐. 또 11월 27일 「전통문화를 이어가는 사람들의 생활세계」를 주제로 제67회 집담회를 개최함.

▲尹賢珠(71년 音大卒·모교 성악과 교수) = 지난 11월 29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독창회를 개최, 말리의 가곡 「어린이의 이상한 빨피리」 등을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함.

▲申東宇(75년 工大卒·아주대 교수·한국건설관리학회 회장) = 지난 11월 10일 모교 신공학관에서 정기 학술발표대회 및 총회

를 개최함.

▲朴明潤(76년 保大院卒·한국청소년연구소 이사장·한국과인트리클럽 총재·冠岳會理事) = 지난 11월 30일 명지대 鮮于仲皓(63년 工大卒)총장에게 「청소년 지도 장학금」으로 3천만원을 전달함. 또 지난 11월 24일 청담동 한복나라 강당에서 한국과인트리클럽 창립 43주년 기념회와 소년소녀가장 장학금 전달식을 가짐.

▲房基天(81년 工大卒·남서울대 교수·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회장) = 지난 11월 23일 천안대에서 「21세기 지식정보화 산업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기술」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가짐.

▲辛秀卿(84년 音大卒·한일장신대 교수) = 지난 11월 8일(대전 가톨릭문화회관), 17일(광주 드림아트홀), 20일(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 24일(서울 영산아트홀) 피아노 독주회를 열어 슈만, 베토벤, 프로코피에프 등의 작품을 선보임.

▲金紋廷(93년 音大卒·동덕여대 겸임교수) = 지난 11월 28일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헨델, 베토벤, 로흐베르크, 슈만 등의 작품으로 피아노 독주회를

가짐.

▲鄭然東(48기 AMP·한전KDN 사장) = 지난 11월 17일 서초동 한전아트센터 대극장에서 黃樹寬박사를 초청,

「신바람나면 살맛납니다」를 주제로 신바람 기업경영에 관한 강연회를 가짐.

▲朴明緒(27기 ACAD·경기대 교수·한국통일안보학회 회장) = 지난 11월 13일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언론재단과 공동으로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남북관계와 언론」이라는 주제로 연례학술회의를 가짐.

▲金泰完(44기 ACAD·민족통일불교협의회 의장) = 지난 11월 8일 민주평통 사무처 회의실에서 열린 민주평통 종교위원회 주관 「국민화합 증진을 위한 국교인의 역할」 세미나에서 사회를 맡아 진행함.

▲朴尙東(2기 EPHPM·동서한방병원장·EPHPM동창회장) = 지난 11월 4일, 11일 양일간 제22회 서울특별시장

기 국민생활체육 축구대회 및 2001년 서울특별시장애 어린이 축구대회에 구급 의료진을 파견해 무료진료를 실시했으며, 지난 11월 1일 경희대 한의과대학 예과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의학의 발전과 전망」 및 「난치병과 만성질환의 한방치료」에 대해 강의함.

▲金鎭淳(4기 EPHPM·구고한의원장·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장) = 지난 11월 9~16일 스페인 마드리드와 갈라시아에서 환자 5천여 명에게 의료봉사 활동을 펼침.

(정리= 安興燮기자)

新刊

■想念의 오솔길

—朴鵬培 著



한국국어 교육연구원 朴鵬培(53년 師大卒·한글학회 이사) 원장이 지난 40여 년간 발표했던 글들을 모아 수필집을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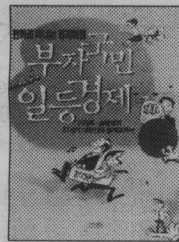
차동문은 우리 삶을 놓고, 삶의 의미를 놓고, 그렇게 애쓰거나 피부림을 놓고,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을 비추보고, 산다는 것을 음미해 보고 또 이 모저모로 생각해 보는 「사색의 오솔길」이 수필이라고 정의하면서 지난날 보고 듣고 느꼈던 斷想 40여 편을 담았다고. <학예문화사刊·값8,000원>

■부자국민 일등경제

—宋丙洛 원저

·李元馥 글/그림

모교 경제학부 宋丙洛(63년 商大卒)교수와 덕성여대 산업미술학과 李元馥(66년 工大入·본보 논설위원)교수가 콤비를 이뤄 경제 이야기를 만화로 풀어쓴 「만화 경제학」을 펴냈다. 이 책은 1989년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후 「한국 한국인 한국 경제」 「국제화 시대의 세계 경제」에 이어 두 교수의 네 번째 공동저

서이다. 宋교수는 『자본주의에 살면서도 시장경제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글로벌 시대에 세계 경제의 흐름에 어두운 사람들을 위해 쓴 책』이라고 말했다. 李교수는 『시장경제를 택한 우리가 이념의 정체성을 찾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파이를 키우기보다 우선 갈라먹자는 강박관념 때문에 시장원리가 무시되는 경향의 문제점을 이 책에서 지적했다』고 말했다. <김영사刊·값8,900원>

■상생의 사이버

—정각사회

—許信行 著



농림수산부 장관을 역임한 許信行(66년 農大卒·서울시 농수산물공사 사장) 동문이 미래학 연구서를 펴냈다.

許동문은 이 책에서 相生相滅과 대칭의 원리에 따라 「지

식사회」는 「산업사회」의 짝궁으로서 이미 상멸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전개될 미지의 새로운 사회는 「사이버사회」와 함께 상생할 「正覺社會(깨달음의 사회)」가 될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범우사刊·값12,000원>

■피부질환의 최첨단 레이저 치료술

—申昌植 著



아로마·벨 피부과 의원 申昌植(76년 醫大卒) 원장이 일간스포츠를 비롯한 각종

신문지상에 발표했던 건강칼럼과 피부 치료와 관련된 기사화 된 자료들을 한 권에 담았다. 반점, 기미, 주근깨, 검버섯, 주름살, 문신 등의 제거술과 깨끗하고 탱탱한 피부 만드는 방법 등 레이저를 이용한 피부질환 치료법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건강신문사刊·값10,000원>

公演

■申敏定 피아노 독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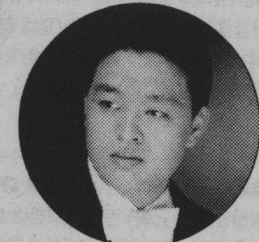
—12월 22일 예술의 전당



피아니스트 申敏定(89년 音大卒·그리스도신학대 강사)동문(사진)이 오는 12월 22일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프 로코피에프, 김대성, 슈베르트 등의 작품으로 피아노 독주회를 갖는다. <공연문의: 예인 예술기획 586-0945>

■李碩堧 호른 독주회

—12월 24일 예술의 전당



KBS 교향악단 수석 단원인 李碩堧(95년 音大卒)동문(사진)이 오는 12월 24일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귀국 호른 독주회를 열어 보로딘, 슈만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공연문의: 예인예술기획 586-0945>

華燭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화촉을 밝힐 동문을 소개한다.

- 고석배(92년 師大卒)군·최아정 양=12월 15일 12시 30분.
- 이문규(99년 工大卒)군·이세희 양=12월 15일 15시 30분.
- 오철우(90년 人文大卒)군·이정숙 양=12월 16일 12시 30분.
- 정종호(98년 師大卒)군·류인숙 양=12월 22일 14시.
- 박승희(96년 師大卒)군·곽선희 양=12월 23일 12시 30분.
- 송치영(00년 醫大卒)군·신지수 양=1월 12일 14시.
- 정재오(94년 法大卒)군·이수영 양=1월 13일 14시.

동창회보 구독료 지부별 납부 현황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1년 7월 1일 ~ 2002년 6월 30일

| 지역 번호 | 지부명 | 명 단 |
|-------|-----------------------------|---|
| 01 | 남가주 | 237 박상호(의대 65입) 정근희(의대 72입) 강일선(약대 44입) 김대우(치대 62입) 이양숙(치대 31입) 조성윤(법대 46입) 김원호(약대 63입) 서재섭(상대 53입) 김창신(사회대 79입) 추춘득(공대 69입) 한 일(의대 75입) 권혁창(법대 57입) 유진형(상대 48입) 유동희(공대 77입) 정동호(공대 53입) 최혜명(미대 61입) 박경순(간호대 53입) 전희택(의대 60입) 김중자(사범대 61입) 김수백(치대 48입) 박범순(가정대 70입) 김상호(사범대 52입) 배윤범(치대 66입) 이범식(\$100, 공대 61입) 이소희(간호대 47입) 강배영(상대 54입) 최명통(음대) 신우식(치대) 박진득(농대 67입) 김정애(간호대 69입) 김동훈(의대 71입) 김정화(미술대 63입) 이상구(상대 57입) 윤용길(공대 55입) 한태호(문리대 75입) 김태웅(의대 63입) 김동석(음대 64입) 전낙관(사범대 60입) 이정열(간호대 68입) 김상엽(공대 57입) 강명식(의대 61입) 이동휘(공대 63입) 탁의용(상대 58입) 이상학(공대 59입) 박제인(약대 60입) 원영배(미술대 74입) 정동구(공대 57입) 이재선(농대 58입) 이범모(치대 74입) 이동일(의대 68입) 이완규(공대 54입) 박남수(문리대 74입) 오인근(약대 59입) 서정빈(법대) 이정근(사범대 60입) 박부강(사범대 64입) 이재우(음대 60입) 양은혁(상대 56입) 이해란(미술대 72입) 하여희(간호대 54입) 문일영(음대 66입) 김죽봉(문리대 53입) 임용오(의대 57입) 신광재(공대 73입) 김준일(공대 62입) 이광연(상대 59입) 윤경민(법대 55입) 김동의(법대 57입) 김성혜(음대 71입) 이흥표(의대 60입) 윤한돈(치대 69입) 김진호(의대 60입) 이정규(농대 69입) 김영기(의대 54입) 추교훈(농대 63입) 강신호(사범대 49입) 심진숙(간호대 68입) 주훈(음대) 김의창(의대 56입) 정전걸(의대 49입) 김선명(공대 75입) 조용명(치대 54입) 최준호(치대 58입) 김동신(법대 59입) 차민영(의대 78입) 권처균(공대 51입) 배재호(공대 58입) 정동주(가정대 72입) 이계식(공대 78입) 김용재(문리대 61입) 남정우(치대 48입) 나병철(자연대 84입) 이대영(의대 68입) 김세담(법대 55입) 김창성(약대 44입) 김순덕(법대) 김지익(의대 44입) 고용규(의대 67입) 박혜란(음대 73입) 이기풍(상대 54입) 김석기(상대 56입) 박순(음대 44입) 김정협(치대 59입) 윤병인(의대 64입) 심영준(수의대 64입) 김생철(법대) 오양숙(의대 60입) 공성식(경영대 89입) 김재영(농대 62입) 강동순(법대 59입) 김종표(법대 58입) 이효경(치대 63입) 이상휘(농대 66입) 신한경(약대 56입) 심상운(상대 54입) 정동구(공대 61입) 이승우(농대 67입) 구자란(농대 72입) 박계영(공대 57입) 강정진(문리대 60입) 구철희(의대 78입) 박태호(치대 66입) 김성환(의대 71입) 최복영(사범대 56입) 이호준(공대 55입) 정현진(간호대 72입) 김인영(공대 58입) 안승호(공대 71입) 민경탁(의대 61입) 신대식(상대 60입) 정원훈(상대 38입) 이현세(법대 68입) 이실홍(의대 42입) 박명근(상대 63입) 우원섭(치대 65입) 이건설(치대 54입) 홍진(간호대 55입) 한종철(치대 62입) 최영순(간호대 69입) 이상호(의대 72입) 이기준(법대 54입) 하기환(공대 66입) 이종도(간호대 73입) 정기정(상대 69입) 박선희(가정대 81입) 이종도(공대 66입, \$100) 신정식(상대 64입) 노명호(공대 61입) 김옥자(음대 56입) 이기재(사범대 52입) 김연선(미대 57입) 이영송(치대 63입) 전병희(약대 55입) 장진성(약대 66입) 권중건(치대 65입) 김설희(공대 71입) 박영근(상대 56입) 최종권(문리대 59입) 김기은(음대 66입) 이환진(상대 68입) 임재영(공대 59입) 김용일(보건대학원 65입) 허영석(미대 67입) 김현경(치대 56입) 최승룡(상대 53입) 장대욱(음대 57입) 이영식(농대 59입) 김승철(사범대 56입) 김해인(가정대 69입) 박인희(간호대 67입) 서중용(공대 57입) 박정모(문리대 66입) 정복근(사범대 69입, \$100) 한영옥(치대 56입) 김동호(치대) 이병국(수의대) 신인자(문리대 59입) 박철(법대 64입) 김원탁(공대 65입) 이정재(수의대 45입) 김대평(문리대 63입) 권대원(대학원 59입) 임낙균(약대 64입) 윤용기(의대 64입) 문원철(사범대 59입) 이영주(치대 62입) 박인하(치대 56입) 장정용(미대 64입) 김은희(치대 50입) 이호일(의대 60입) 박호웅(약대 63입) 권봉성(문리대 64입) 오수남(의대 55입) 김희재(사범대 66입) 김태윤(법대 53입) 박일진(치대) 서동영(사범대 60입) 최태순(간호대 59입) 권순철(치대) 신동규(수의대 76입) 임선영(음대 57입) 임민빈(상대 58입) 김교복(농대 63입) 이동성(의대 53입) 이열재(법대 53입) 김성웅(농대 70입) 엄세욱(간호대 69입) 서관석(미대 67입) 허영진(문리대 62입) 양명교(의대 55입) 이수복(약대 70입) 홍주안(공대 66입) 김흥기(사범대 58입) 문덕수(공대 73입) 이근섭(상대 56입) 정광진(농대 76입) 최여선(치대 45입) 김재신(음대 60입) 박취서(약대 60입) 강영빈(문리대 58입) 임택선(공대 52입) 김광근(치대 59입) 오길평(치대 61입) 김진호(약대 64입) 강항운(농대 52입) 이규호(문리대 59입) 신정자(사범대 63입) 권길상(음대 46입) 김용삼(음대 49입) 윤진수(의대 57입) 장동석(문리대 66입) 전동희(공대 58입) 김광은(음대 56입) 김원경(약대 59입) 정황(공대 64입) 최숙규(간호대 65입) 김석구(공대 66입) |
| 02 | | 1 김항자(약대 61입) |
| 03 | 샌프란시스코 | 6 김이호(상대 55입) 황동하(의대 65입) 정유석(의대 58입) 정지선(상대 58입) 정주웅 김은종(상대 59입) |
| 04 | 뉴욕 (NY, NJ, PA 일부 CT) | 174 차국만(상대 56입) 이영재(상대 58입) 윤영섭(의대 63입) 정택수(문리대 45입) 양순우(법대 71입) 김정빈(약대 54입) 장태환(의대 61입) 정연희(미대 64입) 유우영(\$100, 공대 66입) 서병선(음대 65입) 장기선(약대 61입) 홍선경(의대 58입) 임서태(법대 46입) 김정준(의대 52입) 이영숙(간호대 56입) 김종용(의대 67입) 송관호(의대 58입) 손영철(공대 68입) 양성훈(의대 71입) 이진수(의대 63입) 김호연(의대 46입) 강영선(공대 50입) 이유찬(의대 58입) 임공세(의대 63입) 조규웅(의대 66입) 김종원(사범대 62입) 김석식(의대 56입) 박찬명(약대 57입) 허병렬(사범대 42입) 권오근(상대 62입) 김용재(의대 60입) 최형무(법대 69입) 최종진(의대 58입) 김훈일(공대 60입) 조대영(공대 61입) 강효(음대 63입) 박소희(의대 49입) 고석원(문리대 60입) 이문자(간호대 70입) 조은래(법대) 이태석(공대 69입) 문길용(음대 45입) 이정은(의대 58입) 최윤희(문리대 56입) 이상근(의대 60입) 김영철(의대 55입) 임건식(음대 54입) 정인식(상대 58입) 김원복(문리대 50입) 이재진(의대 59입) 양명자(사범대 63입) 원도수(치대 68입) 김해임(의대 58입) 한용호(법대 52입) 장병희(의대 56입) 이기택(농대 56입) 이기영(농대 70입) 김경순(상대 57입) 서재숙(음대 65입) 전병삼(약대 54입) 51명 \$2,550 김현기(공대 62입) 최창식(의대 61입) 김종울(사범대 51입) 이국진(사대 51입) 윤순철(사범대 44입) 이종성(의대 58입) 변찬의(상대 63입) 유재섭(공대 69입) 박상원(음대 69입) 김영덕(공대 53입) 김희국(약대 54입) 민만기(공대 62입) 정진우(의대 72입) 노용민(의대 55입) 이종호(의대 63입) 강재현(상대 70입) 이연진(공대 52입) 선우문(의대 60입) 김세환(공대 65입) 최한용(농대 58입) 탁명양(의대 56입) 황문하(수의대 76입) 김충진(농대 68입) 김상각(상대 57입) 윤갑석(공대 53입) 김우영(상대 60입) 이형순(미대 60입) 김승관(의대 76입) 윤정옥(약대 50입) 김자익(의대 71입) 이정애(미대 57입) 이영연(상대 58입) 장소현(농대 80입) 윤인숙(간호대 63입) 변광록(간호대 63입) 백영복(간호대 69입) 김병술(약대 52입) 이재택(법대 60입) 조상근(법대 69입) 조달훈(사범대 66입) 노경희(간호대 66입) 김석권(법대 61입) 반영철(약대 64입, \$100) 박경원(미대 66입) 최영태(문리대 67입) 정시열(법대 55입) 이성길(치대 66입) 허선형(의대 58입) 임은진(농대 46입) 이준우(의대 55입) 임종오(문리대 63입) 김순자(약대 63입) 호민선(상대 59입) 이시진(문리대 58입) 김규화(상대 63입) 이정순(법대 53입) 송기인(의대 60입) 정일화(상대 55입) 박창의(농대 64입) 백윤자(간호대 64입) 이상수(공대 60입) 신혜봉(약대 55입) 홍준호(의대 67입) 조종수(공대 64입) 이재원(법대 60입) 서중용(약대 70입, \$100) 이경림(상대 64입) 손완배(농대 70입) 조경호(의대 66입) 성기호(약대 57입) 신규호(의대 68입) 이종오(의대 58입) 변영석(의대 65입) 이병희(의대 60입) 최일단(미대 55입) 박영태(상대 63입) 박순영(법대 56입) 조충열(의대 60입) 조성무(공대 56입) 김옥현(의대 59입) 서상철(의대 56입) 유호근(법대 71입) 김광호(의대 72입) 허병렬(사범대 42입) 한승원(미대 60입) 이종현(의대 60입) 서홍석(의대 65입) 김일하(치대 58입) 민발식(의대 66입) 최휘웅(문리대 64입) 신정택(약대 52입) 이준우(음대 65입) 정현진(법대 63입) 백승원(의대 73입) 민준기(공대 59입) 석창호(의대 66입) 한영수(의대 61입) 유숙현(간호대 61입) 남일우(법대 57입) 윤현남(공대 63입) 장영자(간호대 68입) 전희근(의대 54입) 조희재(음대 58입) 박승균(의대 55입) 김장수(약대 64입) 남상래(간호대 65입) 차대웅(상대 54입) 최영혜(간호대 64입) 박장생(의대 54입) 이상민(문리대 58입) 홍정표(음대 67입) 주성문(의대 58입) 이찬서(자연대 82입) 박선선(공대 61입) |
| 05 | 시카고(IL, IN, WI, MO, MI, OH) | 127 장재찬(의대 59입) 강태수(의대 65입) 문경웅(의대 67입) 홍혜례(사범대 72입) 김정수(문리대 69입) 김정주(문리대 64입) 신영규(의대 37입) 주명순(간호대 64입) 설상수(문리대 56입) 정우철(의대 55입) 전영선(간호대 75입) 문병훈(사범대 46입) 하정윤(치대 81입) 양홍미(약대 67입) 서운석(의대 62입) 김원정(의대 69입) 이한중(의대 61입) 마동일(의대 57입) 김이순(공대 56입) 진순금(간호대 64입) 송용재(의대 63입) 한성수(의대 56입) 박정일(의대 61입) 황규정(의대 65입) 박영준(문리대 67입) 이윤모(농대 37입) 박숙(의대 64입) 김현서(문리대 69입) 임영신(의대 52입) 임동숙(간호대) 이기익(문리대 47입) 이광선(의대 65입) 이종일(의대 71입) 엄무광(문리대 61입) 지명식(사대 65입) 박준철(공대 66입) 최순강(음대 65입) 이원호(의대 59입) 윤석환(치대 62입) 한의일(공대 62입) 한동하(의대 58입) 이상일(의대 54입) 김윤태(의대 63입) 윤봉수(간호대 73입) 황현상(의대 55입) 권순희(간호대 78입) 김동수(공대 48입) 계명수(의대 69입) 장홍(문리대 61입) 이백기(의대 58입) 김형수(농대 68입) 김태기(의대 68입) 안창현(의대 55입) 이진주(문리대 55입) 진보린(약대 56입) 이관정(공대 73입) 김용우(공대 58입) 이수인(의대 56입) 장시경(약대 58입) 정영숙(사범대 63입) 안은식(문리대 55입) 장세곤(의대 57입) 허서룡(의대 60입) 김건(문리대 63입) 한재은(의대 59입) 김봉현(법대 51입) 이민우(의대 67입) 원종수(의대 69입) 배영삼(의대 54입) 이명자(간호대 60입) 한경희(간호대 67입) 이기춘(의대 42입) 정길화(의대 65입) 김장구(의대 65입) 장재찬(의대 59입) 이태안(의대 67입) 최해숙(의대 33입) 김일훈(의대 51입) 이규달(의대 68입) 임근식(문리대 56입) 위장호(의대 67입) 한영화(의대 57입) 박봉수(공대 59입) 표양순(간호대 71입) 장병호(의대 66입) 조철영(의대 75입) 김인수(상대 60입) 이민선(미대 70입) 최용소(공대 60입) 임현재(의대 59입) 강영국(수의대 67입) 소진문(치대 58입) 유태임(교육대 67입) 김용성(상대 54입) 고병철(법대 53입) 정승규(공대 60입) 장윤일(공대 60입) 강창만(의대 58입) 구경희(의대 59입) 계훈택(의대 55입) 송재현(의대 48입) 배건재(공대 53입) 이덕수(문리대 62입) 이철주(치대 77입) 전영자(미대 58입) 남상우(공대 52입) 고영철(의대 45입) 이영웅(의대 62입) 김택수(의대 63입) 조현원(약대 54입) 박장훈(공대 66입) 정남재(사범대 56입) 이범석(의대 57입) 임재일(농대 64입) 이정일(농대 57입) 장기남(문리대 62입) 김정일(의대 57입) 서상현(\$100, 의대 71입) 조중원(의대 63입) 조영재(상대 68입) 김봉주(사대 72입) 차광순(사대 70입) 최동규(법대 79입) 이윤락(공대 48입) 이승자(사범대 60입) 임이선(\$100, 미술대 54입) 손기문(의대 68입) |

동창회보 구독료 지부별 납부 현황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1년 7월 1일 ~ 2002년 6월 30일

| 지역 번호 | 지부명 | 명 단 |
|--------------|-------------------|---|
| 06 | 워싱턴 DC (MD, VA) | 67 이영목(공대) 박영일(농대 69입) 이재승(의대 55입) 도상철(의대 63입) 오혜현(약대 59입) 방은호(약대 42입) 조근실(사범대 40입) 조병선(의대 71입) 마계일(치대) 한혜경(간호대 43입) 심준보(상대 55입) 문성길(의대 63입) 이정균(미술대 77입) 이항열(법대 57입) 주일(의대 46입) 문세화(법대 57입) 엄승용(농대 57입) 오기창(법대 50입) 김석호(공대 78입) 고무환(법대 57입) 김창호(법대 56입) 이정섭(의대 48입) 박명영(의대 66입) 조남현(의대 64입) 김충규(의대 60입) 이신규(\$100, 공대 63입) 김창웅(법대 60입) 김진홍(의대 68입) 장병규(사회과학대 76입) 이내원(사범대 58입) 박형순(의대 60입) 김국(농대 75입) 곽대조(음대 64입) 박영호(공대 64입) 홍영석(공대) 김택경(의대 54입) 신상규(의대 52입) 조인욱(간호대 71입) 최동현(문리대 50입) 장효강(공대 66입) 김수웅(문리대) 이근순(간호대 73입) 강준희(의대 71입) 윤개일(약대 60입) 김재구(의대 56입) 전경철(공대 55입) 소속영(간호대 64입) 이홍석(공대 49입) 변만식(사범대 49입) 정재성(의대 68입) 임필순(의대 54입) 김기환(공대 67입) 박성대(문리대 71입) 신영철(의대 53입) 진금섭(약대 57입) 김효성(공대 51입) 이형모(의대 45입) 유영준(의대 68입) 정두현, 석규범(문리대 61입) 박인영(의대 69입) 정약후(의대 49입) 이정희(의대 59입) 오광동(공대 52입) 맹옥열(간호대 68입) 이선구(\$100, 문리대 65입) 이규선(상대 68입) |
| 07 | 워싱턴주 (WA) | 17 전병택(상대 69입) 이대원(사범대 58입) 송세창(상대 53입) 전계상(공대 40입) 김재호(상대 54입) 유성렬(공대 72입) 맹병규(문리대 70입) 이순모(공대 56입) 이동립(의대 52입) 황수택(의대 65입) 이해숙(문리대 64입) 김영일(공대 53입) 양용관(수의대 62입) 채태용(법대 55입) 윤재명(의대 65입) 김봉오(법대 74입) 김장태(문리대 53입) |
| 08 | 휴스턴 (HOUSTON, TX) | 15 김성철(의대 61입) 김학래(공대 60입) 이옥배(문리대 62입) 이찬주(공대 63입) 김영창(공대 64입) 박진수(의대 58입) 이은실(문리대 53입) 현인실(공대 57입) 최광욱(문리대 73입) 최관일(공대 54입) 이진현(의대 67입) 이규진(의대 60입) 함호자(음대 62입) 박승규(의대 59입) 김태훈(공대 57입) |
| 09 | 달라스 (DOLLAS, TX) | 5 신철영 강성호(수의대 81입) 전중희(공대 56입) 김인호(공대 47입) 임성빈(사범대 56입) |
| 10 | 미네소타 (MN) | 13 권승림(공대 52입) 남세현(공대 67입) 박상빈(공대 71입) 남세현(공대 67입) 김태환(의대 58입) 최정음(공대 58입) 신학철(공대 75입) 김권식(공대 61입) 문일지(공대 61입) 조형준(문리대 62입) 변우진(인문대 81입) 왕규현(의대 56입) 주한수(농대 62입) |
| 11 | 조지아 (GA) | 16 이철남(의대 50입) 사성주(\$100, 사범대 70입) 윤민자(음대 65입) 주중광(약대 60입) 유우영(의대 68입) 장병건(대학원 64입) 김만복(문리대 72입) 한영수(의대 54입) 이관호(공대 45입) 은철수(상대) 백낙영(상대 61입) 조덕성(공대 71입) 박천기(법대 56입) 이준남(의대 59입) 계광무(공대 63입) 오경호(농대 60입) |
| 12 | 아리조나 (AZ) | 4 최상호(공대 53입) 박양세(약대 48입) 이은수(경영대학원 73입) 진명규(공대 70입) |
| 13 | 유타 (UT) | 3 한성양(문리대 62입) 김성완(문리대 59입) 손홍용(공대 58입) |
| 14 | 하와이 (HI) | 9 백영기(의대 50입) 유재호(\$100, 문리대 59입) 구해근(문리대 60입) 오갑열(행정대학원 75입) 박성재(상대 49입) 남궁종(공대 52입) 황재만(농대 71입) 김창원(공대 49입) 김용진(공대 50입) |
| 15 | 오레곤* (OR) | 8 김선호(사범대 59입) 박창성(사범대 72입) 박희진(문리대 57입) 김상순(상대 67입) 김상만(음대 46입) 성성모(사범대 67입) 최동근(문리대 50입) 이태호(문리대 61입) |
| 16 | 기타 (서부) | 6 최원열(상대 56입) 서만길(의대 63입) 이학은(약대 57입) 홍지호(공대 53입) 박용호(의대 59입) 김현철(의대 57입) |
| 17 | 기타 (중부) | 2 이회백(의대 55입) 유태준(의대 59입) |
| 18 | 기타 (동부 & 캐나다) | 10 한광수(의대 57입) 오신중(의대 60입) 정양수(의대 60입) 정구영(의대 50입) 박종선(공대 60입) 오인석(법대 59입) 박준홍 정병욱(의대 59입) 조동립(의대 56입) 이종진(공대 55입) |
| 19 | 필라델피아 (PA) | 25 이규호(공대 56입) 염극용(의대 60입) 윤정나(음대 57입) 정덕순(상대 63입) 정학량(약대 56입) 서중민(공대 64입) 김현영(수의대 58입) 남신우(공대 61입) 김용국(의대 58입) 임광상(공대 57입) 심관섭(의대 73입) 이광연(공대) 윤석희(치대 68입) 주기목(수의대 68입) 안지영(문리대 71입) 구정음(의대 55입) 오진석(치대 56입) 김영우(공대 55입) 신성식(공대 56입) 문상규(의대 62입) 서진석(의대 62입) 최환(공대 68입) 양은택(의대 58입, \$100) 이기범(의대 56입) 전방남(상대 73입) |
| 20 | 뉴잉글랜드 (MA) | 22 최인섭(의대 72입) 김재호(상대 56입) 김호영(약대 52입) 김교인(의대 59입) 박현자(음대 62입) 채도경(의대 59입) 강길원(의대 59입) 강경식(문리대 55입) 윤상태(수의대 62입) 박병준(공대 52입) 김양일(경영대) 이재신(공대 57입) 김문수(농대 61입) 변희경(음대 66입) 문대옥(의대 73입) 문형성(의대 65입) 정용국(공대) 박기순(간호대 70입) 김경석, 배성호(의대 65입) 노안규(의대 52입) 김순규(문리 53입) |
| 21 | 하트랜드 | 15 류광현(문리대 58입) 박옥동(상대 56입) 관우환(문리대 52입) 신두식(의대 58입) 오태요(의대 56입) 오계숙(미대 59입) 임하진(약대 79입) 민경환(의대 56입) 유준혜(의대 70입) 박세희(의대 76입) 이상강(의대 70입) 김경숙(가정대 70입) 설원종(의대 60입) 구명순(간호대 66입) 이상문(상대 57입) |
| 22 | 펜실바니아 | 5 박문희(의대 52입) 이목인(공대 75입) 홍수웅(의대 59입) 심기련(상대 57입) 심재철(공대 78입) |
| 특별기부금 | | 2 (고) 전시봉 동문의 미망인 \$ 50, Mrs. 안광원 \$ 82 |
| 계 | | 789 \$40,132 |

미주관악후원회 이사회비 납부 현황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1년 7월 1일 ~ 2002년 6월 30일

| 지역 번호 | 지부명 | 후원이사(후원금) | 납부인원 | 합 계 |
|----------|---------------------------------|---|------|----------|
| 01 | 남가주 | 이병준(3,000) 전희택(3,000) 이정광(1,500)김동석(200)박성민(200)김성희(200) 서동영(200) 조만연(300) 정인환(200) 오길평(200) | 10 | 9,000 |
| 02 | | 김향자(200) | 1 | 200 |
| 03 | 샌프란시스코 | | | |
| 04 | 뉴욕(NY, NJ, PA 일부 CT) | 방준재(250)이준평(500)이기영(200)김상각(500) 이기형(200) 이명희(200) 이대영(200) 김영덕(200) 함창섭(200) 이운수(200) 조대영(200) 최영태(200)김용화(200) 이문휘(200) 이재원(200) 이재덕(200) | 16 | 3,850 |
| 05 | 시카고 (IL, IN, WI, MO, MI, OH) | 김광주(200)김후법(200)송재현(200)문병훈(200)성홍환(250) 최일주(500) 김기태(200) 임현재(1,000) 임근식(500) 소진문(350) 신석균(300) 최길용(300) 강영국(300) 김병윤(200) 최희수(200) 황치용(200) 조대원(200) 정승규(200)임춘수(500) 장기남(500) 이정일(200) 최호승(200) 이용락(5,000) 시카고 지역동창회(4,000) 송수영(1,000) 한재은(1,000) 구경희(300) 조중형(500) 박영규(300) 전현일(200) 김현욱(200) | 31 | 19,900 |
| 06 | 워싱턴 DC (MD, VA) | 변만식(200)문성길(200) 이영목(200)방은호(250)신상균(200)장효강(200) 전신애(미연방정부 노동성장관실 여성국장 500) 진금섭(200) 권철수(500) 박윤수(1,000) | 10 | 3,450 |
| 07 | 워싱턴주 | | | |
| 08 | 휴스턴 | 김정훈(200) 탁순덕(250) | 2 | 450 |
| 09 | 달라스 | 김옥균(200) | 1 | 200 |
| 10 | 미네소타 | 권승립(200) 김태환(500) 이정재(200) | 3 | 900 |
| 11 | 조지아 | 김용건(200) | 1 | 200 |
| 12 | 아리조나 | 오덕겸(300) 박성숙(300) | 2 | 600 |
| 13 | 유타 | | | |
| 14 | 하와이 | | | |
| 15 | 오레곤 | 김상순(200) 정태훈(200) 조충훈(200) | 3 | 600 |
| 16 | 기타1(서부) | | | |
| 17 | 기타2(중부) | | | |
| 18 | 기타3(동부 & 캐나다) | 정구영(200) | 1 | 200 |
| 19 | 필라델피아 | 이정필(200) 김현영(200) 현재원(200) 이상봉(200) 정정수(200) | 5 | 1,000 |
| 20 | 뉴잉글랜드 | 김인수(200) 윤상태(200) 변화경(300) | 3 | 700 |
| 21 | 하트랜드 | 류광현(200) 이상문(200) 지역동창회(500) 김용환(200) | 4 | 1,100 |
| 22 | 중부펜실바니아 | | | |
| 일반 이사 합계 | | | 93 | \$42,350 |
| 종신 이사 합계 | | | | |
| 총 계 | | | 93명 | \$42,350 |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관악 후원금 납입현황

(2001년 12월 21일~1월 18일)

종신이사

강영빈, 박경민, 박병기
방은호, 서영석, 심상은
오인석, 오홍조, 윤선홍
이교락, 이기영, 이병준
이세열, 이진구, 이청광
정 태, 전희택

300달러이상

이병준(상대 55입) \$3,000

300달러이하

방은호(약대 42입) \$250
김향자(약대 61입) \$200
변만식(사범대 49입) \$200
문성길(의대 63입) \$200
이영목(공대) \$200
김정훈(공대 46입) \$200
권승립(공대 52입) \$200
김상순(상대 67입) \$200
정태훈(공대 67입) \$200
이정필(의대 58입) \$200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백만달러 기금 납입 현황

(2001년 12월 21일 ~ 1월 18일)

Anchor-Donor (2만달러 이상:약정)

- 방은호 (워싱턴 DC. 약 42입)
- 윤정옥 (뉴욕. 약 50입)
- 김영덕 (뉴욕. 공 53입)
- 이병준 (남가주. 상 55입)
- 김병수 (뉴욕. 상 55입)
- 최수용 (뉴욕. 상 55입)
- 유창남 (뉴욕. 의 58입)
- 오인석 (뉴욕. 법 58입)
- 이전구 (뉴욕. 농 60입)
- 임낙균 (남가주. 약 64입)

3,000달러이상

1,000달러이상

300달러이상

300달러이하

- 강영빈 (문 58입) \$250
- 이양숙 (치대 31입) \$200
- 도운희 (농대 61입) \$200

1백만불 기금 지부별 입금 현황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0년 7월 1일 ~ 2002년 6월 30일

| 지역 번호 | 지부명 | 후원이사(후원금) | 납부인원 | 합계 |
|----------|---------------------------------|---|------------|-------------------|
| 01 | 남가주(CA) | 이양숙(200) 정인환(200)권길상(100)한상철(333,400) 이병준(20,000) 심상은(1,000) 조용명(500) 임낙균(500) 이명선(300) 박취서(200) 이종열(200) 이강훈(150) 임택선(100) 김옥권(100) 권기상(100) 이정재(100) 신동국(100) 김일영(100) 유병원(100) 도영미(100) 황성우(100) | 21 | 357,650 |
| | | 박우선(200) | 1 | 200 |
| 03 | 샌프란시스코 | 김양주(300) | 1 | 300 |
| 04 | 뉴욕 (NY, NJ, PA 일부, CT) | 김석식(100)진성호(19,400) 추재옥(10,000) 오인석(20,000) 김병수(7,000) 최수용(5,000) 김영덕(5,000) 윤정옥(5,000) 이전구(4,000) 황관일(1,500) 김진승(1,000)허리훈(1,000) 허선행(500) 이준행(500) 강영선(500) 김용재(500) 이기범(500) 이재진(500) 변찬의(500) 김상각(300) 홍선경(300) 이경림(300) 방준재(300)주의돈(300) 남상래(300) 조성준(300) 김기훈(250) 박승서(250) 이기형(200)김연석(200)동형근(200) 리준국(150) 황진환(100) 조대영(100) 허병렬(100) 심기려(100) 유진형(50) 소진문(100) 임춘수(200) 이영락(1,000) 조영재(300) 정태, 최호승(500) 배영섭(200) 전영자(200) 임춘수(200) 강영국(200) 박중수(200) 구자원(200) 이기춘(200) 김윤태(100) 문병훈(100) | 37 | 86,350 |
| 05 | 시카고 (IL, IN, WI, MO, MI, OH) | 지역동창회(1,875)방은호(5,000) 이규삼(150)박윤수(1,000) 박용걸(100) 오인환(200) 김창호(50) 장병규(50) 이선명(50) | 15 | 4,700 |
| 06 | 워싱턴 DC(MD, VA) | 지역동창회(1,875)방은호(5,000) 이규삼(150)박윤수(1,000) 박용걸(100) 오인환(200) 김창호(50) 장병규(50) 이선명(50) | 9 | 8,475 |
| 07 | 워싱턴주(WA) | | | |
| 08 | 휴스턴(HOUSTON, TX) | 박승균(300) 유금용(100) 김충열(200) 박민자(100) | 4 | 700 |
| 09 | 달라스(DALLAS, TX) | 김인호(200) | 1 | 200 |
| 10 | 미네소타(MN) | 변우진(100) 김태환(300) 왕규현(100) 변우진(100) 남세현(100) | 5 | 700 |
| 11 | 조지아(GA) | 장병건(100) | 1 | 100 |
| 12 | 아리조나(AZ) | 박양세(100) 박양세(200) | 1 | 300 |
| 13 | 유타(UT) | | | |
| 14 | 하와이(HI) | | | |
| 15 | 오레곤(OR) | 이태호(100) 익명(300) | 2 | 400 |
| 16 | 기타(서부) | | | |
| 17 | 기타(중부) | 강영빈(500)이희백(1,000) | 2 | 1,500 |
| 18 | 기타(동부&캐나다) | 한광수(333.33) | 1 | 333.33 |
| 19 | 필라델피아 (PHILADELPHIA, PA) | 정정수(500) 서중만(1,000) 이정필(800) 정정수(500) 한혜원(300) 현재원(300) 정홍택(300) 강형진(200) 윤경숙(100) 정구영(100) | 10 | 4,100 |
| 20 | 뉴잉글랜드(MA) | 도운희(200) 이재신(3,000) 아금하(200) 정태진(100) 김재호(100) | 5 | 3,600 |
| 21 | 하트랜드 | 오태요(500) 김명자(500) 이상문(250) 배한홍(100) | 4 | 1,350 |
| 22 | 펜실바니아 | | | |
| | 특별 후원금 | 간호대동창회(13,560) 모교동창회/모교순방단(3,000) 임광수 서울대총동창회부회장(5,000) 한규남(유화1점: 현재 경매 중) | 4 | 21,560 |
| | 총 계 | | 123 | 492,468.33 |

약정하신 동문들

| | 후원이사<후원금> | 납부인원 | 합계 |
|--------------|---|----------------|----------------------------|
| 현금 약정 | 방은호(워싱턴 DC/\$20,000약정 \$5,000납입) 서동영(남가주/\$100,000:생명보험 중 일부) 윤정옥(뉴욕/\$20,000중 \$5,000납입) 임낙균(남가주/\$20,000약정) 김영덕(뉴욕/\$20,000중 \$5,000납입) 김병수(뉴욕/\$20,000중 \$7,000납입) 최수용(뉴욕/\$20,000중 \$5,000납입) 이전구(뉴욕/\$20,000중 \$4,000납입) 유창남(20,000약정) 강영빈(기타 중부/\$500중 \$500 납입) 강경식(뉴잉글랜드/생명보험 중 일부) | 11명 (7명 납입) | \$260,500 (\$31,000 납입) |
| 기타 | 방은호(유증) 김태환(유증) 정태 | 3명 | |
| 총 합 계 | | 130명 | 720,968.33 |

조수미 CD 주문서

조수미 CD 'Love from Washington' 주문서 (8-25-01 Washington DC 공연 실황 녹음)

구입자 성명: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구입 수량 및 금액: CD _____ 개 총액 \$ _____ (우송료 포함)
 수표는 Payable to SNUAAUSA *가격: 1장 당 \$15.00 (우송료 별도)
 우송료는 1장 당 \$3.00, 복수 구입시 추가 1장 당 \$1.00 추가

*주문서를 기입하여 CD대금과 우송료를 합계하여 재미동창회 사무국으로 보내 주십시오.

SNUAAUSA
 790 BUSSE ROAD,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전화: 847-981-1464, Fax: 847-981-1465

* 판매대금 전액은 재미 동창회를 위한 관의후원금과母校의 後進을 위한 基金에 적립됩니다.

절취선

재미 동창회보의 발전을 위한 동문독자 여론조사 설문서

이번 8월부터 이곳 시카고에서 발간할, 재미 동창회보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설문으로 독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잠깐 시간을 내셔서 설문에 응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꼭 회송하여 주십시오

- I) 지금까지 동창회보를 우편으로 받으신 후 (택일)
- 1) 그냥 받아두고 잘 읽지 않는다()
 - 2) 눈으로 일별하고 밀쳐둔다()
 - 3) 흥미있는 기사가 있으면 즉시 읽어본다()
 - 4) 시간상 당장 읽지 않더라도 보관했다가 꼭 다시 찾아 읽는다()
 - 5) 시간 나는대로 게재내용을 거의 다 읽는다.()

II) 동창회보를 읽으시는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분 ()시간 정도

- III) 어떤 내용의 기사를 유심히 읽어보십니까 (여러 항목에 표시셔도 됩니다)
- 1) 동창회 사업계획 보도기사나 공지사항()
 - 2) 본국 동창들의 동정, 소식()
 - 3) 미국 내 동창들의 개인/지부 활동소식(소속지역)()
 - 4) 타지역 동창회 소식()
 - 5) 동문들이 투고한 기사 및 column()

IV) 일반 신문잡지에서 어떤 분야들에 관한 기사를 관심있게 읽으십니까?

- V) 지금까지 받으신 동창회보의 내용 구성에 대하여 (택일)
- 1) 만족한다()
 - 2) 좀 부실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 3)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 4) 내용이 실망적이어서 읽을 흥미가 없었다()

<작성 동문>

성명: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e-mail: _____

Fax: _____

II) 동창회보가 각 분야에 종사하시는 동창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쓰는 기획기사를 연재한다면, 어떤 분야의 주제가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야를 쓰셔도 좋고 가능한 자세하게 기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 1) _____
 - 2) _____
- VII) 현재 기획중인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하여, 전문가의 분석기사를 동창회보에 게재하는 데에 찬성하시면 O, 반대하시면 X표를 해 주십시오
- 1) 남북한 관계와 통일에 관한 국제 정세()
 - 2) 한국교육문제에 장래와 서울대학교의 역할()
 - 3) 기타 자연과학, 기술분야에 대한 읽고 싶으신 주제에 대한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VIII) 동창회보 편집위원회에서 집필의뢰를 하면 응하시겠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어째서 그러십니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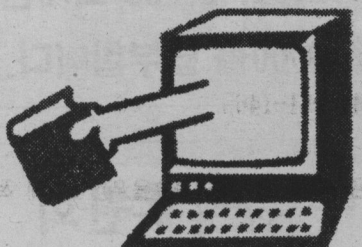
IX) 미주동창회에서 동창회를 빛내는 전문적 업적을 성취하신 동문을 초청하여 지역을 순회하는 강연회를 개최하는(Distinguished Alumni Lecturership) 것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 1) 예()
- 2) 아니오()

X) 내용있고 수준있는 동창회보를 만들기 위하여 동문 개개인들이 크고 작은 소식이나 의견을 수시로 보내주시면 앞찬 동창회보 발간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기타 충고의 말씀이 있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의견란

한국의 대형 서점을 내 방안에



25만여종 / 풍부한 서평 / 최고 40% 할인

AladdinUS.com Internet Korean Bookstore

T323.692.9888 • F323.692.9952 • I888.338.8480 • 4282 Wilshire Blvd., 2fl. LA, CA 90010

AladdinUS.com 이형렬(국문 79입) 송명국(국사 81입) 윤장희(경영 83입) 최경희(사회 83입)

| 재미 총동창회 지부회장 / 동창회보 지국장 명단 | | 총무 / 동창회보 지국장 |
|----------------------------|-----------------------------------|---|
| 지부 | 회장 | |
| 뉴욕 | 한창섭 B:212-594-0493 H:201-848-8665 | 김종율 B:914-714-0587 F:914-686-0186 |
| 남가주 | 이정광 B:626-795-7988 H:818-888-9772 | 김지영 B:213-532-3600 H:818-952-5606 |
| 샌프란시스코 | 정조용 | 임승래 B:415-777-1133 H:510-537-5369 |
| 시카고 | 한재은 B:841-741-7990 H:847-428-4929 | 이승자 B:773-553-1930 H:847-564-5948 |
| 뉴잉글랜드 | 이재신 B:508-577-9424 H:508-923-0031 | 변종원 B:508-366-2743 H:508-389-1760<ext.3038> |
| 조지아 | 김재철 B:770-944-2775 H:770-579-5615 | 문종현 B:770-409-8844 H:770-449-0301 |
| 미네소타 | 김필주 B:651-730-6203 H:651-436-5642 | 남세현 B:651-733-7287 H:651-768-8939 |
| 워싱턴 DC | 진금섭 B:703-205-8064 H:703-631-0631 | 김 국 B:703-304-2129 H:703-830-7979 |
| 워싱턴주 | 허윤환 B:360-683-4195 H:360-683-4197 | 고희선 B:425-673-7258 H:425-787-0292 |
| 휴스턴 | 김영창 B:713-431-6071 H:713-859-8182 | 변중무 B:713-743-9301 H:713-783-3178 |
| 달라스 | 이병규 B:817-251-8789 H:972-304-0748 | 강성호 B:972-570-0234 H:214-496-9393 |
| 아리조나 | 최윤근 B:480-967-9461 H:602-502-9988 | 권형욱 B:520-624-8254 H:520-624-8254 |
| 하와이 | 정재훈 B:808-951-7242 H:808-926-6089 | 정광수 B:808-956-7653 H:808-395-1678 |
| 유타 | 한성양 B:801-272-7444 H:801-485-2065 | 황선중 B:801-582-1695 H:801-582-1695 |
| 오레곤 | 라재관 B:503-696-3422 H:503-645-5550 | 정성국 B:503-226-6467 H:503-524-7741 |
| 필라델피아 | 강영배 B:610-623-8560 H:610-651-7834 | 주기욱 B:215-745-9030 F:215-745-3055 |
| 하트랜드 | 이상문 B:402-472-3915 H:402-483-0221 | 배규영 B:816-524-7414 H:913-345-2396 |
| 중부펜실베이니아 | 이수경 B:814-833-1587 H:814-234-5529 | 이 옥 B:814-862-0494 |
| 캐나다/온타리오 | 이이병 B:416-385-0107 H:416-250-6908 | 정순교 B:416-512-1833 H:905-884-4306 |
| 캐나다/밴쿠버 | 황태규 B:604-433-8539 | 박병우 B:604-570-0803 H:604-420-7034 |
| 캐나다/에드먼튼 | 정기진 B:780-437-7669 | |

동문 사업제 안내

| | | | | | |
|---|---|--|--|---|--|
| <p>광업</p> <p>Pusan Pipe America 이병준(상 55입) (562)692-0600 Sant Fe Springs, CA</p> <p>골프용품</p> <p>New York Golf Center 이진구(총 60입) (212)564-2255 New York, NY</p> <p>공인회계사</p> <p>Young Sik Oh Cpa 오영식(법 72입) (201)569-1177 Englewood Cliff, NJ</p> <p>이법선(상 48입) 이경림(상 64입) (212)768-9144 New York, NY</p> <p>Young Tail Choi EA 최영태(문 67입) (212)695-0206 New York, NY</p> <p>Delloitte & Touche LLP 김낙구(상 67입) (213)688-5585 Los Angeles, CA</p> <p>Wesley Y Chung 정일화(상 55입) (212)736-6590 New York, NY</p> <p>이규섭(상 68입) CPA, CFA (703)642-2900 Annandale, VA</p> <p>공익사업</p> <p>IBECONS INT'L 김재철(공대 58입) (212)460-2815 New York, NY</p> <p>교역</p> <p>진리교회 김태철목사(공대 76입) (718)225-1000 New Hyde Park, NY (L.I.E., Exit 33 South)</p> | <p>국제금융</p> <p>Sit/Kim International Investment Associate 김병수(상 55입) (212)750-7215 New York, NY</p> <p>PTC International 이태영(법대 60입) (410)962-8409 Baltimore, MD</p> <p>금고</p> <p>Alco Lock & Safe 정인식(상 58입) (212)867-3377 New York, NY</p> <p>금융/우지</p> <p>Liberty Bank of New York 우상영(상대 55입) (201)695-5757 New York, NY</p> <p>외환은행 브로드웨이 지점 이홍일(상대 70입) (212)736-6575 New York, NY</p> <p>무역</p> <p>Nina America Inc. 강석권(법 61입) (212)683-6462 New York, NY</p> <p>EAC Trading Inc. 윤정옥(약 50입) (516)466-5678 Great Neck, NY</p> <p>Oregon Hide Co. 조형원(수 55입) (503)620-1001 Lake Oswego, OR</p> <p>G. A. Marketing Company 지인수(상 59입) (310)216-7929 Los Angeles, CA</p> <p>변호사</p> <p>최형무 변호사 최형무(법대 69입) (718)463-3500 Flushing, NY</p> | <p>김용화 변호사 김용화(법대 69입) (212)619-1770 New York, NY</p> <p>병원/내과</p> <p>Joon J Bang, MD 방준재(의 63입) (718)768-1264 Brooklyn, NY</p> <p>병원/수의과/동물병원</p> <p>Charles H. Sung, DVM DVM 성홍환(수의 75입) (330)534-8383 Hubbard, OH</p> <p>병원/신경외과</p> <p>Rim and Sul, MDPC 임준수(의 57입) (313)882-2922 Grosse Pointe, M</p> <p>병원/신경정신과</p> <p>Kenneth Song 송관호(의 58입) (212)423-4817 New York, NY</p> <p>병원/위장내과</p> <p>Chang Ho Suk 석창호(의 66입) (718)461-6212 Flushing, NY</p> <p>병원/치과</p> <p>Sung Bo Hong, DMD 홍성보(치 63입) (201)871-0007 Tenafly, NJ</p> <p>보석</p> <p>Gold Plus 서재숙(음 65입) (212)354-8988 New York, NY</p> <p>보험</p> <p>KOI 종합보험 김성희(상 67입) (213)387-5252 Los Angeles, CA</p> | <p>한미종합보험 박일순(상 59입) (718)458-3551 Jackson Hts, NY</p> <p>한영종합보험 한영우(공 59입) (718)463-9100 Flushing, NY</p> <p>부동산</p> <p>Cosmo Realty 이재택(법 60입) (201)944-4949 Palisades Park, NJ</p> <p>C-21 Infinity 이재원(법 60입) (201)944-5353 Palisades Park, NJ</p> <p>REMAX(희망부동산) 최 호(문 61입) (201)461-3525 Palisades Park, NJ</p> <p>Gateway Title Co. 박인수(총 64입) (213)388-3333 Los Angeles, CA</p> <p>ERA Premier Properties 변만식(사대 49입) (703)750-0000 Annandale, VA</p> <p>로얄 부동산 엄무광(문 65입) (800)474-0200 SKOKIE, IL</p> <p>Pacific Hotel Motel Specialists, Inc. (HMB American Hotel Broker) 김동호(총대 58입) (206)972-3675 Everett, WA</p> <p>한국서적 전문 서점 故 권혁진(문 60입) 창업 (773)577-5967</p> <p>설계</p> <p>JND Engineering, Co 박진득(총 67입) (310)404-1848 Cerritos, CA</p> | <p>Booming World Design & Engineering 김상익(공 49입) (310)539-7760 Court Lomita, CA</p> <p>Queens Plumbing Supply 김승호(공대 71입) (718)392-0111 L.I.C, NY</p> <p>염색</p> <p>Care Tex Industries, Inc. 강봉창(약 50입) (562)602-6567 South Gate, CA</p> <p>운수/물류</p> <p>S. Y. Shipping 김종표(법대 58입) (592)467-5455 Artesia, CA</p> <p>용지</p> <p>Equitable Financia Service 원영배(미 74입) (213)368-5705 Los Angeles, CA</p> <p>Hanin Federal Credit Union 이영일(문리 57입) (213)368-9000 Los Angeles, CA</p> <p>의료/기구</p> <p>MASH 심상은(상 54입) (213)487-5695 Los Angeles, CA</p> <p>의류</p> <p>Jeffrey Allen Corp. 이기영(총 70입) (201)863-5160 Secacus, NJ</p> <p>Jade Eastern Trading, Inc. 이재량(상 61입) (201)440-8500 Moonachie, NJ</p> <p>인터넷 사업</p> <p>KS E biz 장세원(총 69입) (201)722-4796 River Vale, NJ</p> | <p>인터넷 사업</p> <p>Aladdin USA 이형렬(문 79입) (323)692-9888 LA, CA</p> <p>지붕/지붕</p> <p>Knox-Seeman Whse, Inc. 서동영(사대 60입) (310)327-1006 Gardena, CA</p> <p>전자</p> <p>Amkor Anam 정홍택(상 61입) (214)580-1879 Philadelphia, PA</p> <p>주류/상</p> <p>Smitttown Wines & Spirits 이지현(문리 73입) (613)265-1121 Smitttown, NY</p> <p>학원</p> <p>Kumon Educational Institute 김형덕(상 57입) (718)358-0538 Flushing, NY</p> <p>한의/의</p> <p>Joong-Ang Medical Center 이수호(보건대학원 71입) (718)353-6207 Flushing, NY</p> <p>브로스 약국/시호 한의원 박경룡(약대 63입) (718)733-1399 Bronx, NY</p> <p>화장품</p> <p>Revicci(레비치) 신정택(약대 52입·화장품, 약품개발) (973)994-1421 Short Hill, NJ</p> <p>화선</p> <p>Flowers On Lexington 박상원(음 65입) (800)2525-way New York, NY</p> <p>Seward Florist 김수향(간호 72입) (626)287-6161 San Gabriel, CA</p> |
|---|---|--|--|---|--|

새 회계년도입니다. 응답 꼭 보내주세요.

※재미동창회는 전 동문의 네트워크를 위해 Data Base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직 응답하지 않으신 동문은 이 설문지를 기입한 후 오려서 동창회 사무실로 우송바랍니다.

재미 동문직업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위한 설문 및 웹사이트 주소록 일반공개 여부 설문 2001. 7. 1 ~ 2002. 6. 30 회보 구독료 납입서

재미 서울대 전 동문들의 직업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인 모교 지원사업 및 동문 지원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설문에 간단히 답하시어 동봉의 반송봉투를 이용 설문지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창회보를 받지 않는 주변 동문들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본 설문지 여백에 적어 보내시면 고맙겠습니다.

1. 성명 : 한글 _____ 영문 _____
2. 모교 입학년도 _____ 졸업년도 _____
3. 졸업전공 : _____ 대학 _____ 학과 _____
4. E-mail address : _____
5. New home adress : _____
6. New home Tel. No. _____
7. 직장이름 : _____
8. 직장주소 : Tel. _____ Fax. _____
9. 웹사이트 주소록 일반에 공개 무방 (), 가급적 동문들에게만 공개 원함 ().
10. 사업 종류 (다음 해당되는 항목 또는 복수항목에 서클하여 주십시오.)

가정주부, 가정복지 자문, 간호원, 감정사, 경영간부, 경찰, 수사관, 사설탐정, 공무원, 공인회계사, 군인, 금융자문, 은행원, 기업인, 대학교수, 학교 선생님, 학원강사, 디자이너, 미술가, 서예가, 음악가, 연예인, 작가, 기타 예술인, 검사, 판사, 변호사, 법률보조, 법의학, 보험, 부동산 중개사, 실험실요원, 언론인, 엔지니어, 연구원, 요리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의료보조, 은퇴, 장의사, 종교인, 투자자문, 재정자문, 컴퓨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컴퓨터 프로그래머, 기타 컴퓨터 관련업, 통관사, 체육인, 학생, 건설 건축 관련업, 국제무역, 농업, 수산업, 제조, 통신업, 도매업, 소매업, 건설업, 광고업, 여행업, 인쇄업, 운송업, 기타 서비스 소매, 기타 직업.

11. 위의 사업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취급하시는 분야 또는 전문분야를 간단하게 아래에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의사의 경우) "정신과" : (변호사의 경우) "가정법" : (교수의 경우) "물리학" : (언론인의 경우) "일간신문기자" : (도매업) "의류" 등등

12. 동창회보 일년 구독료 \$ 50은 동창회보 발간 사업 뿐 아니라 모교지원을 위한 업무 및 재미 동문 지원사업을 위하여 긴요한 재원입니다. 재미 동창회 집행부는 모든 회원들을 위하여 재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높이 유지하겠습니다.

본인은 2001. 7. 1 ~ 2002. 6. 30 구독료 \$50을 함께 우송합니다.

Yes. ()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No. () 수표 보내실 곳 : SNUAAUSA (SNUAA in the USA)
 790 Busse Road, Suite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Tel. (847)981-1464 Fax. (847)981-1465

13. 소속 지역동창회 이름 : () 지역동창회

1
 2001. 7. 1. ~ 2002. 6. 30 회계년도 동창회 회보 구독료 \$50.00을 납부합니다. ()

2
**미주 관악후원회
 3차년도 후원금 납입서**

본인은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의 활동재원 확보와 **미주동창회보의 지속적인 월간발행**을 후원하기 위하여 결성된 「미주관악후원회」 회원임을 명예스럽게 생각하며, 제 3차년도 관악후원회비를 아래와 같이 보냅니다.

●매년 불입 후원이사
 년 \$ 200이상 (금액명기 \$)
 년 \$ 500이상 (금액명기 \$)
 년 \$ 1,000이상 (금액명기 \$)

●일시불 종신후원이사
 \$ 3,000이상 (금액명기 \$)

▷이 후원금은 세금 보고시 세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차 후원금에 대한 세금보고용 영수증은 별도로 송부하겠습니다.
 : \$ 250 이상만)

3
1백만 달러 기금 납입서

본인은 영원한 서울대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모교와 후진을 돕기 위한 1백만달러 기금**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다음과 같이 기금을 낼 것을 동의합니다.

●총액(금액명기 \$)
 ①일시불 ()
 ②3년 분할 납입 ()
 (\$)씩 ()회 분납

▷이 기금은 면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미 동창회는 재산을 이 1백만달러 기금에 남겨주실 유언 (A Will) Program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시면 표시해 주십시오.()

Check Payable to :
SNUAAUSA(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Check 보내실 곳 :
SNUAA in the USA
 790 Busse Road, Suite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Tel. (847)981-1464 Fax. (847)981-1465
 e-mail : snuaausa@snuaa.org